

---

#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

## 유네스코 교육 부문

교육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평화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기반이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가장 우선시하는 분야다. 유네스코는 유엔의 교육 전문기구로, 이 기구의 교육부문은 특히 성평등과 아프리카에 중점을 둔 교육을 통해 전 세계 및 각 지역의 교육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국가별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 글로벌 교육2030 의제

교육 분야 유엔 전문기구로서 유네스코는 2030년까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통해 빈곤 해소를 위한 전지구적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2030 의제’(Education 2030 Agenda)를 주도하고 조정해 나가는 임무를 띠고 있다. 모든 SDGs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교육은 그 자체로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육2030 실행 계획’은 이러한 야심찬 목표와 책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2022년 발간

© UNESCO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 2022

ISBN: 978-92-3-000161-2



이 책은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다음의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ttribution-ShareAlike 3.0 IGO’ (CC-BY-SA 3.0 IGO)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할 시에는 유네스코 오픈 액세스 기록관(UNESCO Open Access Repository)의 이용약관(<https://www.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sa-en>)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제:**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이 책의 원문은 UNESCO가 2021년에 발간했습니다.

이 출판물에 나오는 명칭과 자료는 특정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당국의 법적 지위 또는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에 관한 유네스코의 그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 출판물에 포함된 사실의 선택과 제시 및 의견 표명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는 유네스코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유네스코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영문 편집자(Copy editor):** Mary de Sousa

**국문 편집자:** 김보람, 홍보강, 권송, 유보람

**번역:** 이현경

**디자인:** 유네스코

대한민국에서 인쇄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작업은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프랑스 정부, 산탄데르 은행(Banco Santander)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 요 약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우리 인류와 지구는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취약성과 상호연결성을 동시에 증명해 주었다. 이 경로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구상하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긴급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이 보고서는 교육의 힘이 심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인류는 이중의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모든 아동, 청소년, 성인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미완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경로로서 교육이 갖고 있는 변혁적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미래를 바꿔 놓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사회계약은 인권에 근간을 두고 차별금지외 사회정의, 생명 존중, 인간 존중 및 문화 다양성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돌봄의 윤리, 호혜주의, 연대를 포괄해야 하며, 공동의 사회적 노력(shared societal endeavours)이자 공동재(common good)로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2년에 걸쳐 약 백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 협의의 과정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전 세계의 정부, 교육기관, 단체, 시민들에게 모두를 위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데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비전과 원칙, 제안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이를 각각의 상황에 맞게 변혁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미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런 부분을 포착해 기반으로 삼으려고 노력했다. 이 보고서는 실용적 매뉴얼이나 청사진이 아니라, 역동적인 대화의 시작이다.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고 미래를 바꿔  
놓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unesco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

#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

# 국문판 발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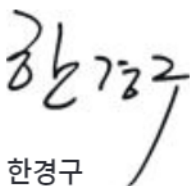
##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교육은 오랫동안 성공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칭송을 받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입시 문제 등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다른 나라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동안 존재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형평성 등 여러 교육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며, 환경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 속에서 미래교육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 교육을 위한 새로운 계약』의 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 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권의 확장을 요청하고, 교육이 공적으로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a public good)일뿐만 아니라 전사회적 참여와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재(a common good)임을 원칙으로 제시하며, 교육의 목적, 내용, 과정이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도록 이끄는 교육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를 위해 교육은 어떻게 변혁되어야 할까? 한국교육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이 시점에, 본 보고서가 대한민국 미래교육 변혁을 위한 전사회적 대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발간사

---

##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지난 1년 반 동안 전 인류는 현재는 연약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느낌을 모두 경험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의 경로를 바꾸고 더 심각한 파괴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동시에 이 행동은 장기적이어야 하며, 전략적 사고와 결합되어야 한다.

교육은 이러한 벅찬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교육은 취약하기도 하다. 바이러스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전 세계에서 학교 폐쇄의 영향을 받은 학습자는 무려 16억 명에 달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서야 그것에 감사하기 마련이다. 그런 이유로 유네스코는 사흘레-워크 쥬드(HE Sahle-Work Zewde)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이 이끈 국제 미래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보고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환영하는 바이다.

75년 전에 설립된 이래 유네스코는 사회 전환의 결정적 순간마다 교육의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해 몇 가지 세계적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그 시작은 1972년 포르(Faure)위원회의 『존재하기 위한 학습: 교육 세계의 오늘과 내일』이었고, 이어서 1996년 들로르(Delors)위원회의 보고서 『학습: 내재된 보물』이 발간됐다. 이 두 보고서 모두 통찰력과 영향력이 컸지만, 최근 몇 년간 세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전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사흘레-워크(Sahle-Work)위원회의 보고서도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 철학과 원칙에 관한 대화를 확장하고자 했다. 위원회는 2년에 걸쳐 무려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가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인류의 미래는 지구의 미래에 달려있고 이 둘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그 경로를 바꾸기 위해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서로와, 지구와, 그리고 기술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우리가 과거의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고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이 계약은 무엇보다도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가르침과 배움을 공동의 사회적 노력(shared societal endeavours), 즉 공동재(common goods)로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비전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분명 희망이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우리가 포용과 형평성, 인권, 평화가 보장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류 전체의 창의성과 지성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이 보고서는 모두가 여기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초대장이며,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줄 것이다.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 서문

---

## 사흘레-워크 쥬드(HE Sahle-Work Zewde)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

지구의 미래는 지역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민주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풍부하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활용하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

인류의 터전은 지구라는 단 하나의 행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행성의 자원을 충분히 공유하지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 각 지역 간에는 용납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며, 소녀들과 여성을 위한 성평등을 이루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다. 기술이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리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디지털 격차가 특히 아프리카에 남아 있다.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능력 간에도 커다란 힘의 불균형이 있다.

교육은 이처럼 견고하게 구축된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핵심 경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교육을 바꿔야 한다. 교실과 학교는 미래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학생들에게 다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21세기의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해 주면서도, 변화하는 일의 본질과 경제적 안정의 조건도 반영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에 대한 전 세계적 재정지원은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늘어나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을 공동재로서 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와 상호 연결된 미래를 하나로 묶어줄 중요한 실마리다. 이 두 가지 보편적 원칙은 보고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어디에서나 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학습은 풍성하고 다양성이 있는 교육의 미래를 만들 기반이다. 인권과 공동체에 대해 꾸준히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는 전 세계의



다양한 지식과 존재의 방식을 한데 엮어 아름다운 태피스트리(tapestry, 벽걸이 융단)를 만들고 거기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태피스트리는 여러 문화와 사회의 형식학습 및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이, 그리고 인류가 공유하고 함께 모으는 지식이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2019년에 만든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다.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온 다양한 우리 위원들의 헌신과 기여에 대해, 특히 본 위원회의 연구초안위원회 의장을 맡은 안토니우 노보아(António Nóvoa) 주유네스코 포르투갈 대표부 대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제안은 세계적 참여와 논의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불확실성과 복잡성, 위험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논의 과정에서는 창의성과 인내심, 그리고 희망이 넘쳐났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지식, 학습, 교사와 교육, 직업, 기술, 역량, 시민의식, 민주주의와 사회적 포용, 공교육 및 고등 교육, 연구와 혁신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로 여기고, 그 주제들의 미래를 검토했다.

지난 2년에 걸친 본 위원회의 작업은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초래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여러 지역에서 학교가 폐쇄되면서 아동과 청소년 및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면밀히 알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생활의 혼란을 겪은 학생과 교사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웰빙과 성장, 학습의 지속을 위해 대단히 놀라운 노력을 기울인 모든 분들께 이 보고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바친다.

부디 여기에 담긴 제안, 그리고 보고서에서 요청한 공적 대화와 집단 행동이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평화롭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촉매가 되기를 희망한다.



사흘레-워크 쥬드(HE Sahle-Work Zewde)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

#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사흘레-워크 줌드(HE Sahle-Work Zewde)**,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안토니우 노보아(António Nóvoa)**, 리스본대학 교육연구소 교수,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연구초안위원회 의장

**마사노리 아오야기(Masanori Aoyagi)**,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 뉴욕대학교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바드 대학원 센터(뉴욕) 막스 베버(Max Weber) 글로벌 교수

**패트릭 아우아(Patrick Awuah)**, 가나 아셰시대학(Ashesi University) 설립자 겸 총장

**압둘 바셋 벤 하센(Abdel Basset Ben Hassen)**, 튀니지 아랍인권연구소 소장

**크리스토방 부아크(Cristovam Buarque)**, 브라질리아대학교 명예교수

**엘리사 게라(Elisa Guerra)**, 멕시코 필라델피아 벨리 학교(Colegio Valle de Filadelfia) 설립자 겸 교사

**바드르 자파르(Badr Jafar)**, 아랍에미리트 크레센트 엔터프라이즈(Crescent Entreprises) 최고경영자

**김도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저스틴 이푸 린(Justin Yifu Lin)**, 북경대학교 신구조경제연구소(New Structural Economics  
Institute) 교수 겸 학장

**예브게니 모로조프(Evgeny Morozov)**, 작가

**캐런 먼디(Karen Mundy)**, 유네스코 국제교육계획연구소(IIEP) 소장, 토론토 대학교 온타리오교육  
연구소 교수(휴직 중)

**페르난도 레이머스(Fernando M. Reimers)**, 미국 하버드교육대학원 교수

**탈시라 리베라 지아(Tarcila Rivera Zea)**, 페루 선주민문화센터(Centro de Culturas Indígenas del  
Perú: CHIRAPAQ) 소장

**세리네 음바에 티얌(Serigne Mbaye Thiam)**, 세네갈 수자원위생부 장관

**바이라 비케프레이버가(Vaira Vike-Freiberga)**, 전 라트비아 대통령, 현재 바쿠 니자미 간자비  
국제센터(Nizami Ganjavi International Center) 공동의장

**마하 야야(Maha Yahya)**, 레바논 카네기중동센터(Carnegie Middle East Center) 소장

# 감사의 말

---

이 보고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 및 기관들의 귀중한 기여 덕분에 완성될 수 있었다.

본 위원회는 독립 보고서와 배경문서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교육의 미래에 대한 전 세계적 협의 과정에 참여한 분들과 기관 및 네트워크에도 감사 드린다.(부록 참조)

미래교육자문위원회는 교육, 연구, 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인사들과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들을 대표하여 매우 귀중한 의견을 제공했다.(부록 참조)

이 보고서의 분석과 초안 작성 과정에 유네스코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해주신 전문가들, 그리고 보고서 초고를 검토해주신 전문가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이들은 트레이시 번스(Tracey Burns), 폴 코민(Paul Comyn), 피터 로날드 데우자(Peter Ronald De-Souza), 이네스 뒤셀(Inés Dussel), 케리 페이스(Keri Facer), 휴 맥린(Hugh McLean), 에브리야 쉘(Ebrima Sall), 프랑스와 타데이(François Taddei), 마라크 자룩(Malak Zaalouk), 하비에르 로글라 푸이그(Javier Roglá Puig)이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특히 스테파니아 지아니니(Stefania Giannini) 교육 사무총장보의 리더십에, 또한 미래학습혁신팀의 소비 타윌(Sobhi Tawil) 국장과 팀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지원에 감사드린다. 미래학습 혁신팀의 팀원은 아이다 알합시(Aida Alhabshi), 아레잔드라 카스타네다(Alejandra Castaneda), 카타리나 세르케이라(Catarina Cerqueira), 아넛 도미테(Anett Domiter), 키스 홀즈(Keith Holmes), 이아로스라바 카르코바(Iaroslava Kharkova), 스테파니 마가 라즈(Stephanie Magalage), 잭맥닐(Jack McNeill), 펑천미아(Fengchun Miao), 미켈라 파가노(Michela Pagano), 마야프린스(Maya Prince), 노아소베(Noah W. Sobe), 엘레나 투칸(Elena Toukan) 그리고 마크 웨스트(Mark West)이다. 미래학습혁신팀은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에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한 유네스코 내 여러 동료들 통해서도 지원을 받았다.

# 목차

국문판 발간사 -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v
발간사 -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vii
서문 - 사흘레-워크 쥬드 대통령	ix
국제미래교육위원회	xi
감사의 말	xii
핵심내용	1

## 서론 7

인류의 생존과 인권, 그리고 살아있는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	8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11
교육 목적의 재정립	12
보고서의 구성	15

## 제1부: 과거의 약속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19

### 제1장 보다 공평한 교육의 미래로 21

교육의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확대	22
지속되는 빈곤과 증가하는 불평등	26
배제의 그물망	28

### 제2장 혼란과 점점 드러나는 변화들 31

위험에 처한 지구	32
민주주의의 후퇴와 커지는 양극화	42
불확실한 직업의 미래	45

## 제2부: 교육의 혁신

52

### 제3장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 55

다시 그려보는 교육학의 접근방식	57
모든 연령과 단계에서의 교육 여정	63
고등교육 목표의 혁신	67
대화와 행동의 원칙	69

### 제4장 교육과정과 진화하는 공유지식 71

공유지식에 대한 참여	73
고등교육의 역할	84
대화와 행동의 원칙	86

### 제5장 교사의 변혁적 역할 89

협력적 직업으로서 교사 역할의 재정립	91
생애와 연계된 여정으로서의 교사 개발	94
교수활동 변혁을 위한 공적 연대	98
대학과 교사의 지속적인 관계	100
대화와 행동의 원칙	102

### 제6장 학교의 수호와 변혁 103

대체 불가능한 학교의 역할	105
학교에 필요한 변혁	107
학교에서 고등교육으로의 이행	113
대화와 행동의 원칙	114

### 제7장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의 교육 117

포용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교육 기회의 활성화	120
교육받는 '시기'의 확장	127
교육권의 확대	130
대화와 행동의 원칙	131

**제3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촉진** **133**

**제8장 연구와 혁신에 대한 요청** **135**

교육을 위한 새로운 연구 의제	137
지식, 데이터, 증거의 확장	140
혁신되는 교육의 미래	144
대화와 행동의 원칙	147

**제9장 세계적 연대와 국제협력의 요청** **149**

더욱 위태로워지는 세계 질서에 대한 대응	151
목적, 책임, 규범, 표준의 공유를 위해	153
지식 생성과 증거 활용에서의 협력	155
교육이 위협받는 곳에 대한 재정지원	156
유네스코의 역할	157
대화와 행동의 원칙	158

**에필로그, 그리고 지속: 함께 만드는 교육의 미래** **161**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한 제안	163
행동에 대한 요청	170
대화와 참여	173
지속을 위한 초대	176

**부록** **179**

<b>주요 참고문헌</b>	<b>180</b>
독립 보고서	180
참고 문서	182
글로벌 자문 자료	185
국제미래교육위원회 간행물	186
<b>국제미래교육위원회</b>	<b>187</b>
사명	187
위원 소개	187
<b>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b>	<b>193</b>
<b>글로벌 자문 제공자 목록</b>	<b>194</b>

# 핵심 내용

---

지금 세계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 우리는 지식과 학습이 혁신과 변혁의 기반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불거진 격차, 그리고 학습의 이유와 방식, 내용, 장소, 시기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는 다급한 요구는 교육이 우리가 평화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자연환경에 큰 부담을 주었고, 결국 우리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늘날 세계에는 높은 생활수준과 엄청난 불평등이 공존하고 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기본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급속한 기술 변화는 우리 삶의 여러 측면을 변모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혁신의 방향은 적절하게 형평성과 포용, 그리고 민주적인 참여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각자는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이란 우리 세계가 결핍이 아닌 풍요의 세계, 모두가 동일한 인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비록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고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 지금의 인류는 전체 역사를 통틀어 지식과 협력을 위한 도구에 가장 높은 접근성을 누리고 있다. 인류가 함께 더 나은 미래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지금까지 높았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본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는 2050년과 그 이후를 내다보면서 교육이 이 세계와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의 제안은 2년간의 세계적 참여와 공동작업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 지구에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학습 공간을 다시 구상하는 방법에서부터 교육과정의 탈식민지화와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의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기여가 담겨 있으며,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허위정보, 디지털 격차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적이고 점차 커져가는 두려움도 반영돼 있다.

교육, 즉 우리가 평생 동안 가르침과 배움을 수행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인간사회 전환의 기반이 되어왔다. 교육은 우리를 세계와, 또한 서로와 연결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대화와 행동을 위한 우리의 역량을 높여준다. **하지만 평화롭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그 자체도 변혁이 필요하다.**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교육은 사회계약,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려는 사회 일원들의 암묵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사회계약은 공식적으로 법제화되고 문화적으로 내재된 규범과 책임, 원칙을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출발점은 교육의 공공 목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이다.** 사회계약은 교육제도와 이를 구축, 유지, 개선하기 위해 분배된 작업을 구조화하는 기초적이고 조직적인 원칙들로 구성된다.

20세기의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의무교육을 통해 국가의 시민권과 발전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인류와 살아있는 지구의 미래가 중대한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시급히 재구상해야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구상은 공유되고 상호의존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우리를 단결시켜 집단적 노력에 동참하게 만들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정의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혁신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그 사회계약은 이 보고서가 강조하듯 교사의 역할을 옹호해야 한다.

2050년을 바라보면서 교육에 대해 던져야 할 세 가지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기본 원칙

새로운 사회계약은 인권, 즉 포용성과 형평성, 협력, 연대, 그리고 집단적 책임과 상호연결성을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 두 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규정된 교육권은 여전히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초를 이뤄야 하며,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 문화, 과학에 대한 권리와 대대로



축적되고 계속 변모하는 인류의 집단 지식자원인 공유지식(knowledge commons)에 접근하고 기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

- **공공의 노력(public endeavor)이자 공동재(a common good)로서 교육의 강화:** 공동의 사회적 행위로서 교육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해준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교육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교육에 관한 공적 토론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교육은 공동재(a common good), 즉 함께 선택하고 성취하며 공유하는 웰빙의 한 방식으로 강화된다.

이 기본 원칙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육이 인류의 성취를 지원해 준 것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한 205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여정에서도 교육이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고 그 세계를 새롭게 만들도록 해줄 것이다.

### 과거의 약속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자원 남용, 민주주의의 후퇴, 혼란스러운 기술 자동화 등이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역사적 시점의 대표적 특징이다. 이처럼 많은 중복된 위기와 도전과제들은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인권을 제한하고 지구상의 많은 생명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 교육 시스템의 확대로 많은 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양질의 학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며 이보다 더 어두운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별로 남지 않은, 고갈된 지구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다. 극단적인 미래 시나리오 중에서는 양질의 교육이 엘리트의 특권이 되고, 대다수 집단은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세상도 상상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 불평등이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교육과정이 무의미해지는 때가 오는 것은 아닌가? 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지만 그 어떤 추세도 운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여러 가지 대안적 미래가 가능하며, 몇 가지 핵심 영역에서 이미 서로 상충하는 전환(disruptive transformations)을 파악할 수 있다.

- 지구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역자 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청정에너지 등으로의 전환)와 경제의 녹색화가 진행

중이다. 아동 및 청소년이 앞장서서 의미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맞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가 후퇴하고 민족주의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서의 등장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차별과 불의에 맞서는 적극적 시민참여와 활동도 두드러졌다.
- 디지털 기술에는 엄청난 전환의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 커다란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및 산업구조조정으로 세계 각국의 고용 환경이 바뀌면서 괜찮은(decent) 인간중심 노동(human-centered work)을 창출하는 도전과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더 많은 대중과 공동체들이 돌봄 노동의 가치와, 경제 안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각각의 혼란들은 모두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통해 무엇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우리가 교육을 조직하는 방식들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건강한 지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공동의 발전을 보장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문제의 일부는 교육 방식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학습에 대해, 또 학생, 교사, 지식,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 혁신을 위한 제안**

**교육학(Pedagogy)은 협력, 협동, 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적·사회적·도덕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편향성과 편견, 구분(divisiveness)에 대한 탈학습(unlearning)도 필요하다. 평가는 이런 교육학적 목표들을 반영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의미 있는 성장과 학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은 생태적, 상호문화적, 학제적 학습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이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이를 비판하고 적용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류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를 수용하고, 살아있는 행성이자 단 하나의 고향인 지구와 우리가 관계맺는 방식을 다시 균형잡아 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학적 문해력, 인문학적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을 통해 잘못된 정보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 교육 내용, 방법, 정책에서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민주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교수활동은 협력적 행위로 좀더 전문화되어야 하며, 거기서 교사들의 역할은 지식생산자이자 교육과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협동작업과 팀워크가 교사 역할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성찰, 연구, 지식창조와 새로운 교육적 실천이 교수활동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자율성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교사가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공적 토론과 대화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교는 포용, 형평성, 개인과 집단의 웰빙을 지원하는 교육 장소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보다 정의롭고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세상의 변혁을 더욱 잘 촉진하도록 다시 그려보아야 한다.** 학교는 다양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도전과제와 가능성을 접하도록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학교의 건물, 공간, 시간, 시간표, 학생 그룹화(student groupings)는 다시 디자인되어 개별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학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학교는 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성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우리가 열망하는 미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교육 기회를 향유하고 확대해야 한다.** 누구나 인생의 모든 시기에 의미 있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누리려 한다. 우리는 자연의 학습공간, 건물로 된 학습공간, 가상의 학습공간을 연결하고, 각 공간이 갖는 최상의 잠재력을 주의깊게 활용해야 한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가 맡아야 하며, 정부의 교육분야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과 관리감독(regulation) 역량은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받을 권리는 평생 동안으로 확장되고, 정보, 문화, 과학 및 연결성(connectivity)에 대한 권리를 포괄해야 한다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촉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은 가능하다. 우리는 수백만의 개인과 집단의 행동, 용기, 리더십, 저항, 창의성, 돌봄의 행동을 통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차별과 배제,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지향성, 나이, 시민권의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그리고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한 대단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연구와 혁신을 촉구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에서는 평생 동안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둔 전 세계적 협력 연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연구프로그램은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수평적 학습과 국가 간 지식교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근거를 포용해야 한다. 교사부터 학생까지, 학계와 연구센터부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든 이들의 기여를 환영해야 한다.

**세계적 연대와 국제협력을 촉구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는 공동재(a common good)로서의 교육을 지원하는 세계적 협동작업에 대한 책임감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간의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북-남 원조의 흐름을 넘어서 남-남 및 삼자 협력을 통한 지식과 증거의 생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실현에 필요한 공동의 목적, 규범, 표준에 따라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을 존중하고 지방(local), 국가, 지역(regional) 차원의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 특히 난민신청자, 난민, 무국적자, 이주민의 교육적 요구는 국제협력과 글로벌 기구들의 활동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연구와 과학 발전 지원에서부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및 세계에서 또 다른 교육 기관과 교육프로그램에 파트너로 기여하는 것까지,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공동재로서의 교육의 강화에 책임을 다하는 대학들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동, 청소년, 학부모, 연구자, 활동가, 고용주, 문화계 및 종교계 지도자 등 **모두가 교육의 미래 건설(building the futures of education)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 건설의 기반이 되는 깊이 있고 풍부하며 다양한 문화 전통을 갖고 있다. 인간은 뛰어난 집단적 행위능력과 지성, 창의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지속불가능한 길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급격하게 경로를 변경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안했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이 제안들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이 보고서는 청사진이라기보다는 생각과 상상을 요청하기 위한 초대장이다. 전 세계의 지역사회, 국가, 학교, 그리고 모든 종류의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시스템들이 앞선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수립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기 위한 중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 서론

---

우리는 지속불가능한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급격하게 경로를 바꿀 것인가 하는 실존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 지금의 경로를 고집하는 것은 부당한 불평등과 착취, 급증하는 여러 형태의 폭력, 사회적 결집력과 인간 자유의 침해, 계속되는 환경파괴, 그리고 위험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우리 사회의 기술적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위험을 예측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시급히 함께 우리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고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혁신과 전환의 기초는 지식과 학습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불거진 격차, 그리고 학습의 이유와 방식, 내용, 장소, 시기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뜻하는 것은 교육이 평화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는 우리 세계가 결핍이 아닌 풍요의 세계가 되도록, 모두가 인권을 가장 완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급하게 행동에 나서야 하고, 또 지금은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희망을 한가득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인류라는 종으로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식과 협력의 도구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인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지금보다 컸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교육, 즉 우리가 평생 동안 가르침과 배움을 수행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인간사회 전환의 기반이 되어 왔다. 교육은 우리가 함께 창조하고 세대 간 지식 전수의 순환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교육은 우리를 세계와, 또한 서로와 연결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대화와 행동을 위한 역량을 높여준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그 자체에도 변혁이 필요하다.

본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는 2050년과 그 이후를 내다보면서 교육이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와 공동의 미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의 제안은 2년간의 세계적 참여와 공동작업 과정을 통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공유하는 이 지구에서 서로 연결돼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가 우리 각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돼 있다. 그와 아울러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항상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미래 전망은 교육적 사고와 정책,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래 전망은 학생과 가족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부터 정부가 수립하는 교육 변화를 위한 대규모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가능하고 대안적인 미래를 탐색하는 것은 윤리, 형평성, 정의에 대한 진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 어떤 미래가 바람직하며, 그것은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본 보고서는 교육과 관련된 미래 시나리오에는 급진적 전환부터 심각한 위기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 주된 목적은 우리가 현재를 다르게 규정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에 열리거나 혹은 닫힐 수도 있는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모든 가능하고 대안적인 미래를 탐색하는 것은 윤리, 형평성, 정의에 대한 진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 어떤 미래가 바람직하며, 그것은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동시에 교육은 외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잠재적인 미래가 펼쳐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미래를 그려볼 때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인류의 생존과 인권, 그리고 살아있는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

각자의 존엄성이 고귀하다는 생각,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약속, 우리의 유일한 집인 지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경로를 바꾸고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 그리고 기술과의 관계에서 시급히 균형을 잡아야 한다. 우리의 상호의존성과, 인간 너머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장소와 그 역할에 대해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중첩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자원 남용, 민주주의의 후퇴, 혼란스러운 기술 자동화와 폭력 등이 지금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는 우리를 규정짓는 특징이다.

역설적인 발전 추세는 우리를 지속불가능한 미래로 이끌고 있다. 세계의 빈곤 수준은 개선됐지만,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불평등은 오히려 더 커졌다. 역사상 가장 높은 생활수준과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불평등이 공존한다. 기후변화와 환경의 황폐화는 인류와 이 행성의 다른 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위태로워지고 있다.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가깝게 연결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분열과 긴장을 심화시키는 데도 일조한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의 취약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 이 모든 위기와 도전은 개인과 집단의 인권을 제한한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와 도전은 대부분 인간의 선택과 행동이 빚어낸 결과다. 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정치·사회·경제 시스템에서 생겨난 것이며, 이 시스템은 장기성보다 단기성을 우선시하며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지속 불가능한 자원 이용에 의존하는 경제 모델은 기후 및 환경 재난을 가속화시켰다. 단기 이익과 과도한 소비주의를 우선으로 하는 경제 모델은 탐욕스러운 개인주의, 경쟁심, 공감능력의 부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지구상의 수많은 사회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세계의 부는 극히 일부에게 집중되고 말았으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권위주의, 배타적 포퓰리즘, 정치적 극단주의의 등장은 지금까지 중요한 시기에 민주적 거버넌스에 도전이 되고 있다. 지금은 정치적 국경이 없는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때인데도 말이다. 수십 년에 걸쳐 평화로운 방식으로 차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을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사회적·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혐오 발언, 무책임한 허위정보 유포, 종교적 근본주의, 배타적 애국주의 등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편파적 이익을 도모하는 일부에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표방한 공동의 가치에 뿌리내린 세계 질서는 약화되고 있다. 부패, 혐오, 편협성과 편견, 폭력의 일상화가 늘어나는 데서 알 수 있듯 우리 세계는 가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강제이주 및 실향(displacement) 등 인간 이동이 늘면서 인종주의와 편견, 편협성, 차별이라는 비인간적 결과가 너무나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폭력은 협력과 자유보다는 지배와 통제를 추구하는 권력 구조에서 비롯된다. 무장분쟁과 점령, 정치적 탄압 등의 폭력은 생명을 파괴할 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개념 자체를 훼손한다. 헤게모니를 쥐고 특권과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성별, 인종, 민족성, 언어, 종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흔히 저지르며,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집단을 억압한다. 그 집단이란 선주민, 여성, 난민, 이주자, 인권옹호자, 환경운동가, 또는 반정부인사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컴퓨터는 지식의 생성, 접근, 보급, 검증, 이용 방식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 이 많은 것이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교육을 위한 새롭고 유망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위험도 많다. 디지털 공간에서 학습은 좁아질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다. 기술은 권력과 통제에 새로운 지렛대를 제공함으로써 억압적으로도 해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안면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 우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우리의 번영을 돕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되며 지적이고 창조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지구와의 균형으로부터, 또한 지구가 떠받치는 풍요로운 생명과의 균형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면서, 우리 현재와 미래의 웰빙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의 지속까지 위협받고 있다. 무비판적으로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종종 위험할 정도로 서로 멀어지고 대화가 단절되며 상호 이해가 부족해진다. 그 반대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러한 지구적·기술적 차원의 불균형은 또 다른 위험한 격차, 즉 우리 상호 간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이 세 번째 불균형은 불평등을 부풀리고, 신뢰와 선의를 파괴하고, ‘타인’을 악마화하고, 연달아 나타나는 전 세계적 도전에 우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미래를 내다보며 이보다 더 어두운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별로 남지 않은, 고갈된 지구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다. 극단적인 미래 시나리오 중에는 양질의 교육은 엘리트의 특권이 되고, 대다수 집단은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세상도 있다. 결국 교육과정은 무의미해지고 현재의 교육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일까? 우리의 인간성 또한 더욱 잠식될 것일까?

## 오늘 우리가 함께 내리는 선택이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내리는 선택이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생존할 것인지 멸망할 것인지, 평화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폭력이 우리 삶을 규정하도록 될 것인지, 우리가 지구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오직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그리고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함께 할 때, 우리는 경로를 바꿀 수 있다.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교육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변혁의 근간이다. 교육은 우리가 지식을 동원해 불확실성 속에서 변하는 세상을 헤쳐 나가도록 돕는다. 교육의 힘은 우리를 세상과 타자와 연결하고, 우리가 이미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 움직이게 하며, 새로운 가능성과 마주치게 해 주는 데 있다. 교육은 우리가 집단적 행위를 위해 단결하게 만들고,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에 필요한 과학과 지식, 혁신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교육은 이해력을 높이고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미래를 좀 더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경제적으로 정의로우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

전 세계의 가족, 지역사회, 정부는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시스템이 개인적·집단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그 경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교육이 — 비록 단독적으로는 아니지만 —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성과를 만들고, 직업에 필요한 스킬과 역량을 구축하고,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돕는 핵심 요소임을 널리 인식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교육은 우리 모두를 위한 웰빙, 정의, 평화와 아울러 환경과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인류의 포용적 비전을 담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둥이다.

하지만 교육은 전 세계에서 교육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망에 계속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육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배제가 중복되면서 수억 명의 아동, 청소년, 성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 성별, 민족, 언어, 문화, 삶의 방식에 따른 차별이 제도적으로 고착되어 있기도 하다. 교육기회 접근의 부족은 관련성(relevance)의 위기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형식교육이 아동, 청소년 및 해당 지역사회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 수준 낮은 수업이 창의력과 호기심을 억누르고 있다. 모든 교육 단계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교 이탈과 중퇴·퇴학의 양상은 현재의 학교교육 모델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되지도, 학생들의 주인의식과 목적의식을 북돋아 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교육 시스템은 차별과 배제, 또는 지속 불가능한 생활방식 등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를 위협하는 바로 그 요소들을 종종 재생산하고 지속시킴으로써 진정한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의 잠재력을 제한한다. 이러한 집단적 실패를 근거로 해서 교육에서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고 안내해 줄 새롭게 공유하는 비전과 원칙과 책임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다.

교육을 위한 사회계약의 출발점은 교육의 공적 목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교육을 위한 사회계약은 교육 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의 구축, 유지, 정비를 위한 활동 분담을 구조화하는 기본 원칙과 구성 원칙들(organizational principle)로 구성된다.

20세기의 공교육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시민권과 발전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했고, 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의무교육의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을 감안할 때, 우리는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교육을 시급히 재구상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우리를 단결시켜 집단적 노력에 동참하게 만들고, 사회·경제·환경적 정의에 기반을 두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혁신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곧 교육, 지식, 학습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그저 현재의 교육발전 모델을 확장하는 것은 진전을 위해 선택할 만한 길이 아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한정된 자원과 수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의 목적과 방법을 규정하고 그것을 조직하는 방식으로부터도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 교육 목적의 재정립

교육 시스템은 장기적 지속가능성보다 단기적 특권과 편리함이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왔다. 또한 개인의 성공과 국가 경쟁력, 경제 발전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연대, 이해, 우리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서로와 지구에 대한 보살핌을 손상시켰다.

교육의 목표는 집단적 행위를 중심으로 우리를 결속시키고, 사회·경제·환경적 정의에 뿌리내린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과학, 혁신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은 과거의 정의롭지 못한 것을 시정하는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환경·기술·사회적 변화에 우리가 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두 가지 기본 원칙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이는 (1) 교육받을 권리와, (2) 공공의 사회적 노력(public societal endeavour)이자 공동재(a common good)로서의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수립에 필요한 대화와 행동은 인권에 대한 책임의식에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 1948년에 작성된 <세계인권선언>은 인류라는 가족 구성원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상상하기 위한 최고의 나침반이다. 다른 모든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받을 권리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안내하는 등불이자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은 소득, 성별, 인종이나 민족, 종교, 언어, 문화, 성적 지향, 정치적 소속, 장애 및 기타의 차별과 배제에 악용될 수 있는 특성들과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인권에 대한  
책임의식에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

교육받을 권리는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포괄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 교육의 권리로 해석돼 온 교육받을 권리는 이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연령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확대된 관점의 교육받을 권리는 정보와 문화, 그리고 과학에 대한 권리와 밀접히 연결되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역량 구축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확대된 교육받을 권리는 공유지식(knowledge commons), 즉 인류가 공유하는 광대한 정보와 지식, 지혜라는 자원에 접근하고 그것에 기여할 권리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지속적인 지식창조의 순환은 경쟁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며, 행동을 조율하고 과학적 진리를 생산하며 혁신을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고귀하고 무궁무진한 자원 중 하나이며 교육의 핵심적 측면이기도 하다. 공유지식은 그것에 접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풍성해진다. 언어, 수, 쓰기 체계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지식이 확산되도록 촉진했다. 이로 인해 인간사회는 지극히 높은 수준의 집단적 번영과 문명 건설을 이룰 수 있었다. 이론상으로 공유지식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공유지식이 촉발하는 다양성과 혁신은 빌려오기(borrowings)와 빌려주기(lendings)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학문적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을 통해, 또한 오래된 것의 재해석과 새로운 것의 생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불행히도 형평성 있게 공유지식에 접근하고 그에 기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다.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에는 중대한 격차와 왜곡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수정해야 한다. 선주민의 관점과 언어와 지식은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다. 여성과 소녀, 소수집단과 저소득 계층도 충분히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폐쇄성은 상업화 및 과도하게 제한적인 지적재산권 법률에 기인한다. 아울러 공유지식을 관리하는 지역사회와 제도에 적절한

지원이나 규제가 없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우리는 예술가, 작가, 과학자, 발명가들의 지적·예술적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식의 적용과 창조를 위한 열린 기회와 공정한 기회를 지원할 책임도 있다. 공유지식에 대해서는 집단적 지적 재산권(collect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인정을 포함하는 권리 기반 접근방식이 적용돼야 하며, 이로써 선주민과 다른 소외된 집단들의 지식이 불법적이고 동의 없이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 생애에 걸쳐 확대된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공유지식이 세상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존재 방식을 반영하는 개방적·지속적 자원이 되도록 보장해 줄 책임감이 필요하다.

### 공공의 노력(public endeavour)이자 공동재(common good)로서 교육의 강화

공동의 사회적 노력(shared societal endeavour)으로서 교육은 공동의 목적을 수립하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번영하게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교육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공공재정 지원을 보장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육에 관한 공적 토론에 참여하도록 사회 전반의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에 대한 강조는 교육을 공동재로서, 즉 함께 선택하고 성취하는 공유된 웰빙의 형태로 강화하는 것이다.

공동재로서의 교육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교육은 인간을 타인과, 그리고 세상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공동으로 경험된다. 교육기관에서 교사, 교육자, 학습자가 함께 모여 나누는 공유된 활동은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활동이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지식이라는 인류 유산을 이용하고 여기에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 있다. 공동창조의 집단적 행동인 교육은 개인과 공동체의 존엄성과 역량을 확고히 해 주고, 공유된 목적을 수립하게 하며, 집단적 행동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우리 공동의 인간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은 최대한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하여 학생들이 차이점을 넘어 서로에게서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은 공동으로 관리된다. 사회적 프로젝트로서 교육에는 그 거버넌스와 관리에 많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교육정책, 교육제공 및 모니터링에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이 추세가 말해주는 것은 교육을 공적인 일로 여기며 다양한 목소리와 투명성, 책무성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다. 교사, 청소년운동, 지역사회 기반 그룹, 트러스트, 비정부기구, 기업, 전문가협회, 자선단체, 종교기관, 사회운동 등이 참여하면 교육의 형평성, 질, 관련성(relevance)이 향상될 수 있다. 차별금지, 기회의

형평성, 사회정의의 원칙이 수호될 때, 비국가 행위자들은 교육권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의 공적인 성격은 공공기관이 교육을 제공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공교육은 (1)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고 (2)공익을 증진하며 (3)모두에게 책임을 지는 교육이다. 누가 운영을 하든 학교는 인권을 발전시키고 다양성을 중시하며 차별에 맞서도록 교육해야 한다. 우리는 공교육이 사회 구성원을 교육한다(public education educates publics)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교육은 우리의 차이와 다양성을 중시하면서도, 같은 인류와 같은 행성에 속한 우리의 소속감을 강화한다.

공공의 사회적 노력(public societal endeavour)이자 공동재(a common good)로서 교육을 책임지려면 지방, 국가, 세계 수준에서 교육의 거버넌스가 포용적이고 참여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상업화로부터 교육을 보호하고 이를 규율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시장(market)이 더는 교육을 인권으로서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대신 교육은 모두의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평생 동안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공공재이자 공동재로서 교육(education as a public and a common good)에 대한 책임의식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규정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들이 교육학(pedagogy)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연구와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을 혁신하기 위한 대화와 행동의 지침이 될 것이다.

##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3부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의 여러 장에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수립을 위한 제안과, 대화와 행동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보고서를 마무리짓는 에필로그에서는 앞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다양한 맥락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보고서는 필요한 경우 연구 증거들을 언급하였지만 본문에 참조를 달지는 않았다.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특별히 마련된 참고문서(Background Papers)의 목록은 부록에 담았다.

1부 ‘과거의 약속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에서는 이종의 글로벌 도전과제로 교육의 형평성과 관련성을 제시하며, 이 두 가지 과제가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것과, 교육의 배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을 밝혔다. 1부는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뚜렷이 제시된 ‘교육받을 권리’가 걸어온 여정을 완수된 약속과 그렇지 못한 약속을 통해 연대기순으로 정리했다. 2장에서는 주요한 혼란과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전환에 초점을 맞춰, 서로 겹쳐지기도 하면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네 가지 변화 — 환경변화, 기술변화의 가속화, 거버넌스와 사회의 파편화, 새로운 직업세계 — 를 다뤘다. 이 장에서는 2050년을 바라보며 교육이 이러한 혼란과 전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이런 변화를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교육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고서의 2부 ‘교육의 혁신’에서는 다섯 가지 핵심 차원 — 교육학(pedagogy), 교육과정, 교수활동(teaching), 학교, 평생에 걸쳐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교육 기회 — 을 중심으로 교육의 재개념화와 혁신을 논의했다. 각각의 장에서는 이 다섯 차원을 다루면서 대화와 행동을 안내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3장에서는 공감, 차이에 대한 존중, 연민을 증진하고 서로 협력해 자신과 세상을 변혁하도록 개인의 역량을 구축하는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을 요청했다. 4장에서는 학생들이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생산하면서, 또한 이 지식을 비판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적·상호문화적·학제적 교육과정을 부각시켰다. 5장에서는 교사들의 변혁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수활동이 협력적 행위로 더욱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6장에서는 학습, 포용성, 형평성, 개인과 집단의 웰빙을 지원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학교의 역할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변화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7장에서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펼쳐지는 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했고, 교육이 공교육 기관에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또한 평생에 걸쳐 경험되는 것임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3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촉진’에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수립을 시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를 위해 연구와 세계적 연대 및 국제 협력을 요청했다.

8장에서는 평생 동안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공동 연구 의제 수립을 요청하며, 모든 사람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수립에 필요한 지식의 생성, 생산, 협의 과정에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9장에서는 끈기와 대담성, 결속력뿐만 아니라 2050년과 그 이후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시급하고 혁신적인 세계적 연대와 국제협력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보고서는 ‘에필로그, 그리고 지속’으로 마무리되며, 여기서는 본문에서 제시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자원 및 활동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그러한 전환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작업 및 대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 단계에서 교육의 혁신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은 정부와 교육행정가는 물론, 교사와 학생, 가족,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에 달려 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을 실행하고, 무엇을 남겨두고, 무엇을 교육과 세상 전반에서 창의적으로 다시 상상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지속적인 전 세계적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인간 너머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 거주자로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맞닥뜨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단순한 반복을 피하면서 전진하는 경로를 찾아내는 혁신 활동이라고 간주한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전보다 더 빠르고 크고 효과적이 된 것만큼 벼랑을 향해서도 내몰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악화되는 기후변화와 요동치는 생태계는 아마도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경고 신호일 것이다. 교육 혁신은 우리가 어렵게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교육 시스템을 더 우수하게 향상시키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고 선별해서 새롭게 만들고, 보다 바람직한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만들어져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폭넓고,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의 대화다. 이 보고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와 행동에 필요한 의제를 담은 제안서이자 초대장이다.

# 제 1 부

## 과거의 약속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교육의 미래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현재 위치, 그리고 지금의 도전과제와 드러나는 전환들이 가리키는 가능한 미래의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삶의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과거는 지금의 우리 안에 남아있다. 우리는 장기적인 역사적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날 배제된 것들과 취약점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교육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품었던 희망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보고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전 지구적 교육 실태를 형평성, 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규범적 책임과 관련해 파악하고, 또한 이러한 사안들의 미래 발전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이 과거의 약속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장에서는 지난 50년간 교육에서 이루어진 진보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 발전이 경제성장과 빈곤, 성차별과 같은 요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그리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 를 탐색한다. 또한 과거가 무시될 수 없는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지금부터 향후 30년 동안 우리가 내릴 선택과 우리가 취할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논의한다.

다음 장에서는 네 가지 주요 분야, 즉 환경, 기술, 정치 영역, 직업의 미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환을 살펴본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동의하는 사항은 바로 지금 진행 중인 전환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경로라는 것이다.



# 제 1 장

## 보다 공평한 교육의 미래로



이것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장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공동선(the common good)을 위해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회적 목표를 증진해야 합니다. 교육은

젊은이들이 사회 발전에 있어 역동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사회 전체의 행운과 불운을 공평하게 나눌 것이며, 사회의 진보는 개인 혹은 공공의 값비싼 건물과 자동차나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웰빙과 관련해서 측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은 전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고,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에 적합한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

줄리어스 니에레레(Julius Nyerere), 『자립을 위한 교육』, 1967.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 30-50년 동안 얼마나 멀리 왔는가? 현재 교육은 어디에 서 있는가?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경로를 바꿔야 할 지점은 어디인가?

이 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난 반 세기 동안의 교육을 성찰한다. 첫째, 긴 시간에 걸친 교육 지표들에서 관찰되는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능하다면 전체 평균이 아니라 지역, 소득집단, 성별, 연령 및 기타 다른 요인에 따라 세분화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교육의 여러 추세에 대한 질적인 논의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교육의 형평성과 질, 그리고 분쟁 및 이주문제와 같은 심각한 혼란에 대한 대응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다.

장기적인 통계적 추세는 측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전체의 일부분만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능한 미래의 방향과 가능한 변화의 경로를 보여줄 수는 있다.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 소외된 인구 집단의 포용, 문해, 평생학습 시스템의 구축 등에서는 공통적인 측면이 발견된다. 하지만 국가 간, 혹은 국가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지역별 혹은 소득집단별로 상당히 다른 점도 나타난다.

오늘날 교육 접근성과 참여 및 결과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과거의 배제와 억압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또한 추세 분석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와 새롭게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뚜렷이 드러내준다. 역사적 관점과 현재의 도전과제에 비추어 가능한 교육의 미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난 50년 동안의 발전은 대단히 고르지 못했으며, 오늘날 교육 접근성, 참여 및 결과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과거의 배제와 억압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내일의 발전은 이러한 과거 문제를 고치는 것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불균형을 초래한 가정과 방안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도 달려 있다. 예컨대 성평등은 그 자체가 목표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요건으로 볼 수도 있어야 한다.

## 교육의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확대

교육이 인권으로 채택된 이후 전 세계적인 교육 접근성의 확대는 여러 면에서 대단한 일이었다. 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됐을 당시 세계 인구는 24억 명이었고, 그 중 45%만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 중 95% 이상이 학교에 다닌다. 2020년에 학교 등록률은 초등학교는 90%, 중학교는 85%, 고등학교

교는 65%를 넘어섰다. 그 결과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확실히 감소했다. 이러한 교육 접근성의 확대가 폭발적인 인구 증가의 와중에 일어난 것은 더욱 인상적인 일이다. 1970년에는 아동 4명 중 1명 이상이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2020년에 그 비중은 10% 미만으로 낮아졌다. 1990년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인구의 거의 2/3를 차지했던 여학생의 등록률 향상은 가장 뚜렷했다. 초등교육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남녀동수(gender parity)에 도달했으며, 저소득 국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학생의 학교 밖 인구 비중은 더는 성비와 비교해 부적절한 수준이 아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취학 전 교육 참여는 모든 지역 및 소득수준별 국가그룹에서 크게 증가했다. 전 세계 취학 전 교육 참여율은 1970년에는 15%를 약간 넘었으나, 2000년에는 35%가 되었고, 2019년에는 60%를 넘어섰다. 고소득 국가 및 중간소득 국가의 참여율은 같은 수준에 도달해 2050년까지는 보편적 취학 전 교육 참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수준에서 취학 전 교육 참여의 성별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좁혀져서 수적으로 남녀동수(gender parity) 또는 거의 동수 수준에 도달했다. 현재 취학 전 교육을 받는 동일 연령의 아동들은 수 년 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교 교육을 받기에 더욱 잘 준비될 것이므로, 이는 초등학교 교육 기회의 성평등 달성에도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참여 확대로 청소년 및 성인 문해율은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발전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국가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중하위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의 청소년 문해율은 중상위소득 국가에서 관찰되는 수준인 90% 이상으로 수렴됐다. 또한 지난 30년간 모든 국가에 걸쳐 여성 청소년 문해율이 대단히 높아져서 성별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제 고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의 청소년 문해율에서 남녀동수는 달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도 성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 역시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감에 따라 미래에는 보편적 성인 문해가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징조다.

고등교육 참여 역시 지난 50년간 대단히 증가했다. 전 세계의 고등교육 참여율을 보면 1970년에는 전체 청소년 및 성인의 10%였으나 오늘날에는 40%까지 높아졌다. 또한 지난 50년간 고등교육 등록수 증가와 더불어 고등교육 참여의 여성화도 진행됐다. 1970-80년대에는 남성의 고등교육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1990년경에는 남녀동수에 도달했고, 그 이후에도 여성의 참여가 남성에 비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이는 저소득 국가를 제외한 모든 소득집단 국가들에서,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1970년 이후의 추세에 기반해 예측한 바로는 고소득 국가는 빠르면 2034년에 100%의 고등교육 참여율에 도달할 것이고, 중간소득 국가들은 2050년에 60%에서 80% 사이의 참여율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50년까지 중하위소득 국가의 고등교육 참여율은 약 35%, 저소득 국가는 15%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 기회의 확대에서 이러한 놀라운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평등하다. 교육 기회로부터의 배제 역시 뚜렷이 나타난다. 아직도 저소득 국가 청소년 4명 중 1명은 비문해자다. OECD 국제 학업성취도평가(OECD-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 따르면, 중간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에서조차도 재학 중인 15세 학생 중 상당수가 자신이 읽은 내용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수준 이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시민적·경제적 참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복잡해지는 이 시대에도 말이다. 그리고 기존의 정의로 보더라도 아직도 중하위소득 국가의 성인문해율은 75% 미만이고 저소득 국가에서는 55%를 약간 넘는다. 성인문해의 성별 격차는 1990년 이후 좁혀지고 있지만, 특히 빈곤층에서는 여전히 그 격차가 심하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여성 5명 중 2명 이상이 비문해자며, 저소득 국가 아동 5명 중 1명, 전 세계적으로는 아동 10명 중 1명, 다시 말해 대략 2억 5천만 명의 아동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읽기, 수학, 과학의 기초문해력 격차 이상으로 이와 유사한 격차가 다른 영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국제 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와 OECD가 수행한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시민적·경제적 참여를 위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민 문해력, 글로벌 역량, 사회정서 역량 등에서도 유사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중등교육 수준에서 더욱 극적이다. 2030년까지 무상으로 평등하고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보편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소득 국가에서는 청소년과 청년 5명 중 3명이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격차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고소득 국가에서 중학교 등록률은 98%로 거의 보편적 수준에 도달한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1/3 이상(여자 청소년의 40%, 남자 청소년의 34%)이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고등학교 교육 참여 격차는 훨씬 더 심각해서, 고소득 국가에서 남녀 청소년 모두 90% 이상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저소득 국가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35% 미만, 남자 청소년의 45% 미만만이 고등학교에 다닌다.

교육 접근성과 등록률 이상으로,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추세는 교육 방법의 질과 관련성(relevance) 측면에서 도전과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 중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고등학생 2명 중 1명 이상이 학습 기간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하고 있다. 중하위소득 국가에서는 고등학생의 60% 가까이, 저소득 국가에서는 거의 90%의 학생이 중등교육과정 완료 전에 학교를 그만둔다. 이토록 엄청난 규모로 젊은이들의 잠재력과 재능을 잃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이러한 대규모의 조기 학업중단은 학습 내용의 관련성(relevance) 취약, 여자 청소년의 특수한 사회적 요구와 빈곤층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관심 부족, 문화적 감수성과 관련성의 부족, 청소년의 현실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교육 방식 및

과정 등의 요소들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전 지구적 ‘학습 위기(learning crisis)’라고 부르는 것에서 크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다.

불충분한 수업의 질도 학생들이 교육이수 전에 학업을 중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밀어내기’ 요인 중 하나다. 충분한 보상과 준비, 지원, 자원, 자율성, 그리고 지속적 발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사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적절한 지원하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며(culturally relevant), 평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시민적·경제적 참여를 위해 학생들이 필요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직의 전문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속성이 있는 교직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재능있는 예비교사의 선발, 이들을 위한 질 높고 관련성 있는 신입교사 준비과정 제공, 교직 첫 해 동안의 효과적 지원, 지속적 교직전문성 개발, 협력적 전문성을 증진하는 교사 직업의 구조화, 학교의 학습조직으로의 변화, 교직 및 행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교사 승진과정 마련, 그리고 교직과 교육의 미래 형성에 교사 목소리의 반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연속적 교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면 집단적 리더십을 통해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많은 문화적 관행들이 교직의 전문화를 가로막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에 대한 관심사가 아닌 정치적 후원 등의 다른 이해관계에 교사의 사명감을 이용하는 것,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해당기관의 ‘자금줄(cash cow)’로 이용하는 것, 학생의 학습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력 구조, 교직 수행이나 교사준비 교육기관에 대한 표준 결여, 교직과 유사한 준비과정 및 업무수준을 요하는 타 직업군에 비해 상당히 낮은 보상수준 등이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나 교사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대의명분을 위한 강제적 재정모금에 참여하게 하는 것 등 전문가로서 교사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압력을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종교적·정치적 충성 강요와 같은 교사의 자유·정체성·인권에 대한 위반 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학교교육 접근성이 높아지고 교사 수요가 확대되는 동안에도 전 세계적으로 자격을 갖춘 초등학교 교사의 비중은 우려스러울 만큼 줄어들고 있다. 이는 세계의 몇몇 지역에 해당되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초등교사 비율이 2000년 85%에서 2020년에는 약 65%로 줄었다. 이러한 추세는 과거 자격 있는 초등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던 지역에서도 나타나며, 예컨대 아랍 지역에서는 자격 있는 초등교사의 비율이 2004년 98%에서 2020년 85%로 낮아졌다. 중등교육에서 자격 있는 교사의 비중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더욱 심각하게 감소했다. 2015년을

전 세계적으로 자격을 갖춘  
초등학교 교사의 비중은  
우려스러울 만큼 줄어들고  
있다.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는 최소 자격을 보유한 중등교육 교사의 비율이 그보다 10년 전의 80%에서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에 참여하는 청년층 비중 역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직업교육 등록률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관측되는데, 2000-2020년 사이 중앙아시아와 중부유럽 및 동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15-24세 청소년의 15%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에 등록했다. 하지만 최하위 저소득 국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동일 연령집단(15-24세)의 직업기술교육 등록률이 여전히 1%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업기술 개발이 공식교육과 훈련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공식경제 부문에서 일하는 청소년들도 전통적 도제제나 비형식적 기술개발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의 청년(16-24세) 5명 중 1명 이상은 교육, 훈련 및 고용에 참여하지 않으며, 그 중 2/3가 여성이다.

1990년 이후 반복적으로 모든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한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겠다는 전 지구적 약속을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수치는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단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소녀 및 여성, 아동, 장애 청소년, 빈곤층과 농촌지역 주민, 선주민, 사회적 소수집단, 그리고 폭력분쟁과 정치 불안정의 결과로 고통받는 집단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소외된 집단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계속해서 교육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미래를 변혁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의 정의롭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불평등과 배제를 만들어낸 요인을 철저히 파악해 교육정책과 전략이 소외된 학생들, 특히 복합적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 지속되는 빈곤과 증가하는 불평등

빈곤은 여전히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주요 결정요인이다. 빈곤은 여학생, 장애인, 정치 불안 및 분쟁상황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인종, 언어, 오지 거주 등의 이유로 주변화된 사람들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복합적 요인이다.

세계 경제는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2.5배 성장했다. 이는 주로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 특히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소득 국가 및 중상위소득 국가의 지속적

경제확장에 의해 촉진됐다. 반면에 2020년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중하위 소득 국가 및 저소득 국가들은 세계 총생산의 1/10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30년간 경제 성장 속도가 지역별로 아주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1990년에 중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 규모는 각각 세계 경제의 약 2%와 1.5%를 차지해 유사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전 세계 GDP의 16%를 차지하는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겨우 2%에 불과하다.

경제 성장으로 개인소득과 생활수준은 향상되고 전 세계의 빈곤은 감소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1인당 연간소득은 1990-2020년 사이 75% 증가했다. 1990년에는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빈곤층으로 간주되었지만 오늘날 전 세계 빈곤율은 10% 이하다. 그렇지만 저소득 국가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빈곤 감소와 소득 불평등 해소에 대한 희망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빈곤 퇴치는 여전히 지구촌의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실질적으로 지난 30년간 전 세계 수준에서 빈곤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6억 9천만 명이 여전히 하루 2달러 미만의 빈곤 속에 살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1/4 또는 약 18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3.2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 극단적 빈곤은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 만연하고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빈곤층의 2/3은 25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이다.

1980년대 이후 신흥발전국과 중간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진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켰다. 동시에 그 속도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국가 내 불평등이 증가해왔다.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은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가 나타났지만 중국과 인도, 북미 및 러시아 연방에서는 급격하게 높아졌다. 한편, 아랍 국가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전통적으로 높았던 불평등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2018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 브라질,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의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본은 공공 영역에서 사적 소유로 이동했다. 경제가 발전했지만 정부는 더 가난해져서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감소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여러 측면에서 교육에 대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평등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며, 사회의 번영과 올바른 거버넌스에 필요한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킨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지원이 매우 상이한 수준으로 주어진다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공평한 운동장이 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학교가 아이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미래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는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다. 정말로 극심한 불평등은 교육의 부패가 일어나는 조건을 낳을 수 있다. 부패한 교육에서는 남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과잉된 교육열이 불법적인 지름길을 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효과적 감독도 부족하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2013 세계부패보고서(Global Corruption Report)>에서는 교육에서의 부패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조달 및 공급을 따내기 위한 여러 자원의 제공, 성적과 입학과 특별고용 및 장학금을 위한 뇌물 공여, 학술적 표절, 연구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기업적 영향력 행사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제도적 신뢰의 약화는 교육의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부패를 하나의 사회적 규범 형태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

## 배제의 그물망

빈곤과 소득불평등은 다른 차별 요소들과 얽혀 교육에서의 배제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성 차별은 빈곤, 선주민 정체성, 장애와 같은 다른 중복 요소들과 결합해 소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욱 배제시킨다. 학교 등록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소득 집단과 지역에서 남녀 동수를 향해 수렴되는 양상이 보이지만, 최저소득 국가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그렇지 않다. 유네스코통계원(UIS) 데이터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 연령의 소년 100명 당 123명의 소녀들이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9개 최저소득 국가에서 극빈층 여학생은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남학생보다 평균 2년 더 적다. 중등교육에서 이러한 학업 중단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학생들에게 평생 동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다. 교육의 시작을 돕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여학생들이 중등교육 과정을 온전히 이수하도록 보장하는 일은 학교만의 책임을 훨씬 넘어선다. 이 문제는 전 세계의 소녀, 특히 사춘기 소녀들이 계속해서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장애물, 이를테면 조혼, 이른 나이의 혹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 가사노동, 월경과 관련된 부당한 낙인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장애는 교육 시스템에 적절한 포용적 정책이 없는 경우 모든 지역과 소득집단에 걸쳐 교육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교육의 장벽은 빈곤과 상당히 중첩된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다수는 가난한 나라에 산다. 모든 연령대에서 중간 및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의 비중은 부유한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더 높다. 빈곤은 장애의 원인이자 결과다. 교육 시스템은 장애가 있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가장 제약을 덜 받는 교육 환경에서 포용해야 한다.



분쟁은 만성적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학교 밖에 남아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 폭력적 분쟁은 학교 운영이나 학교 출석을 불안하게 만들며, 전체 집단을 이주하게 만들기도 한다. 교육기관, 직원, 학생들은 분쟁 기간 동안 표적이 되거나 납치, 강간, 그리고 무장세력 총원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선주민 및 소수민족의 아동 청소년은 모든 교육 수준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중대한 장벽과 맞닥뜨린다. 경제·언어·지리적 장벽만이 아니라 인종주의, 차별, 문화적 관련성(cultural relevance)의 부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선주민 아동 청소년의 학교이탈률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형식교육은 선주민의 지식과 배움의 체계를 반영하지도, 농촌이나 도시 모두에서 이들의 현실과 열망에 부응하지도 못한다.

역사적으로 교육은 아동의 문화적,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도 이용됐다. 예를 들면 교육은 선주민과 소수민족을 주류사회에 동화시키는 장치로서, 또 소수민족 아동들을 종교적으로 교화하거나 그들의 종교적·문화적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장치로 이용되면서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교육을 선주민 아동과 가족을 상대로 한 무기처럼 휘둘러 온 역사는 체계적 차별과 무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지 선주민과 소수민족 아이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종종 강제적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떠나 호스텔이나 기숙학교에 살게 되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문화의 지원을 박탈당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는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는 21세기의 아동 및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기대를 바꾸고 있다. 취업 준비는 중요한 교육 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교육 목표를 너무 좁게 정의하는 것, 특히 학생과 가족의 삶의 현실이나 기회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좁히는 것은 위험하다. 얇은 방식에 대해 폭넓게 접근한다는 것은 곧 지식이 다양한 맥락과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생성·확산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문해력과 수리력이라는 기본 능력만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체화된, 그리고 세계적·지역적·문화적·과학적·영적으로 다양한 문화에 걸친 풍요로운 지적 유산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기 쉬운 선주민, 소수언어집단, 인종적으로 다양한 청소년들의 경우에 해당된다. 공평한 교육은 인류의 수많은 지식과 표현 방식을 포괄해야 한다. 대규모 학습평가는 종종 모어(mother-tongue)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는 소수민족이나 선주민 학생을 더욱 소외시키고 밀어내 일찍 학교를 떠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읽기능력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urvey; PIRLS) 결과에

공평한 교육은 인류의  
수많은 지식과 표현 방식을  
포괄해야 한다.

따르면, 시험에 쓰는 언어를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4학년 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 가장 낮은 단계의 읽기 수준에 도달할 확률이 낮다. 우리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해 단일한 비전을 심어주기보다는 다양한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세상을 권장해야 한다. 개인적·집단적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간 잠재력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인권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문화적·영적·사회적·언어적 정체성이 반영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특히 선주민 및 종교적·문화적·성적 소수집단, 그리고 체계적으로 소외되어 온 집단들에 대해 더욱 필요하다. 교육과정, 교육학, 제도적 접근방식에서 이러한 정체성이 적절히 반영된다면 학생들의 재학률, 정신건강, 자존감, 그리고 공동체의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의 해결책이 소용 없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단과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불안정 등에 따른 실질적인 사회적·교육적 혼란 앞에서 이러한 노력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만으로 전 세계에서 16억 명의 아동 및 청년들이 교육기관 폐쇄의 영향을 받았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되더라도 수백만 명의 학생, 특히 더 가난하고 더 소외된 집단의 학생은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회 변화와 임박한 급격한 혼란을 감안하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수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교육적·사회적 배제를 지속시켜 온 불평등의 그물망을 직시하고, 동시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우리의 공유된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제 2 장

# 혼란과 점점 드러나는 변화들

제 인생에서 배운 위대한 교훈 중 하나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교훈이란  
현재가 영원하다는 믿음, 계속되리라는 믿음,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박하고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은 끊임없이  
생기며, 이는 때로는 행복하게, 때로는 불행하게 우리 개인의  
삶과 시민으로서의 삶, 국가의 삶, 그리고 인류의 삶을  
뒤흔들거나 바꿔 놓습니다.

에드가르 모랭(Edgar Morin), 『100년 인생의 교훈』, 2021.

금세기 중반의 이정표가 되는 2050년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유형이란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 각지에 걸쳐있는 엄청난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 장에서는 종종 서로 겹치기도 하는 네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미래를 전망할 것이다. 그 네 영역은 환경, 인간이 기술과 더불어 생활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거버넌스 시스템, 그리고 직업의 세계다.

예측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전환을 예상해 보는 것은 다가오는 수십 년과 그 이후에 인류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교육이 더 잘 대응하게 해줄 대안적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 위험에 처한 지구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남은 수십 년간이, 특히 2020년대가 인간과 지구상의 다른 모든 생명체의 미래에 결정적 시간이 될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우리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조치에 따라서 2030-40년대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며, 이는 향후 수십만 년, 심지어 수백만 년 동안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지구에 가고 있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는 역사적으로는 전례 없는 일이고 지질학적으로도 거의 드문 일이다. 대기의 화학적 구성은 포유류가 출현한 이래 전체 시대에 걸쳐 나타났던 가장 극단적인 변화보다도 10배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현재 지구는 12만 5천년 전에 시작되었던 마지막 빙하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기후변화의 영향이 현재의 생태계를 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30년간 지구상 생명체의 모습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하고 되돌릴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그리고 기후변화를 위한 교육은 이 세 가지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2015년에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역자 주: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약)은 산업화 초기시대 이후 줄곧 늘어 온 이산화탄소 및 메탄 같은 온실가스의 세계적 배출량을 안정화하고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약속이었다. 각국 정부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이상(바람직하게는 1.5°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연소를 줄이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보고서는 지구 온난

화 진행 속도가 불과 몇 년 전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 지구적 수준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할 방법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는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절망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찌는 듯한 더위, 더욱 잦고 오래 지속되는 가뭄, 홍수, 산불, 그리고 가속화되는 멸종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런데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계를 지탱하기 위한 석탄 채굴과 탄소배출과 같은 인간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 활동에 의해 기후변화가 촉발되면서 열대지방 산호초의 절반이 죽었고, 10조 톤의 빙하가 녹아내렸으며, 바다는 경악할 수준으로 산성화되고 있다. 한때는 탄소배출량 ‘넷-제로(net-zero, \*역자 주: 탄소 중립, 획기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남은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를 2050년까지 달성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의 과학 연구들은 최종 시한이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라 전망한다. 지구의 광대한 역사에 비하면 단지 나노 초(nano-second, \*역자 주: 10억분의 1초)에 불과한 향후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점점 변덕스럽고 위험해지는 기후 속에서 살아가는 악몽 같은 경로로 들어설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덜 심각한 기후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인간에게 우호적인 세계에 남을 수도 있다.

상황의 긴박함은 전 세계의 가정, 기업, 예배 장소, 그리고 학교에서 점점 잘 인식되고 있다. 아동과 청년들은 나서서 행동하라는 가장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금의 불안정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칠게 질책하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또 청년들에 의해 꾸준히 실시되었던 포커스 그룹과 청년 대상 설문조사 등의 협의 과정 전반에서, 청년들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대한 높은 우려를 분명히 드러냈다.

### 행성의 한계를 넘어서

지구 대기와 바다의 온난화는 지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자원의 약탈적 이용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세계 인구는 1950년부터 2020년 사이에 3배, 즉 25억 명에서 거의 80억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높아진 출생률만이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 급속히 길어진 결과다. 2020년에 인간의 평균수명은 1920년의 수명보다 두 배 늘어났으며, 이 놀라운 성과는 무수한 사회적, 과학적 성취가 꾸준히 이어져 온 결과다. 예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인구 폭발은 동시에 자원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다. 인구 증가는 그 속도가 최근 몇 세기보다 느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재 예측으로 세계 인구는 2050년에 97억 명에 도달하고, 2100년에는 약 110억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장은 급격히 가속화된 소비 및 산업 활동과 더불어 자원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유발했고 이는 대부분 환경에 부담이 됐다. 1950년 이후 인간의 물 소비량은 2배로 증가했고, 식량 생산과 소비는 2.5배 증가했으며 목재 소비량은 3배로 늘었다. 그리고 현재 예측으로는 2050년까지 식량 수요는 35%, 물 수요는 20~30%, 에너지 수요는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생산과 소비, 폐기물과 관련하여 지구 행성의 한계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오늘날 인류의 물질 생산 및 소비, 쓰레기 배출량은 이 행성의 한계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현재 인간의 생태발자국에 대한 일부의 추산에 의하면, 우리 인간을 떠받치고 폐기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1.6개나 필요하다. 이는 곧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한 것을 지구가 다시 만들어내는 데 1년 8개월이 걸린다는 뜻이다. 경로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2050년에 인간의 자원 이용 속도는 그 자원을 보충하는 속도의 4배가 될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미래 세대에

지극히 고갈된 행성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우리의 소비와 약탈적 자원이용의 부산물인 환경오염은 빠른 속도로 질병과 사망을 유발하는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이 되었다. 환경오염으로 해마다 900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및 전쟁으로 인한 사망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환경오염은 지구상의 가장 큰 공공보건 위기로 흔히 언급될 뿐 아니라, 학습 곤란 및 학습 장애와도 관련돼 왔다. 이제 학교를 오가는 것만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건강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기오염이 심각해도 많은 교육기관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으며, 적절한 하수처리시설이나 깨끗한 마실 물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어떤 교육시설들은 위험한 수준의 화학적 폐기물과 기타 형태의 독성 오염물질이 있는 지역에 들어서 있다.

설령 ‘탄소 배출량 제로’를 내일 당장 달성하고 100%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삼림 황폐화, 물고기 남획, 산업화된 농업, 광업 및 폐기물 등과 같은 지속불가능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생태 파괴의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더해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인류의 시스템 속에 구축되어 있다. 그 연쇄적 결과는 이제 겨우 보이기 시작했다. 지구의 생물권(biosphere)은 인간도 포함하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상당한 압력을 견딜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의존하는 생태계에 부담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일어나는 임계점에 가까워지게 된다.

인간은 지금의 사태에 책임이 있다. 다만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구상의 특권층과 부유한 지역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놀랄만큼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더 많은 탄소를 소비한다. 인류가 경로를 바꾸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는 생태정의를 포함해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구에 부담을 유발한 책임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부당하게 많이 떠안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변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기후변화와 생태계 불안정화는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극단적 기상현상과 이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육 접근성이 방해받거나 심지어 거부되기도 한다. 아동, 청소년, 성인 학습자들은 적절한 교육시설에서 거리가 먼 지역으로 이주 당하기도 한다. 학교 건물이 파괴되고 학교가 피난처나 다른 서비스 제공 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기도 한다. 학교와 대학이 여전히 운영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때문에 교사가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교사 부족 현상이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기온상승은 교육에 특별한 위험을 준다. 많은 연구에서 열(heat)이 학습과 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학교와 가정은 온도를 적정하게 낮춰주고 기온 조절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물질적 자원이나 건물, 기술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더위를 겪는 국가들과, 많은 부유한 국가들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온도 급상승을 경험하는 나라들의 현실이다. 최근 예측에서 제시된 바로는 온실가스 배출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2070년에는 세계 인구의 1/3이 인간이 살기에 너무 더운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 세계 학생들은 위험한 수준의 더위와 다른 극단적 기상 현상 때문에 학교 출석 대신 집에 머물라는 지시를 빈번하게 받고 있는데, 이런 현상의 규모와 정도, 빈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은 학생과 교사, 학교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생계와 웰빙에도 광범위한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식량 불안정이 높아질 가능성, 질병 확산, 악화되는 경제의 불안정성, 이 모두는 교육권 보장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가져다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영향이 똑같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기후변화가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자급 농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성 불평등을 증대시킨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것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경향이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거주지를 잃을 때 여성과 소녀들이 빈곤의 덫에 빠질 가능성은 훨씬 높다. 이들이 교육을 통해 예전 생활로 돌아가거나 이를 회복할 가능성은 남성 및 소년들에 비해 더 낮다. 또 기후변화로 남성의 해외이주가 증가하면 여성이 가족의 생존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떤 상황에서는 소녀들의 조혼이 가족

의 부양을 위한 몇 안 되는 선택 방안이 되며, 이 경우 소녀들이 미래에 교육받을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교사로서, 노동자로서, 의사결정자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리더로서 기후정의를 위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후 적응과 완화 실천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선주민 여성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 이 여성들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작물의 파종 및 수확, 물 관리, 생물 다양성 보존, 작물 저항성 증대, 종자보존 및 선택 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이들의 기여는 종종 무시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또한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공적 논의에서 충분한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핵심 구성원들인 학생과 교사 및 가족들도 기후변화와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 놀랄 만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들의 주도적 역할은 필수적이다. 교육정책 및 교육계획 수립을 넘어서 참여적 접근방식이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인간이 초래한 지구와 교육의 변화에 대한 연구 및 지식 생산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교육적 성취와 완수는 지속불가능한 실천 관행과 연관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교육 받은 국가들과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가장 많이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는 그간 교육이 평화, 정의, 인권에 이르는 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 왔지만, 실제로는 이제야 겨우 교육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이를 위한 역량을 키워 줄 것을 기대하며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업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교육 받는 것이 지속불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면, 우리는 교육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한 교육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교육 개념을 재조정해야 한다.

### 희망의 근거

교육은 너무 오랫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근대적 개발 패러다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생태지향적 교육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초기 징후들이 있다. 그 교육은 지구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균형을 되찾아 주고, 상호 의존적인 지구 생태계와 그 한계를 인정하는 이해에 기반한 교육이다. 매년 4월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종교적 행사 중 하나가 되었다. 어린이들은 기후운동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비전을 들려줄 뿐 아니라 실천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의 행동은 다른 미래를 맞기 위한 예행연습이다. 여기에 더해 지속가능발전은 교육의 지도 목적이자 교육 과정의 구성 원칙으로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생태 감수성에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살아있는 지구와 균형을 이루는 2050년의 미래를 만들어갈 가능성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고 많은 정부정책이 이를 승인했지만, 정책과 실천 관행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으며, 심지어 결과와는 더 큰 괴리가 있다. 기후변화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런 교육의 상당 부분은 유독 과학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폭넓은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좀 더 새롭고 효과적인 교육 접근법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우리의 교육 전략은 심화학습과 시민역량 발전을 위한 기존의 지식과 더불어, 생활 및 직업 기술 개발에 대한 최신의 연구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좀 더 새롭고  
효과적인 교육 접근법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해야 한다.

### 연결하고 격차를 만드는 디지털

역사적으로 인류의 현재는 사회의 기술적 전환의 가속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디지털 혁명과 생명공학 및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특징지어진다. 기술 혁신은 우리가 살아가고 배우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 확실하다.

디지털 기술과 도구 및 플랫폼은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며, 평화, 정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집단 행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디지털 문해력과 디지털 접근성은 분명 21세기의 기본권이며, 이들 없이는 시민적·경제적인 참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고통스럽게 깨달은 사실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접근과 연결이 가능했던 사람들은 학교 폐쇄 동안에도 원격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반면 (더불어 실시간으로 다른 필수적 정보를 얻는 혜택도 누렸던 반면), 디지털 접근성과 기술이 없었던 사람들은 학습 기회뿐만 아니라 학습기관들이 제공하는 다른 혜택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 때문에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교육기회와 교육성취의 격차도 확대됐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격차를 좁히고,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문해력을 21세기의 필수 문해력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이 세상을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인간 능력을 기르는 데 활용되도록 하려면 의도를 갖고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은 우리의 권리를 전복하고 능력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위축시켜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새

로운 기술 발전을 마법의 해결책으로 여기며 서둘러 적용했던 경우들은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보다 나은 결과를 낳은 것은 점진적 향상을 추구했던 발전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세상에 간단하고 보편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기술적 실험을 장려해 온 문화에서였다.

디지털, 즉 컴퓨터 기반의 송신·저장·분석을 위해 연속되는 숫자로 전환된 모든 것들은 인간 활동의 광대한 영역을 채우고 있다. 인프라(연결 요소)의 한 형태로서 디지털은 우리의 ‘연결’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 하지만 인터넷 접근성과 더불어 집단적·개인적 목표를 위한 기술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 측면에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s)’ 또한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디지털 기술에는 태생적으로 모순이 있다. 디지털의 여러 가지 작동 논리 중 일부는 인간을 대단히 자유롭게 할 잠재력이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상당한 충격과 위험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혁명’은 과거의 위대한 기술 혁명이었던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과 다르지 않다. 다수의 집단적 혜택은 우려할 만큼의 불평등 및 배제의 증대와 함께 이루어졌다. 우리의 도전 과제는 기술 발전이 인권을 강화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복합적인 영향들 사이로 제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기술은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해와 행동을 나누고 재형성하는 여러 방식으로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특수한 성격은 다른 특성들이 지식과 정보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지식 다양성, 문화적 포용성, 투명성, 지적 자유 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알고리즘 경로, 플랫폼 제국주의, 디지털 인프라의 거버넌스 형태 등의 측면에서 교육을 글로벌 공동재로 유지하는 것에 참여한 도전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오늘날 교육에 관한 논의, 특히 교육의 디지털화와 새로운 하이브리드 형태의 학교나 가상현실로만 구현되는 학교 모델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중심 의제가 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교육계는 디지털 기술과 다양하고, 잠정적이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사로잡혀 있었다. 컴퓨터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실과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여러 교육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며, 더욱 가난한 지역, 특히 개인용 컴퓨터 이용이 여의치 않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데이터, 비디오, 오디오 스트리밍, 정교한 협업과 학습 도구들을 갖춘 호스트(host, \*역자 주: 인터넷에서 호스트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들과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를 말함) 등은 광범위하고 흥미로운 교육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진행 중인 변화들은 교육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적 유산, 열망 등과 관련된 문화적 권리에 대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정보, 데이터, 지식에 대한 권리와 민주적 참여에 대한 권리 역시 이로부터 대단히 큰 영향을 받는다.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하는 인간 존엄성의 핵심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우리는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혼란스러운 변화를 바로 보아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는 가치 있는 학습이 무엇인지를, 학습이 일어나는 방식을,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조직되는 방식을 계속해서 변화시킨다. 디지털 기술은 정보 수집과 이에 기반한 활동 비용을 크게 줄이고, 이러한 과정에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하게 만들었다. 시민과학과 열린과학 프로젝트들(citizen and open science projects)은 디지털 기술이 수집되고 분석되는 정보량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작업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수와 다양성을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다. 데이터의 생성, 순환, 이용 및 데이터의 디지털 프로세스를 거쳐 나타나는 지식은 과학 발전과 특정 분야의 전문성 개발 방식에 변화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중들이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도 바뀌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용이성은 추론과 의미를 형성하는 다른 방식들을 빠르게 잠식했다. 그 결과, 연관은 있지만 계량화하기 어려운 개인적 경험, 그리고 다른 정보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데이터보다 수치화된 데이터가 특권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수천 년에 걸쳐 유지해 온 최고의 도서관 건물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문자 및 그래픽 정보를 손바닥만 한 휴대전화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 적응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은 지식의 전파와 전수 기능을 넘어, 지식이 학습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습자들이 지식을 책임 있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교육의 주요 도전 과제는 사람들이 몇 번 건드리거나 키를 두드리기만 해도 연결되는 정보의 바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를 다루도록 해 주는 것이다.

## 디지털 지식과 배제

디지털 기술은 르네상스 이후 서구의 특유한 특정 지식영역을 지배적으로 반영해 오면서 많은 선주민의 지식을 주변부로 밀어냈다. 어부, 뱃사람, 모험가들의 기후 및 항해 지식은 기술과 해당 기술로부터 도출된 데이터를 갖춘 천문학자, 기후학자, 기상학자들에게 의해 주변부로 밀려났다. 마찬가지로 농부, 수렵꾼, 채집가, 목축업자들이 수 세기에 걸쳐 쌓아 온 지식도 농업경제학자, 임업전문가, 보존전문가, 제약회사 및 영양학자들의 기술

전문성과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에 의해 주변화됐다. 이처럼 비기술(non-technology)적인 삶의 방식들이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인류는 인간 존재, 자연, 환경, 우주론에 관한 방대하고 풍요로운 지식 저장소를 잃어버렸다. 교육자들은 인류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의 DNA를 이루는 이러한 지식을 인지하고, 회복하고, 복원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교육학이라는 학문도 전에는 비공식적이고 토착적이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식으로 흔히 거부되거나 의심받아 왔었지만 결국 전문적 역량이 되었다.

디지털리티(digitality, \*역자 주: 디지털 문화에서의 생활 조건)의 승리로 인해 위협받는 지식 형태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는 사회 자체(the social itself)의 지식이다. 공유와 연결성, 관계성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이익 추구가 중심인 디지털 지식의 대부분은 고립된 개인 이용자나 구매자 또는 분석가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너무 쉽게 고독감과 이기심, 그리고 자아도취를 유발한다. 또한 디지털 문해력과 장비, 플랫폼, 고속 데이터 통신망이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 대단히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토착적이며 기술 수준이 낮은, 단기적인, 상품화되지 않은 형태의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도외시된다.

부분적으로 ‘디지털 격차’는 그 정의상 디지털 영역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측정 및 저장과 분석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생겨난다. 이런 면에서 디지털 격차는 ‘플랫폼 제국주의(platform imperialism)’로 불러 마땅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한 포용적 디지털화가 아닌, 보다 복합적이고 대중적인 참여를 통해 디지털이 공물선(the common good)을 뒷받침하도록 결집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며, 아울러 디지털 세상 바깥에 남아있는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2050년까지 더욱 폭넓게 확산될 디지털리티의 부정적 측면, 특히 지식에 대한 양적·알고리즘적·해답 지향적 정의(definition)에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다만 이런 부정적 경향성에 대한 저항이 디지털화 자체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러티브가 없는 숫자와 문화적 포용성이 없는 연결, 역량강화가 되지 않는 정보, 그리고 명확한 목적이 없는 교육 현장의 디지털 기술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며,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공공보건 및 공교육에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다. 이는 원격교육, 접촉자와 예방접종의 추적, 바이러스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 획득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다. 그렇지만 내러티브가 없는 숫자와 문화적 포용성이 없는 연결, 역량강화가 되지 않는 정보, 그리고 명확한 목적이 없는 교육 현장의 디지털 기술은 인간 발달에 바람직한 방안이나 보조도구가 될 수 없다.

디지털 혁명에 찬사를 보내는 많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은 그 기술이 제공하는 심대한 전환의 기회를 활용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지금 이용되는 디지털 플랫폼들 대부분은 비즈니스 대상을 더 넓히려는 목적을 따르고 있다. 이들이 디자인한 세상은 또한 전체로서의 인류를 대변하지 못하는 편견과 오도된 정보를 퍼뜨리면서 취약한 집단, 즉 여성과 언어·민족·인종적 소수집단과 장애인들을 일상적으로 배제한다. 이것이 현재 제멋대로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디지털 기술의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만들어 왔고 현재 기대할 수 있는 통상적인 상업 모델에 비해 사람들의 역량을 높이고 서로를 연결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보다 유연한 디지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긍정적 발전과 공동재(common good)로서의 잠재력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권위주의적 규제로부터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어느 정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

### 인간 학습자에 대한 헤킹

생명공학 및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인간공학을 실현할 잠재력이 생겨났다. 적절한 윤리적 거버넌스와 공공영역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유전적 구성과 신경화학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지속가능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신경과학의 새로운 도구들은 연구자가 인간 행동을 통해 뇌기능을 추론하던 과거의 방식 대신, 인간의 뇌가 기능하는 방식을 직접 연구·조사하도록 해 주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두뇌 기록 방식은 실제 세계의 교육적 맥락이나 상호작용과는 동떨어진 고도로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인기 있는 연구 활동 중 하나는 서로 다른 학습 활동(언어 이해나 수학적 추론과 같은)을 하는 동안 선별적으로 활발히 활성화되는 두뇌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연구가 수업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밝혀준 것은 거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설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를 학습에 어느 정도 최적화된 조건에 있는 생물학적 기관으로 간주하는 연구들로부터 의미 있는 통찰들이 축적되고 있다. 물리적 신체 건강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뇌 건강의 중요성은 학습과 전반적인 인간 복지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며, 나아가 교육권과 다른 권리, 예를 들자면 건강권 등과의 연계성을 더욱 구체화해 준다.

인간 두뇌의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을 알려주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뇌가 전 생애에 걸쳐서 변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뇌는 어린 시절이 여

인간의 뇌는 어린 시절이 여전히 핵심적인 형성기이기는 하지만, 전 생애에 걸쳐 상당한 학습과 ‘재정렬’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전히 핵심적인 형성기이기는 하지만, 전 생애에 걸쳐 상당한 학습과 ‘재정렬’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또한 특정 화학물질이 그러한 재정렬을 촉진할 수 있어, 예를 들면 환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통찰은 성인교육 및 학습에 잠재적인 함의가 있다.

신경가소성은 환경과 기술변화에 대한 인간의 적응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이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아동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파괴된 지구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또한 지구상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로 된 화면기반 읽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신경가소성의 역할이 커진다. 여기서 제기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우려 사항들은 쉽게 산만해지는 것, 지속적인 주의집중의 어려움, 그리고 정보수집적 읽기(tabular reading) 또는 훑어읽기(skimming, \*역자 주: 전체 지문을 눈을 빨리 움직여 훑어읽으며 요점을 찾아내는 읽기 방식) 방식의 증가다. 뇌가 주어진 과제수행을 위해 자체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스스로 재정비하는 방식에 대한 현재 우리의 이해는 인쇄물과 관련된 선형적 읽기가 그 자체로 엄청나게 복잡한 신경학적 과제수행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인류 문화의 상당수가 구전문화에서 문자문화로 이전했음을 서술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인류에게 문화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해 왔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꽤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해킹’해 왔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앞에 놓인 새로운 읽기 기술에도 우리가 적응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아마도 맞을 것이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디지털 읽기냐, 아니면 인쇄물 읽기냐를 선택하는 방식이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들을 하나로 받아들여, 교사는 학생이 선형적 읽기와 정보수집적 읽기 모두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복합적 문해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쇄물과 디지털은 텍스트에 대한 보완 형식이자 둘 다 필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신경과학과 생명공학의 새로운 발전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오픈 데이터, 오픈 사이언스, 그리고 교육권에 대한 확장된 이해에 달려 있으며, 여기에는 연결에 대한 권리, 데이터에 대한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 민주주의의 후퇴와 커지는 양극화

비판적 사고, 혁신, 개인적 혹은 공유된 목적의 실현은 인권이 존중되는 참여적 민주적 환경에서 풍성해진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세계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심각한 후퇴,

그리고 정체성 중심의 배타적 포퓰리즘 정서의 등장을 목격했다. 그러한 정서는 장벽이 무너지고, 국경이 사라졌으며, 사람, 제품, 아이디어들의 이동이 동시대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확장된 글로벌한 세계 질서에 뒤처졌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배타적 포퓰리즘 정서는 분쟁, 경제적 곤경, 그리고 기후변화의 압력으로 인한 이주 및 실항의 결과로 더 심화되기도 했다.

전 세계에 걸쳐 민주주의 상황을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관들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안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고 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자유로운 정치시스템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정치시스템으로의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으며, <브이DEM> (V.Dem \*역자 주: Varieties of Democracy의 약자, 국제적 민주주의 연구 프로젝트인 ‘민주주의의 다양성’ 조사)은 ‘선거 민주주의에서 선거 독재정치로의 이전’이라고 표현했다. 명명법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민주주의가 과거보다 오늘날 더 취약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포퓰리즘 지도자의 부상과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토착주의(nativism)의 증대에서부터 의도적인 허위정보와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작된 데이터 및 세부 집단을 타깃으로 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퍼뜨릴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의 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오만한 엘리트들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더욱 불확실해지는 미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우려 또한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

많은 민주적 제도가 포위당하면서 세계는 점점 더 분열되고 양극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제도들은 민주주의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또한 민주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도전받고 있다. 인종우월주의적 이상과 광신적 애국주의가 힘을 얻으면서 다양한 정체성과 대화 및 상호이해를 해치고 있다. 시민적, 사회적, 인간적, 환경적 권리는 두려움과 편견, 차별을 활용해 통치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해 대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시민적 담론의 붕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증가는 모두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수준에서의 시민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교육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 영역에서 시민 동원과 행동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반대의 움직임은 참여민주주의 정치의 회복탄력성과 새로운 미래를 향하며, 대개 청년들이 주도하는 생태운동에서부터 소수 집단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정권에 대항하는

## 시민적 담론의 붕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증가는 모두 교육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시민 투쟁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민주적 권리를 복원하고 법을 존중하라는 전 세계적 요구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한 요구에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미투(#metoo)’ 운동처럼 성차별에 기반한 괴롭힘과 폭력에 도전하는 반인종주의 운동과 더불어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을 탈식민지화 하라는 요구도 포함된다.

이러한 운동들의 관심사가 선별적으로 미래의 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교육은 건강한 민주적 시민의식, 충분한 논의의 공간, 참여의 과정, 협력적 행동, 돌봄의 관계, 그리고 공유된 미래를 장려하고 보장하는 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세계적 보건 위기로 인해 이러한 시민참여와 시민행동의 많은 부분들이 추진력과 긴급성을 갖게 되었으며, 함께 모이는 수많은 공동체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많은 정부가 자기 책임성과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사회 전반의 도움 없이는 공공보건이나 기타의 비상상황에 맞설 수 없음을 깨달았다. 사회의 재발견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더욱 악화시켰다. 우리는 행정 권력 확대, 감시기술 사용 증가, 공공집회 및 이동의 자유 제한, 민간인 주거 지역 내 군대 배치, 선거 일정의 혼란 및 다른 여러 가지 영향들을 목격했다. 공공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합리적 이유를 든다고 해도,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공적인 비상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버넌스의 성격을 규정짓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앞을 알 수 없는 정치적 전환의 흐름을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교육에 여러 가지 함의를 갖는다. 이러한 혼란이 교육적 의제를 형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역으로 교육 접근, 교육과정, 교육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 세계에 걸쳐 정치적 전환의 모습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부분적으로는 그 인내심이 소셜 미디어의 리듬에 의해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세계는 정치적 대중 형성 방식의 전환점에 와 있다. 사람들이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못할 때 공적 생활은 심각하게 위축된다. 타인에 대한 돌봄과 존중을 실천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적극적 시민성과 민주적 참여의 능력을 형성해 줌으로써 이를 잘 지원할 수 있다.



## 불확실한 직업의 미래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개인과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가 의미 있는 직업과 경제적 웰빙을 누리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을까?

국제노동기구(ILO)가 2019년 국제 일의 미래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의 권고사항에서 인간 중심적인 직업의 미래를 보장하도록 한 것은 귀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의제에서는 사람과 그들이 하는 일을 경제·사회 정책 및 비즈니스 관행의 중심에 두었다.

오늘날 실업률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높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불안정한 비공식적 고용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 3억 명 이상의 유급 노동자는 여전히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아간다. 수백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은 현대판 노예 상황에 처해 있다. 작업장 안전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동력 참여와 임금 수준에 여전히 큰 폭의 성별 격차가 있다.

노동력 참여율은 1990년 이후 세계 거의 모든 지역과 소득계층에서 천천히 낮아져 왔다. 이는 특히 청년(15-24세)의 참여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1990년에 50%에서 오늘날에는 33%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부분적으로는 지난 30년 동안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재학률 수준이 높아진 것에도 이유가 있지만, 오늘날 청소년 5명 중 1명은 고용, 교육 및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 4명 중 1명은 불완전 고용 상태다.

젠더와 관련한 노동 시장 참여와 기회의 격차는 상당 수준 지속되고 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대체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며 점차 성별 격차를 좁혀 왔다. 하지만 워낙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성별 격차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정도로 벌어져 있다. 2019년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은 50% 이하인 반면 남성은 75%에 가깝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은 교육기관 등록률 증가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생활 수준이 개선되면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고용 시장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한 증거들이 여성 일자리의 질이 더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무급노동과 가족노동은 유급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다.

여전히 큰 폭의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직업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분리가 영속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공식적 ‘직업’으로 간주되는 것과 ‘생산성’으로 측정되는 것들로부터 대단히 많은 필수적 노동이 배제돼 있다. 이런 노동에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종종 여성의 일로 간주되고 전형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돌봄, 자녀양육, 간병, 청소, 요리, 타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들이다. 이 일들은 설령 공식화되는 경우에도 대체로 급여가 낮고 지위가 낮은 일이 된다.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경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과 자유의 폭을 넓히는 일은 향후 얼마간 세계적 도전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촉발된 혼란과 차질에 기인한다. 이 세계적 위기는 여전히 관심의 중심을 차지함으로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로 인해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게 함으로써 직업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폐쇄와 노동시간 손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현재 ILO는 대략 1억 5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성별 격차를 좁히고  
세계적 불평등으로 인한  
피해를 되돌리는 일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성별 격차를 좁히고 세계적 불평등으로 인한 피해를 되돌리는 일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초기에는 재택근무로의 전환이 여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그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세계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은 고용 손실의 영향을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

직업의 미래를 들여다보면 도전받는 그림이 드러난다.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과 같은 기술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아마도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준비가 가장 덜 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녹색 경제 실현을 위해 우리가 지속가능한 실천과 청정기술을 채택하게 되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다. 하지만 각국이 탄소집약적이고 자원집약적인 산업 규모를 줄임에 따라 다른 일자리들은 사라질 것이다. 플랫폼 경제로 인해 19세기의 노동 관행이 다시 생겨나고 미래 세대는 ‘디지털 일용노동자’가 될 수도 있다. 오늘날의 기술은 미래의 직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잘 맞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많은 기술들이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노동 시장의 전환을 직접 겪는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지원 방안을 늘리라는 추가적 요구가 교육과 훈련 시스템에 주어질 것이다.

**교육, 기술 개발, 그리고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행**

반복되는 도전과 최근에 빚어진 차질은 모두 교육과 훈련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 및 다른 교육기관들은 개인이 자유롭고 존엄한 조건에서 경제적 웰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공식·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혹은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 등 다른 형태의 노동을 통해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교육이 마땅히 사람들에게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고 의미 있는 직업과 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교육은 다른 정책 영역의 부적절성이 원인이 되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광범위한 실업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그런 원인이 계속 고쳐지지 않는 것까지 메워줄 수는 없다. 비록 교육이 전체 정책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단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 등이 대체적으로 더 효과적인 수단이다. 교육기관 재학과 청년 실업은 때로 함께 높아진다. 불완전 고용, 즉 자신의 열망 및 기술 역량과 잘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없는 불능 상황(inability)의 문제는 늘 지속되어 왔고 세계적으로 더 커져가는 문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러 국가의 대학 졸업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투쟁에 불을 붙이기도 한다. 사회과학자들이 제시한 바로는 고학력 인구집단이 그들의 기술과 역량을 발휘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으면, 이는 불만과 동요로 이어지고 때로는 정치적·시민적 투쟁의 불꽃을 일으키기도 한다.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s)에서 기술 불일치(skills mismatches)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학습은 직업 세계와 관련성(relevant) 있어야 한다. 청년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아 교육을 이수하고 노동 시장에 통합되어 자신들의 잠재력에 따라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계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학생들이 직업 세계와 다양한 직업 분야에 노출될 수 있는, 좀 더 나은 중등 및 고등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진로상담을 제공할 뿐 아니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 교육자를 지원해야 하며, 이로써 교육자들이 자기 직업분야와 직업 세계의 변화에 보조를 맞출 수 있게 해야 한다. 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을 통해서든,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방안에는 일자리에 기반한 학습 기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에게 실제 세계의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의 품질 및 관련성을 향상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미래의 학습 기회를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직업 선택과목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 자체가 노동 수요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교육으로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공급 측면’의 과잉 개혁들은 직업기술교육훈련과 기술 개발에 영향을 미쳐 왔으나, 그 자체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성장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을 혁신하고 적용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게 해줄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은 정밀한 지식과 인지 능력을 갖추

교육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웰빙을 창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고 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배출한다.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기업가적 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교육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웰빙을 창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의 직업에서는 기술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한 학습이 대단히 중요하다. 녹색경제와 탄소중립적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전략 중 하나는 자격과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서 ‘녹색 기술’을 담아내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새로 출현하는 일자리와 산업부문을 위해, 그리고 저탄소경제 실현을 위해 전환을 맞고 있는 산업부문을 위해 필요하다. 또 다른 중요한 진전은 우리의 학습 환경을 완전히 녹색으로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이 탄소중립적 교육 시스템 창조에 앞장서도록 역량을 높이는 것은 향후 이들이 녹색경제에서 의미 있는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바람직한 전략의 하나다.

### 미래 자격증의 변화

교육과 노동 시장의 교차점에 자격증이 있다. 학교와 대학,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핵심 역할은 기술과 역량 및 지식의 숙달을 인증하는 것이다. 개인에게는 자신의 학습을 인정받고 검증받을 기본 권리가 있으며, 이는 비형식교육과 무형식교육 환경에서 받은 교육에도 해당된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자격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습 성과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육의 핵심에 있는 사회적 과정과 상호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격이란 언제나 교육적 목적 및 활동에 대한 신뢰의 가치를 나타내는 증거로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대용물(proxies)’일 뿐이다.

직업 경력과 고용에서의 변화가 더욱 일상화되고 유동적이 되면서, 연관성 있는 직업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졌다. 정부, 교육자, 고용주와 일반 대중은 더 많은 협력을 통해 해당 사회가 육성하고 발전시킬 직업과 일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노동 시장의 변화와 직업과 일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교육훈련 시스템에서는 이 정보를 더 잘 활용해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직업 세계와 관련성이 있는(relevant) 학습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자격과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에서 좀 더 바깥 상황을 살피고 진취적일 필요가 있다.

## 노동 시장의 구조적 전환

기술과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경제 요인들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노동 시장이 재조정되고 있다. 우리는 ‘긱(gig) 경제’(\*역자 주: 산업에서 정규 고용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임시 계약으로 일을 맡기는 경제방식), 프리랜서 및 외주 경제(contractor economies)의 등장을 보고 있으며, 미래에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비공식 경제 부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고용 모델로 인해, 이미 기존 노동자들에게서 높아지고 있는 재숙련(reskilling)과 숙련향상(upskilling)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다. 교육 훈련 시스템은 보다 유연한 학습 방안을 제공하는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 더 광범위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인구 변화 또한 직업의 미래와 관련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2050년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 청년 인구의 빠른 증가는 청년 실업률과 해외 이주 압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사회보장 및 돌봄 시스템의 추가적 부담에 직면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부양비(dependency ratio)’ 산출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이고 어린이와 노인을 부양할 수단을 제공한다고 가정되는 15-64세 연령층을 전체 인구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2050년까지 이 부양비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급격하게 높아지고,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좀더 완만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더 적은 수의 노동자 집단이 더 많은 비노동자(주로 퇴직자) 집단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 인구의 절반이 25세 미만이 되면서, 전체 부양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청년층 비중이 높아지는 곳뿐만 아니라 노령층 비중이 높아지는 곳에서도 인구변화는 직업 세계와 교육 훈련 시스템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직업기술교육훈련과 성인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최소한 약간은, 생애 동안 노동의 기간을 늘려줄 것이다. 고령자들이 노동 시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남아있게 되면 그들의 기술과 경험은 사회와 경제를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역량을 높여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고 새로 출현하는 직업 기회에 접근하게 되는 청년들은 내일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이는 곧 사람의 능력에 투자하고, 그들의 기술 습득과 재숙련 및 숙련 향상을 지원해야 하며, 평생 동안 마주치게 될 다양한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도 달라질 것이다. 어떤 요구는 모델링을 통해 따라할 수 있지만(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초등학교 교실을 확대하고 교사 채용을 늘리라는 요구와 같은), 다른 요구들은 상호 연결된 복잡한 요인들과 알 수 없는 전환의 흐름 때문에 모델링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교육훈련기관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고, 스스로를 앵커 기관(anchor Institutions, \*역자 주: 한 지역에서 중요한 존재 의미를 갖는 조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활동에 핵심이 되는 요소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교육기관은 지역의 다른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의 학습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학습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미래에 가치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

공식적 직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교육을 필요로 할  
것인가?

우리가 2050년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단절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있다. 그것은 노동자의 기술 수준이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수준의 기술 진보로 인해 공식 경제 부문에서 세상의 일 자리가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공식적으로 고용되는 사회에서 교육은 어떻게 기능하게 될 것인가? 공식적 직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교육을 필요로 할 것인가?

은 어떤 새로운 교육을 필요로 할 것인가?

그간 인간 사회는 개인의 노동에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고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황금 시대에 대한 꿈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예전에 갖지 못했던 여가시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닌 듯하다. 수십 년 동안 빈곤 국가에서 그랬던 것만큼이나 부유한 나라에서도 대량 실업의 유령이 광범위하게 출몰하고 있다.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동력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가?

다행히 그런 만일의 사태를 위한 최고의 제안 중 일부는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하기 위한 기존의 교육 노력에도 동일하게 담겨 있다. 직업의 미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중층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학습자의 의미 창조 능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가치 생산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 할지 모른다. 직업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을 선택해야 한다. 교육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적은 것을 바라는 등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충적인 사고습관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이 잘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사이의 선택이다.

미래에는 우리가 가치를 매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이 변화는 인류가 생존에 급급하던 경제에서부터 농업경제, 산업경제, 그리고 후기 산업경제에 이르기까지 알아 왔던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공식 경제 부문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경제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노동, 공동재(common good) 제공, 물리적인 부분과 규제 등을 포함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인프라도 고려해야 한다. 각각을 구분지어 접근하던 기존의 방식과 이미 확고히 자리잡은 이해관계들로 인해 제동이 걸리기도 하겠지만, 2050년까지는 무엇이 경제 안정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임금을 제공하는 공식적 직업 세계와 아울러 그 너머를 조망하는 폭넓은 관점을 택할 때, 교육은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장기적이며 경제적인 웰빙 창출을 지원할 수 있다. 불확실한 고용의 미래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연성은 반드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 포함돼야 한다.

# 제2부

## 교육의 혁신

1921년, 전 세계 교육자들이 프랑스 칼레에 모여 신교육연맹(New Education Fellowship) 첫 번째 대회를 개최했으며, 그 후 20년간 발전한 이들의 활동은 유네스코(UNESCO) 설립과 그 교육적 권한 구축의 기반이 되었다. 이들은 첫 번째 대회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출현을 공표했다.

우리 보고서의 목표도 그들 못지않게 야심차다. 그렇지만 이는 그저 새출발을 하자는 또 하나의 구호가 아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교육학(pedagogies), 새로운 교육과정 접근방식, 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책임, 새로운 학교의 비전, 그리고 교육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이미 해 온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교육학적·교육적 전통들을 검토하고, 그 유산을 혁신하며, 그 위에 우리 인류와 살아있는 지구의 상호 연결된 미래를 형성하도록 도울 바람직한 새 요소를 덧붙이는 일이다.

지난 100년 이상 이 사회와 가족은 자녀 교육을 약속하는 의무적 학교 교육에 희망을 걸었다.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돼 왔다. 지역과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기는 했지만, 학교의 특성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널리 퍼지면서 이전 시대에 다양하게 나타났던 교육 경험들은 단조로워졌다. 19세기와 20세기에 확립된 교육을 위한 사회계약은 다음과 같은 학습의 구성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은 학급과 교실의 구조 속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에 기반한 교육학적 프로젝트로 여겨지며, 비록 학습환경을 공유하지만 개인의 성취가 우선시된다. 둘째, 교육은 개별 과목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통해 전달된다. 셋째, 교수활동은 대체로 한 학문 분과 내에서 효과적 학습을 지휘하는 교사 한 명의 전문 역량에 의존하는 단독 활동으로 인식된다. 넷째, 학교는 각각의 상황에 상관 없이 건축, 조직, 진행 절차 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학교 모델에 따라 구축된다. 다섯째, 교육은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 집단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운영되는 특별한 전문기관에서



가르치며, 아동 및 청소년이 성인으로서 미래에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여겨질 때 종료되는 방식으로 조직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교육은 공공의 노력(public endeavour)이자 공유된 사회적 책임(shared societal commitment)으로, 또한 가장 중요한 인권의 하나이자 국가와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로서 강화되어야 한다. 반대로 교육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는 인권을 증진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생이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사고가(thinker)이자 행동가(doer)가 되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는 학생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도록 준비시키고, 학생의 행위능력과 책임감, 공감, 비판적·창조적 사고력을 기르고, 아울러 총체적인 사회정서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야심찬 비전에 교육을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습 조직 방식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은 인류가 각자와, 그리고 지구와 더불어 평화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2부에서는 새로운 사회계약 실현을 통해 교육권을 증진하고, 교육을 공동재(a common good)로, 또한 서로를 돌보고 협력하는 인간 능력의 발전을 위한 집단적 노력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할 것이다.

다섯 장에서 각각 제시되는 대화와 행동의 원칙들은 지난 2년 동안 본 위원회가 특히 청년층의 참여에 주의를 기울이며 실시했던 세계적 협의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 원칙들은 또한 학계와 전문가 집단 모두에서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연구와 통찰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 잘 정립된 과학적 지식 기반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이 보고서를 읽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학습자와 시민, 교육자, 부모들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펼치고, 가깝거나 먼 사람들과 서로 연결하며, 일상 속 교육 행위와 교육기관 및 교육 체계를 변혁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협력과 파트너십 활동은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를 바꿀 것이다. 본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변혁을 위한 아이디어와 원칙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한다. 집단적 노력이 있었기에 이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었으며, 여기 담긴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또 다른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 제 3 장

#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

 진정한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들의 목적 의식과 에너지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교사는 돌봄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관계 안에서 학생과 교사는 협력하며 교육 목표를 만들어 갑니다. 

넬 나딩스(Nel Noddings), 『교육철학』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교육학은 협력과 연대에 기반하여, 학생과 교사가 신뢰 속에서 세상의 변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함께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를 증진하는 교육학(pedagogy)이 필요하다. 우리가 배우는 방식은 우리가 무엇을, 왜 배우는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우리가 인권을 가르치고 발전시키고자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학습자의 권리부터 존중해야 함을 뜻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또 젠더, 종교, 인종, 성적 정체성, 사회 계층, 장애, 국적 등 모든 종류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목적의식을 발견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집단적으로 그러한 삶이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해야 하며, 이는 곧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은 차별 금지, 다양성 존중, 회복적 정의(reparative justice)라는 공유된 원칙에 기반해야 하며, 돌봄과 호혜적 윤리의 틀 안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에는 반드시 참여적이고 협력적이며 문제 제기식(problem-posing), 학문 간, 세대 간, 상호문화적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한 교육학은 공유지식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는 한편 또 다른 지식 생성에 기여할 것이며, 평생에 걸쳐 각각의 연령대와 교육 수준마다 고유한 학습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에서는 개념적 지식과 더불어 절차적 지식 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능동적 학습은 지식 함양을 위한 인지적·정서적 참여의 필요성,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그리고 행동하고자 하는 성향을 인정한다. 능동적 학습에서의 교육적 실천은 여러 세대에 걸친 경험과 성찰 및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이 모든 것은 현재와 미래의 긴급한 상황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실제성(학습한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authenticity)과 관련성(학습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relevancy)이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문제 기반 학습은 진정성 있고 관련성 있는 여러 가지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우리의 고유한 관심을 앎과 이해에 연결시킨다.

이 장의 전반부에서는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교육학에 대해 가능한 접근방식을 집중 조명한다. 여기에는 협력적이고 간(間)학문적이며 문제 제기식의 교육학,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는 교육학, 학생을 편견과 분열로부터 탈학습(unlearning)하도록 이끄는 교육학, 불의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학, 교육적 진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평가

하는 교육학이 포함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모든 환경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박물관이나 도서관, 여름캠프, 지역학습센터 등의 무형식 및 비형식 교육 환경 역시 포함된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교육학적 우선 과제를 각 생애 단계별 형식교육의 고유한 요구사항 및 기회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탐색한다. 즉, 유아기의 기반 마련 지원, 아동기에 걸친 협력 지원, 청소년 및 청년들의 고유한 역량 발현, 그리고 고등교육 사명의 재정립 등을 살펴본다. 이 장의 결론에서는 특히 교육자와 교육시스템 관리자, 계획 수립가를 위해 ‘2050 대화와 행동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더 넓은 세상과의 연결성 형성, 협력 증진, 공감능력 개발, 학습 지원을 위한 평가방법 사용 등이 포함된다.

## 다시 그려보는 교육학의 접근방식

교육학은 관계적이다. 교사와 학습자는 상대의 좋은 점을 배우는 교육적 만남을 통해 함께 변한다. 교육적 만남은 개인과 집단이 동시에 변화하는 생산적인 긴장으로 정의된다. 우리 내면의 삶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환경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

학생, 교사, 지식은 고전적인 교육의 세 꼭짓점이다. 가르침과 배움은 둘 다 공유지식에 의해 풍요로워지고 그 지식에 기여한다. 교육적 만남을 통해, 교육은 축적된 지식이라는 인류 공통의 유산에 우리를 연결해줄 뿐 아니라 그 유산을 풍요롭게 하도록 기여할 기회로도 연결시켜 준다.

이 교육의 삼각형은 오늘날 이제 더 폭넓은 세계 속에서 구상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세계 안에서, 그리고 세계와 더불어 학습하고 이 세계를 향상시키도록 도와줄 교육학이 필요하다. 그러한 교육학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 그리고 양심에 대한 권리와 사상의 자유로 대표되는 위대한 성취에 대해 지속적으로 배울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인간중심주의(human exceptionalism)와 소유에 기반한 개인주의로부터 탈학습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한 교육학은 호혜와 돌봄의 윤리에 기반해야 하며, 개인과 집단 및 종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과, 우리가 각자 및 이 지구와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시스템적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도록 고무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은 함께 인류의 공유지식에 의해 풍성해지고 그에 기여하는 지식 추구자(knowledge seekers)와 지식 생산자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미 존재하는 것과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사고가 포함되며,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은 함께  
지식 추구자와 지식  
생산자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식을 생성할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볼 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모든 교육학적 의도 뒤에는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이 놓여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의도는 무엇인가? 학생은 자신의 학습 노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변혁적인 교육적 만남을 통해 학급 친구들과 또래,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대화가 가능해진다. 교수활동이라는 예술이자 과학이자 공예를 멋지게 다루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이들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탐구하고, 창조하고, 상호작용할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교육학적 만남에 적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전략을 제시한다.

### 학문 간, 문제 지향적인 협동 학습

미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제와 기회를 제시할 것이다. 학습자의 문제인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의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세상이 계속 변한다는 인식을 교육과정과 교육학에 넣을 수 있다. 문제 제기식 교육(Problem-posing education)은 학생을 발견과 협력이 필요한 프로젝트와 방안, 활동에 참여시킨다. 명확한 목적과 목표에 직면한 학생은 학문적 경계를 초월해 실현 가능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문제와 프로젝트에 집중함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기반해, 세상을 고정된 것이기보다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지식과 분별력을 기르고, 문해력과 의미 있는 표현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학생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수렴적 접근법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4.7에서는 학생을 더욱 상호의존적으로 되어 가는 세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세계시민으로 파악했다. 2050년과 그 이후를 바라볼 때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체가 문제 및 프로젝트 기반의 학문 간 학습을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모든 범주에서 목표 증진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유된 문제와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곧 학습, 탐구 및 공동 작업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이다. 개인의 지식과 능력은 우리의 힘이 어떻게 공유되는지와 지식 그 자체에 얼마나 다양하고 네트워크화된 차원이 있는지를 부각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확장된다. 프로젝트 및 문제 기반 접근법은 지식의 필요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식을 살아있는 역동과 적용의 장에 놓아준다.

큰 성과를 거둔 교육 형식의 대부분은 전형적인 교과목의 경계를 넘어 아이디어들이 꾸준히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환경에서 생겨난다. 어려운 퍼즐과 같은 지구의 문제들이 각 학문의 경계 안에 국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학 역시 간학문적 성격 (inter-disciplinarity)을 반영해야 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해결책은 여러 가지이므로 교육학의 접근 방식도 상호 의존과 연대의 가치와 원칙을 심어주는 것들로 선택해야 한다. 서비스 학습(service learning, \*역자 주: 전공 및 교양 교과목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합시킨 교육방법)과 지역사회 참여는 교실과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학생이 세운 가설에 도전하고, 학생을 보다 넓은 시스템과 과정과 자신만의 경험을 넘어서는 경험으로 연결시킬 것이다. 이 때 학생은 특히 자신과 다른 물질적 도전에 직면한 사람들과 연결될 때 반드시 온정주의가 아닌 겸손한 정신으로 활동해야 한다. 서비스 학습은 특권층 학생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되며, 모든 학습자들이 자신이 소속한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한 대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학습은 단지 가장 편리하고 자기 이해에 맞는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문제 해결 교육학의 중심 원칙으로 자리잡게 만들 잠재력을 갖고 있다.

### 소중하게 유지해야 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일은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강화되고 우리 공동의 인간성이 풍요로워지는 사회를 비전으로 품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을 넘어서게 해 주고,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우리와 함께해 줄 교육이 필요하다.

연대의 교육학은 포용적이며 상호 문화적 교육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교육학에서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동과 청년, 그리고 인종, 성적 정체성, 계층, 장애, 종교 또는 국적 등에 의해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해 교육 접근성 측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분리를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 각자의 다양한 현실에 기반해서 포용될 권리는 가장 중요한 인권 중 하나다. 교육학은 학생들이 교육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환영하고, 학생들이 포용적이고 타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포용성이 없는 교육학은 공동재(a common good)로서의 교육을 약화시키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인권이 지지되는 세상을 만들 가능성을 저해한다.

또한 학습 그 자체는 다양성과 차이, 다원주의에 가치를 두고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에 직접 맞설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어떤 한 사람이나 하나의 관점도 지구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면적인 도전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연대의

또한 연대의 교육학은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식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전 세계에서 자행되었던 체계적 배제와 말살을 반드시 인식하고 시정해야 한다.

교육학은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식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전 세계에서 자행되었던 체계적 배제와 말살을 반드시 인식하고 시정해야 한다. 다른 문화와 인식체계, 생활방식과 세계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는 연대의 교육학을 시행할 수 없다. 연대의 교육학은 이러한 차이들을 실시간으로 모아내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인간 이동의 증가는, 그것이 선택을 통해서든 강제이주를 통해서든 간에, 세계의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그대로 교실과 교육 현장으로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교육적 현실을 만들었다.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 수준과 언어, 그리고 문화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다. 존중, 포용, 소속감, 평화 구축, 갈등 전환을 위한 교육학은 단지 차이를 인정하거나 참아내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런 교육학은 반드시 학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협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과거·현재·미래를 이해하고 연결하며, 그들의 경험을 형성해 온 불평등을 분석하고, 배제와 소외에 맞서 일어나도록 하는 교육이야말로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 하나다.

세계는 다문화적이고 다민족적인 사회들로 풍성해지므로, 교육은 상호 문화적 시민의식을 증진해야 한다. 교육은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학습을 넘어, 다양한 집단과 지식 체계 및 관행과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대화에 필요한 능력, 가치, 조건을 증진해야 한다. 상호 문화적 시민의식의 기초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타인을 존중하는 출발점이다. 상호 문화적 교육을 문화적 소수자나 선주민, 다른 소외집단들을 지배적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우리 사회 안에서 좀 더 균형잡히고 민주적인 권력 관계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보완성과 호혜성 및 존중에 기반해 지식, 실천, 해결책을 서로 풍요롭게 교환하도록 해주는 교육학이다.

우리는 차이를 통해 서로를 교육하며, 공유된 맥락을 통해 배우는 것이 의미를 축적하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공간 안에서의 차이에 주목하는 ‘교육학적 차별화(pedagogical differentiation)’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학습자를 공적·집단적 공간과 관계들로부터 탈맥락화하고 제거하는 초개인맞춤형 학습(hyper-personalized learning)을 구별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차이는 보다 큰 상호 이해로 종합되기 위한 것이다.

교육학은 항상 새로우며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시공간에서 일어나며, 늘 구성중이다. 똑같은 책 두 권은 있어도, 같은 책을 읽는 똑같은 방식은 없다. 똑같은 두 가지 수업 계

획이나 교육과정 단위는 있어도, 똑같은 두 개의 교수 활동(teaching)은 없다. 이 점에서 ‘글로벌 교육산업’을 지배하는 일부 교육테크업계(ed tech)의 동향에 시급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채택하고 교수활동과 학습 및 평가를 위한 미리 만들어진 경로 제공을 약속하며 도처에서 커져가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인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균형을 바로잡을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그 기법의 한계를 비롯해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 하는 사람들을 배제해 온 기존의 권력 구조와 문제 있는 가정(assumptions)을 재강화하는 위험성에 대해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공감과 윤리, 연대, 공동작업, 정의의 실천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이는 인내심을 갖고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과정이며, 기술을 이용한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촉진할 수 있는 심오한 인간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 구분의 탈학습을 위한 학습(Learning to unlearn divisiveness)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은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연대의 교육학은 편향성과 편견, 구분(divisiveness)에 대한 탈학습을 필요로 한다. 지식은 패키지로 만들어 전송할 수 있는 ‘완제품’이 아니다. 교육학은 단순히 지식 전수를 증진하기보다, 어떻게 지식이 역사적으로 구축되고 대화를 통해 구성되어 왔는지를 조명해줄 수 있다.

문화 자원은 우리가 지식과 관계를 맺는 핵심적인 요소다. 교육 정책은 점점 더 젠더, 인종, 민족, 종교, 거주, 국적, 지위, 장애, 성적 정체성, 사회적 출신 성분 등으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과 공유지식으로부터 침묵 당하고 배제됐던 집단적 기억과 열망, 문화 전통, 선주민의 지식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대의 교육학의 핵심은 지배적 지위로 확립된 지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학습이어야 한다. 우리는 탈학습을 학습해야 한다

문화 자원은 우리가  
지식과 관계를 맺는  
핵심적인 요소다.

함께 모여서 미처 몰랐던 각자의 현실을 탐구하고, 이미 확립된 기성 지식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 모든 교육 환경은 안전한 장소, 나아가 피난처가 되어야 하며, 그곳에서 학습자들은 실험하고,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하고, 창조하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교육학은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실수를 겪고 그로부터 배울 권리를 포함한 지적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 때때로 엉망이 되는 학습 활동도 허용하고 가능하게 하는 학습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이해와 공감, 윤리적 방안, 이해와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인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학생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려운 지



식과 씨름할 때, 교육자는 학생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판단 당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하도록 애써야 한다.

### 불의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학습

얇은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인간 지성은 의식과 정서에 직결된다. 이러한 상호연결성을 인정할 때 교육적 가능성의 드넓은 장이 열린다. 우리는 하나의 단일문화적 비전에 저항하면서 서로 다른 앎과 감정의 방식과 생활방식, 그리고 다른 인식론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교육학의 탈식민화는 서로 다른 인식론적 전제와 관점 간에 건설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룸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회복적 정의(reparative justice)와 연대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예견한다. 연대는 결속력 있는 사회 건설에 늘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 최근에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모두에서 중요한 교육학적 목표가 되었다. 연대의 교육학은 집단적 인식과 행동의 필요성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억압적 정권을 넘어서도록 지원해 왔다. 교육적 활동은 연민, 공감, 동정심을 통한 확장적 연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치유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은 윤리와 함께 정의의 필수적 요소다. 과거의 불의를 치유하기 위한 학습은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에 핵심적 구성요소로 자리잡아야 한다.

### 의미 있는 평가의 강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평가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그 성과를 체계적·경험적으로 관찰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평가를 프로그램화 및 표준화하고, 이를 학생의 분류와 서열화에 이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평가 결정은 일련의 가정들에 기반하며, 이러한 평가의 가정들은 그에 선행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학의 가정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육자는 평가 측정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학적 목표와 제공되지 않는 교육학적 목표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많은 중요한 학습들은 측정되거나 계량될 수 없다. 하지만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이 곧 의미 있는 진전을 관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면, 협력이라는 교육적 목표는 한 학생 집단이 협상과 갈등 해결 및 실험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을 경청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기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평가 이론들은 충분히 많으며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논의될 것이다. 교육자와 정책입안자는 모든 시험과 평가 및 척도들이 교육적 흔적을 남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고부담 시험체제(high-stakes testing regimes)를 밀어붙이려는 압력에 저항해야 한다. 이러한 시험체제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학적 선택을 제약하고, 경쟁을 조장하며, 협력과 공동 작업의 기회를 위축시킨다. 경쟁의 어떤 요소들이 학생들이 개인적·집단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탁월성에 도달하도록 고무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체로 교육 목표와 거리가 멀고 잘 알 수도 없는 벤치마킹과 관련되는 외부적 평가 압력에 반응해야 하는 것 대신, 교사에게는 특정한 교육학적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경쟁적 활동을 언제 도입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

측정과 평가는 교육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요긴하지만, 그 지표들은 적절하게, 의미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흔히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이라 불리는 사교육의 세계적인 확장은 교육적 성취의 제한적인 측정에만 초점을 두는 것의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주로 단기 회상과 낮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측정에 초점을 둘 때, 개인적·사회적으로 더 풍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은 상당히 위축된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교육에서 경쟁의 심화로 인해 생긴 부정적 영향과, 고부담 시험으로 인해 협소해진 수업의 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 모든 연령과 단계에서의 교육 여정

참여와 협력의 교육학은 모든 단계의 교육뿐만 아니라 형식교육과 무형식교육까지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교육학은 인간 생애의 어떤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협동과 교육학적 공동작업이 일어나는 기회는 인간 성장과 발달의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의 구분은 대체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뉜다. 인간 지능은 다중적이고, 인간의 흥미와 학습 방식에는 상당한 다양성이 있으며, 또한 인간은 선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달 단계마다 그에 적절한 학습 지원 방식이 있으며 학습자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학습을 개인화시키는 건전한 방법들이 있다. 교육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는 공동의 인식이 말해주는 것은 교육이 목적으로 하나의 여정이며,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생애주기의 각 수준과 단계에서 나타나는 교육학적 딜레마와 가능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그 각각의 단계에서 참여와 협력의 교육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유아기의 기초 지원

어린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어린이만큼 새롭고 신선한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어린이가 다른 사람의 경험에 관심을 갖고, 낯설고 가능성을 가득 품은 세계를 향해 드러내는 호기심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새로움 속으로 출현하는 이 시기의 잠재력을 실현할 책임이 유아교육의 특징이 되어야 하며, 사실은 모든 교육적 환경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양질의 유아교육은 모든 사회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유년기는 뇌의 가소성과 발달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시기며, 필수적인 신체적·인지적·사회적·정서적 성장이 이 시기에 엄청나게 일어난다. 수많은 교육 연구들은 미래 학습과 미래 번영의 핵심 요소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유아교육은 협력과 상호 의존을 지향하는 교육학을 내포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긴밀한 인간관계, 탐색, 그리고 놀이가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발달적 선행요인(developmental precursors)들이 나중에 발달될 능력이나 성향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곤충의 매력에 빠지는 것에서부터 가장 뛰어난 과학적 탐구가 시작될 수 있다. 상상력이 풍부한 역할놀이는 정교한 문해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유아교육자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듯이, 하찮은 게임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유아들에게는 종종 자신과 세상의 이해를 위한 매우 집중적이고 진지한 작업이기도 하다.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는 유아교육에도 중요한 파급력을 갖는다. 개별 아동 중심의 교육학이 많은 교육환경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아이들 역시 인간 이상의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기존의 접근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유아들이 장소와 다른 생명 존재와 맺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이들이 미래 세계에서 잘 살아가도록 최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 우리는 유아교육의 교육학이 비판과 도전, 새로운 가능성의 창조를 지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집과 학교 간의 연결은 대체로 유아교육 수준에서 가장 강력하다. 가족은 아이들이 잘 자라고 신체적·사회정서적·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간의 학습이 환경과의 지속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남을 알고 있다. 최적의 학습 환경에서는 영유아에게 모국어(들)로 충분한 자극이 주어진다. 매일매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함께 책을 읽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은 교육의 기초적 구성 요소인 문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텔레비전, 태블릿,

여타의 전자기기 앞에 아이들을 놓아두는 것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사회적 상호 작용 경험 대신 좋지 못한 대체물을 주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육아휴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시설(daycare centres)과 도서관, 박물관, 지역(복지)센터, 공원 등이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는 필수적 공공서비스로 취급될 때, 부모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유아교육이 지원이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은 너무 많이 써서 진부한 말이 되었지만, 그렇게 된 이유 중 일부는 여기 담긴 핵심적 관점이 여전히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큰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유아교육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회가 유아교육을 초등교육과 같은 공적 책임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런 지역에서는 유아 보육 및 교육 시설(early childhood centres)이 충분하거나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의 보수는 대체로 보잘것없으며, 아이를 신체적으로 돌보는 일만 유일하게 중요한 일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불평등 몇 가지가 유아기 때 발생한다. 교육 수준이 높고 자원이 더 많은 가정은 자녀에게 수준 높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낮은 급여 때문에 교육자들의 자격 역시 잘 갖춰지지 않아서 수준이 떨어지는 공공 시설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해 적절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학습과 성장, 발달을 이루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뿌리 깊은 불평등과 편견은 어린 시절에 대체로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는 관찰을 통해 학습된다. 예를 들어 남성 유아 교육자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전체의 2% 미만에 머문다면, 소년들은 암묵적으로 어린 사람들과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려는 열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배우게 된다. 유아기에 모어와 선조들의 언어를 몰입해서 배우지 못할 때 아동은 가족과의 소중한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가로질러 이어온 조상의 유산으로 그들을 연결시켜 줄 소통과 지식의 문화적 방식까지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학교를 아이들을 동화시키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많은 사회에서는 억압적 교육기관들을 시정하고 폐쇄하기까지 매우 많은 판단이 필요했다. 미래의 유아교육 방안에서는 문화적 소외와 편견의 영속화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아 교육학은 개인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강화해야 하며,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문화적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

### 모든 어린이를 위한 협동교육(collaborative education)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초등교육 접근성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참여와 협력의 교육학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모든 학습 영역에서 질을 높이기 위해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불행하게도 너무 많은 학교와 사회에서 아이들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놀고 탐험하고 협력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유아기에 보이던 본능적 호기심과 탐구 성향이 점점 미약해진다. 예술과 과학 전반에 걸쳐 새로 습득한 이해와 기술을 개인적으로 실행해 보는 것의 가치가 부정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에서 고립적·개별적인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면 공동작업과 협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공교육기관 안팎에서 협동과 협력의 교육학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창조적 대응으로 지역 학교(community school)가 나타나서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을 가시화하고, 지역의 긴급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한편으로는 풍부한 문화가 흘러드는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때로 ‘비형식적’ 형태로 인정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학교와 파트너가 되어 지역사회 어른과 리더, 그리고 지식 보유자들과의 연결을 통해 협동교육 및 문화적 이해의 기회를 높이고 있다.

### 청소년과 청년의 잠재력 촉진

오늘날 전 세계의 청소년들은 매우 다양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이 겪는 위험은 서로 달라서, 교육받을 권리를 비롯해 폭력, 여성 할례, 조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기도 하고, 가족의 생계를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 또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과 정신 건강 문제 또는 정체성과 목적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교육은 건강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또래 관계를 증진하고, 현재와 미래의 행동에 목적의식을 갖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생애 단계에서 겪는 도전 과제들을 완화하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교육이 학업 부담과 사회적 소외를 심화시켜 오히려 청소년들의 도전과제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청소년기는 몇 년이나 몇 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한 신경적·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유아기와 비교해 볼 만하다. 청소년은 이 시기에 지적 능력에서 엄청난 도약을 겪는다. 하지만 그들이 이 시기에 미래 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성인으로서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렇다면 언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화적 기대나 철학마다 다르다.

교육은 청소년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도전하도록 하면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할 기회를 줄 수 있다.

흔히 생애의 이 시기에 젊은이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정련하고, 자기의 재능을 추구하며, 자신의 소명을 가장 잘 추구할 수 있는 직업을 파악하게 된다.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과 끝없는 준비와 의미 있는 경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 그리고 강한 목적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중요한 교육학적 목표다. 강한 정의감을 특징으로 하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위선을 예리하게 인식한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그저 원래부터 골칫거리이고, 반항적이며, 사회적 선에 위협한 인물이라 딱지를 붙이는 부정적 내러티브(deficit narratives)는 특히 해롭다. 이는 중요하고 때로는 까다로운 이 전환기를 위한 세대 간 협력과 지원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젊은이들의 놀라운 잠재력을 충분히 펼치게 하는 귀중한 중등교육 모델이 아직 드물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래를 새로 바람직하게 구상하는 일은 이미 진행 중이다. 점점 더 많은 청소년 주도의 운동과 단체들이 전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The Future, \*역자 주: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와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기후변화 대응행동을 촉구하는 세계청소년 연대모임)’, ‘선라이즈 운동(the Sunrise Movement, \*역자 주: 미국의 대학생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행동을 옹호하는 시민 단체)’,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수천 가지 사례들은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여행 연습이 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남아시아의 몇몇 국가에서는 도시 중심의 교육 모델을 확장하는 대신 소외된 농촌 청소년을 교육 시스템과 교육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청년과 청소년 선주민으로서의, 또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풍습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시켜 주고 있다. 이 사례를 포함한 많은 사례들은 청소년이 보다 다양하게 평등과 번영의 미래를 창조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의 역량을 실천적으로 표현해준다.

점점 더 많은 청소년 주도의  
운동과 단체들이 전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 고등교육 목표의 혁신

지식의 생산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과 더불어 교육은 대학의 주요 사명 중 하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그러한 대학교육은 경시되어 왔으며, 이는 고등교육이 조직되고 인가되고 재정지원을 받는 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일부 교육환경에서는 교수

들이 단지 그들의 개별적 성과로만 평가된다. 이는 교수행위, 멘토링,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증진 등에 대한 질, 관련성(relevance), 가치 등보다 생산성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이다.

많은 대학에서 교육학은 뒷전으로 물러났다. 미래의 대학들은 교수활동의 임무를 다른 기관이나 정밀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술장비를 갖춘 특별 센터에 더 많이 위임할 수도 있다. 한편 이와 달리 세대 간 교육이라는 사명이 중심에 있고 이것이 언제나 지식과 연구에 관련되는 혁신적 미래 대학의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직업기술교육기관은 때때로 이 두 극단의 다른 쪽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해당 기관들의 교수활동이 흔히 훈련과 기법에 한정되어, 깊은 사회적·윤리적·개념적 질문을 그들이 다루는 범주 바깥에 남겨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다루는 생산적 역량의 개발 및 적용은 우리 개인과 집단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하므로, 직업기술교육은 심오한 이해와 숙련된 기술과 성찰적 태도를 개발할 수 있는 풍성한 교육적 분야로 여겨져야 한다.

고등교육의 교육 사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과의 강한 연계와 더불어 전통적 강의와 그것이 적용되는 지식 전수 모델을 넘어서는 교육학적 전략의 결합이 필요하다. 학생 간 협력 작업, 연구 프로젝트 개발, 문제해결, 개별학습, 세미나 대화, 현장연구, 글쓰기, 실행연구, 커뮤니티 프로젝트, 그 밖의 다른 많은 교육학적 방식들이 고등교육에 스며들 필요가 있다. 교육학을 다시 배경에서 앞으로 옮겨놓기 위해서는 교수가 교수 업무에 좀 더 가치를 두도록, 이들이 교육학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존중, 공감, 평등, 연대와 같은 가치는 미래의 대학과 전문대학 및 기술교육기관들의 핵심 사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은 윤리를 증진해야 하며, 학생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더 잘 인식하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시민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은 사회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자민족 중심주의 및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무관용 등이 고등교육의 핵심 교육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진전시키는 고등교육은 강의실과 가상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고등교육은 학생들이 더 나은 버전의 자기 자신이 되도록, 좀 더 나은 강건한 가치체계를 발전시키도록,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을 변혁할 역량을 높이도록 돕기 위해 내용면에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 대화와 행동의 원칙

이 장에서 제안한 것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교육학이 협력과 연대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는 능력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50년을 바라보면서, 이 제안의 실행에 필요한 대화와 행동을 안내하는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이 교육학의 기본틀이 되어야 한다.** 교사, 학생, 지식 간의 관계는 보다 넓은 세계 안에 자리하고 있다. 모든 학습자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학습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이루어진다. 모든 학생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와 교실은 학생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 **서로 다른 수준과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협력과 협동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협력과 협동이 학습 공동체의 기본 성격으로 정의될 때, 학생 각자는 교육을 통해 자신과 세상의 변혁을 위해 협력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는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성인교육과 성인학습에도 해당된다.
- **연대, 연민, 윤리, 공감은 우리가 학습하는 방식 안에 뿌리내려야 한다.** 우리는 인류 전체 문화적 자원의 모든 다양성이 교육 안에 들어오도록 환영해야 하며,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나아가 이들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한다. 교수활동은 편향성, 편견, 구분에 대한 탈학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공감, 즉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느끼는 능력은 연대의 교육학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 **평가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학생의 성장과 학습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 시험, 검사 및 그 외 평가 도구들은 교육의 목적 및 의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학습의 중요한 많은 부분이 쉽게 측정되거나 계량화될 수 없다.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교사 주도의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경쟁을 유발하고 큰 부담을 주는 표준화된 평가의 중요성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 모두 2050년에는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을 일상화하고 누구나 공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 국가,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



## 제 4 장

# 교육과정과 진화하는 공유지식

진정한 어려움은 사람들이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가치를 토지나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학생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만 제공하려 합니다. 우리는 교육받은 사람의 성품이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자아이들은 돈을 벌 필요가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자아이들은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생각이 지속되는 한, 우리가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희망은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진정한 국가 교육』, 1907.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교육과정은 풍요로운 공유지식으로부터 발전해야 하며, 학생들이 지식에 접근하고 지식을 생산하는 한편, 그것을 비판하고 적용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생태적·상호문화적·학문 간 학습을 포괄해야 한다.**

교육과,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지식, 능력 및 가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롭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학생들의 능력과 지식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해, 그러한 학생들의 능력을 발달시켜주는 교육과정의 경로를 따라 거꾸로 지도를 그려야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과정을 학교 교과체계 이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 관한 질문은 교육에 항상 존재하는 두 가지 필수적 과정(processes)과 관련해 규정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인류 공동유산의 일부로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세계를 집단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추세와 이론들은 차고 넘친다. 학습의 디자인은 아동 중심적이거나 교과 중심적일 수도 있고, 학습자 중심적이거나 교사 중심적일 수도 있다. 지식은 학문적 지식이나 응용적 지식으로, 과학적 지식이나 인문학적 지식으로, 일반 지식이나 전문 지식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접근방식도 무언가를 제공해주지만, 지식과 세계 사이에 증대되는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점이 필요하다.

###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탈학습해야 하는가?

교육자는 지식 습득에 접근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탈학습해야 하는가?’ 이는 생태 위기에 비추어 그간 주류의 위치에 있었던 발전과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특히 필요한 질문이다.

이 장은 공유지식에 대한 짙막한 토론과 함께 시작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검토한다. 우리는 공유지식이 전 인류의 유산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하고, 다양한 앎과 이해의 방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서 지식에 대한 강조가 곧 콘텐츠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은 그것이 생성되고, 적용되고, 재검토되는 방식 속에서 항상 진화하고 있다. 이 장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 및 도전과제들과 관련된 심화된 지식을 만들고 적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역량을 기르는 데 우리의 집단적 노력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교육은 유연하게 지식을 아는 것과 방법을 아는 것 모두를 포괄한다. 내용 숙달이 응용, 기술 및 역량 개발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기초적 지식과 기술은 서로 맞물려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수십 년간 교육과정에 대한 논쟁이 내용 지식과 역량 사이를 오가며 진행되었다. 이제 시간이 무르익었으므로 강력한 지식 접근방식을 지원하는 새로

운 역동성을 가진 조합을 설정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동시대의 문제들에 대한 긴밀한 대화와 교육과정 내용을 학생들과 관련성이 있게 만드는 등의 프로젝트 기반 및 문제 기반 접근방식으로부터 얻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으로 이 장에서는 공유지식과 교육과정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문해력, 수리력, 과학적 탐구, 예술 및 시민의식과 같은 역량을 둘러싼 지식들에 고유한 상호연결성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교사 및 교육자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개발자에게도 동등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유지식에 대한 접근성 향상, 기후변화 교육, 과학적 탐구, 인권을 우선시하는 2050 대화와 행동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할 것이다.

## 공유지식에 대한 참여

교육과정은 지식을 모든 인류에 속하는 위대한 인간의 성취로 여기고 접근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교육과정에서는 공유지식에 중대한 배제와 전유(appropriations)가 있으며, 이는 정의실현에 비추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지식은 결코 완성된 적이 없으므로, 교육자는 학생들을 초대하여 더욱 심화된 공동 지식창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너무도 많은 형태의 교육에서, 지식전수는 장벽을 세우고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었고, 인류 모두와,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웰빙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 관련이 약했다. 지식에 대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교육은 인식론적, 인지적, 회복적 정의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식 헤게모니에 저항하고 창의성과 탈경계성과 실험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진해야 하며, 이는 인류의 다양한 인식론적 관점을 완전히 포괄할 때만 실현할 수 있다. 뿌리 깊은 편견, 독단적 위계질서, 착취적 개념을 거부해야 한다. 교육은 각 세대가 그들 자신의 세계를 재발명하는 데 기여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공유지식 구축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지식과 상호작용하고 지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듬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해력, 수리력, 과학적 탐구 능력은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여기에 기여하는 데 핵심적인 능력이므로 어디에서나 더욱 확장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개방적이고 공통적인 교육과정 디자인의 한 부분은 학문과 교과목의 경계를 고정되거나 필수적인 제한요소로 삼으려는 압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교육의 에너지는 세상의 복잡성과 지식 체계의 역사적 성질에 관해 생각하는 데 쓰여야 한다. 이러한 다중성과 횡단성

(transversality)의 관점을 교육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새롭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견고한 지식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모든 필수적 활동영역에서 기억할 것은 교육과정은 결코 ‘완성된 지식’으로 조직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다른 세대를 연결하는 지식,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지식, 그리고 검증하고 업데이트될 여지가 있는 지식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점이다. 이를 인식할 때 우리는 모든 교과목을 역사적 틀 안에서 세대 간 대화의 일부로 여기고 가르치게 되며, 학생들은 이를 맥락화하고 자신의 학습에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 있다.

### 교육의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 우선과제

우리는 교육에 대한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더 큰 목적을 위한 진지한 참여로 이동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접근방식은 인지적 영역을 문제해결력과 혁신, 창조성과 연결시켜 주어야 하며, 사회정서학습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학습 및 감정 학습도 포괄해야 한다. 여기에 제시되는 교육과정의 참여적 형태들은 통합하고 해방시키는 목적을 갖는다. 다음에 제시하는 교육과정 우선과제들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기 위해 필요한 포용, 성평등, 불의의 해체, 불평등에 대한 광범위한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손상된 지구를 위한 교육과정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지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교육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대응해야 하며,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완회시키고 되돌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거처를 지구의 일부로 여기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서서히 불어넣도록 교육과정을 다시 생각하고 상상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시급성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구의 범위 안에서 생활해야 하며, 미래 세대와 우리를 포함한 자연생태계를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교과 영역이 인간 활동으로 손상된 지구를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우리는 더는 인간중심주의를 퍼뜨리거나 이 세계를 그저 우리가 배워야 할 ‘저기 바깥’의 외부 대상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 대신에 서로 연결돼 있고 집단적으로 나눠 말할 수 있는 행위와 행동에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이는 곧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배우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교육과정 안에서 살아있는 세계에 대해 우리가 논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우리와 세계와의 균형적 관계를 되찾는 중요한 전략의 하나다. 학생을 단지 자연의 수호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충분치 않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여전히 인간과 환경의 분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교육을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 효과적이고 관련성이 있는 기후변화 교육은 젠더 대응적(gender responsive)이며, 시간과 지리적 공간 전반에 걸쳐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교차 연결하는 접근방식을 택하고, 비판적 사고와 적극적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교육이다. 그것은 또한 현재의 세계적 생산 및 소비가 지속불가능한 수준이며,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변화 더 큰 책임이 있으나 그 피해는 대부분 빈곤 국가들이 입고 있음을 인정하는 교육이다. 또한 식민 지배와 산업화가 수많은 선주민 공동체들이 인간 및 인간 너머의 세계와 이루던 조화로운 관계를 훼손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교육이다. 기후변화 교육은 학생들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안들을 고려하고, 연대를 통해 자신의 지역사회와 이를 넘어서는 행동에 나설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으며 손상을 입은 지구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재교육해야 하며, 대규모 생물다양성 손실과 전체 생태계의 파괴,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를 초래한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 탈학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 세계와의 깊은 연결성을 발전시킴으로써, 또한 생물권을 교육적 공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태복원(rewilding)’ 교육과정을 추구할 수 있다. 여러 청소년 및 지역사회 주도 운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지식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세대 간 대화를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다시 그려볼 수 있다.

여성주의 관점(feminist perspective)과 선주민의 목소리는 이 중요한 순간을 헤쳐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토착 지식 체계는 학생에게 자신이 자연 공동체의 일부임을 자각하게 해 주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었던 가치, 실천 방식, 영적 의식으로부터의 자각도 이끌어낼 수 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교육을 통해 필요한 것보다 더도 덜도 갖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여성주의 관점은 착취와 남용이라는 인간과 자연 간 관계에 깔려 있는 적대적인 전제들을 비판한다. 지속적인 소비 확장과 지구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만들어진 경제 모델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적 성과에는 임계치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며, 사회적 웰빙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이에 바람직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으며 손상을 입은 지구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재교육해야 한다.

상호 존재와 웰빙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도 덜도 갖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어 사는 능력은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사회정의는 생태정의와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살아 있는 지구를 돌보는 법을 배울 수 없다. 돌봄은 애정이나 태도와 관련될 뿐 아니라 중요한 인지적 요소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은 지구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이 만들어지는 방식, 지구와 우주에 대해 문서로 기록되고 시각화되고 이해되는 방식, 그리고 지식의 실천이 이 손상된 지구에서의 삶의 행위들과 맞물리게 되는 방식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포함해야 한다. 정보화 도구의 강점과 한계, 그리고 개인적·집단적 프로젝트의 강점과 한계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련성 있는 교육과정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지구상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집단적 인식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돌봄의 윤리(ethic of care)는 우리 각자를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진 상호 연결된 존재로서 이해하게 해 준다. 돌봄의 윤리는 우리 각자가 타인과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공공생활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돌봄 제공의 젠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통해 성별 표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돌봄의 윤리를 길러주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를 기르고, 환자와 노인을 간병하고, 가정을 돌보고,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요구에 대응하는 등의 재생산을 위한 지식은 사회 유지에 매우 필수적이다. 또한 이는 인류의 공유지식이며, 우리가 손상되고 취약한 지구를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 마음을 쓰고 (caring about), 소중히 여기고 (caring for), 돌봐주고 (caring-giving), 돌봄받는 (caring-receiving) 것은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우리가 상호 의존하는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의 통합

교육과정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학생을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갈증을 갖고 교육 환경에 들어오는 완전한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 또한 학생은 감정, 두려움, 불안, 자신감, 열정을 갖고 있다. 사람을 전인으로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학생이 세상과 사회·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지원하며, 타인과 협력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능력을 더 잘 갖추도록 해 준다.

신경과학은 배우는 것과 느끼는 것이 동일한 인지과정의 일부로서 고립된 개인의 내면에서가 아니라 타인과의 직접적이고 확대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교육 연구가 있었고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이 주류 교육 방안으로 자리잡았다. 교육과정에서 사회정서학습에 접근하는 최고의 방식은 학생의 정체성 중 사회적·정서적·인지

적·윤리적 영역을 교육과정에 포괄하는 것이다. 그런 교육 과정은 개인의 발달적 진행 흐름이 더 넓은 사회의 결속력에 의미를 갖도록 연결한다. 공감하고 협력하고 편견과 편협성을 지적하고 갈등 해결을 탐색하는 학습은 모든 사회에서 가치가 있으며, 오래된 분열과 씨름하는 사회에서 특히 그렇다.

공감하고 협력하고 편견과  
편협성을 다루고 갈등  
해결을 탐색하는 학습은  
모든 사회에서 가치가 있다.

사회정서학습의 실천은 사회마다 이질적이므로 적절한 맥락화가 필요하다. 이런 유형의 학습에는 의식적으로 디자인된 학습경험, 교사와의 유대감, 긍정적 또래 경험, 세대 간 이해,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등이 필요하다. 자기성찰과 연민, 비판적 탐구는 모두 사회정서학습을 강력하게 지원한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부분은 사회정서학습에는 교사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교사가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50년을 앞두고 우리는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사회정서학습은 미래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창의성, 도덕성, 판단력, 행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학습자를 완전한 인간으로 대한다는 것은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이들의 신체적인 요구와 능력을 파악한다는 뜻이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능력과 젠더, 배경을 포용하는 기초적인 동작 기술을 발달시키는 양질의 체육교육이 필요하다. 양질의 체육교육은 확신, 자신감, 조율능력과 통제력, 팀워크, 물리적 환경의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며,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체육교육을 단지 신체적 능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만 배타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또한 경쟁과 비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폭넓은 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체육교육은 모든 학습자가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는 가치를 전제해야 한다. 공동활동을 통해 공감과 존중의 인간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학생들은 전 생애에 걸쳐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의 연령에 맞고 문화적으로 잘 조율된 포괄적 성교육 접근법은 사회적·정서적 문해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존중과 합의에 기반한 토론을 촉진하며, 신체가 성숙하는 동안 진행되는 신체적·정서적 과정을 이해하게 하고, 상호존중의 인간관계와 평등을 촉진할 수 있다. 세계 곳곳의 소녀들이 신체적·성적 피해로 인한 소외감을 계속 느껴야 하는 미래, 그리고 사춘기 소녀들이 수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겪으며 중등교육을 계속 받지 못하는 현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모자 건강과 사망률, 웰빙 또한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다 폭넓은 형태의 건강 및 웰빙이란 가치와 아울러 평등과 존중 및 자존감의 가치에

바탕을 둔 교육은 모든 사회에서 정의롭고 공평한 인간관계를 위한 역량 구축을 실현할 수 있다.

### 문해의 확장과 복수언어적(plurilingual) 미래 만들기

우리의 언어 능력과 우리가 언어와 맺는 관계는 인간의 정체성과 지식, 그리고 존재를 위한 핵심 요소다. 언어 덕분에 우리는 타인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이 배운 것 위에 배움을 덧씌우면서 새로운 수준의 이해에 도달해 왔다. 언어는 공유지식 그 자체의 존재의 근원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교육을 통해 각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읽고 쓰는 능력이 나아졌다. 하지만 미래의 문해력은 참여와 포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읽기와 쓰기 영역을 넘어 말과 문자,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예술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이해와 표현 능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쓰기와 말하기만이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새로운 세대에 전달하는 유일한 방식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미지와 신체적 지식 역시 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물론 말과 글로 된 지식은 인류 역사에서 부정할 수 없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인간 지식의 기술로서 쓰기는 문서들이 세상에 배포되고 읽힘으로써 인간 경험의 축적 가능성을 확장하고 서로 다른 여러 문화 속에서 그 경험들이 활자화되도록 했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러한 지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문해력은 미래의 학습 및 사회참여의 가능성과 직결된다. 하지만 문해력은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니며,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은 평생에 걸쳐 꾸준히 강화될 수 있다. 미래의 문해교육은 깊고 넓고 비판적으로 읽고,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쓰거나 말하고, 배려와 공감 및 분별력을 갖고 경청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읽고 모든 학문 분야의 어려운 책들을 찾아보는 능력과 성향을 기르게 되면, 더욱 평등하게 공유지식과 상호작용하게 됨으로써 훨씬 폭넓은 가능성을 지닌 미래의 문이 열릴 것이다. 문해교육은 교실과 학교를 넘어 사회 전반이 책임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인도에서는 몇몇 미디어 네트워크들이 동일언어 자막(same-language-subtitling, \*역자 주: 상영되는 영상의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표시되는 자막)을 표준 관행으로 삼으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는 특히 학교에서 기초적인 읽기 및 쓰기만 배워 심화 연습과 자신감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의 읽기 능력을 폭넓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어, 선주민 언어, 수어, 기타 언어 등을 가르침으로써 단일언어주의(monolingualism)에서 복수언어주의(plurilingualism)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환은 지속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동, 청년 및 성인 학습



자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쓰는 언어나 조상들이 쓰던 언어로 최고 수준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직관적으로 가르침과 배움의 효율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의 기본 지향성을 만드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많은 교육 현장이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지하고 이들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중언어 및 복수언어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 선주민 언어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학생들이 공용어와 주류 언어를 습득하게 해 줄 기반도 조성해야 한다.

복수언어주의 교육은 글로벌한 대화와 활동,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 상호 의존이 점점 심화되는 세상에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집단이 얻는 이점은 의사소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복수언어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른 기호체계 사이에서 적극적 번역자가 되게 하고, 기존에 확립된 의미 패턴에 대한 자율성과 비판성을 더욱 발전시키게 해 준다.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 이상이며, 언어에는 세계관과 독특한 이해 방식들이 담겨 있다. 언어의 다양성은 인류가 공유한 공유지식의 핵심적 특징이며, 교육은 이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언어의 다양성은 인류가  
공유한 공유지식의 핵심적  
특징이다.

### 수리력 강화

사람들이 자신의 수학적 지식과 기술을 광범위한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수리력은 미래 교육의 필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수리력은 패턴을 관찰하고, 집합을 만들고 분류하고, 수를 세고 측정하고, 수량을 비교하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인간 능력이 맺은 결실이다. 십진법과 이진법 같은 수 체계는 현대의 의사소통, 거래, 컴퓨팅, 계산의 기반을 이룬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기본연산을 숙달하는 것에 더해 다양한 맥락과 문제에서 수리력의 적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는 무수히 많은데, 자신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계획수립, 건강상의 위험과 질병 발생, 농업 수확량과 투입요소 산출, 오염과 환경 질 관리의 임계점 확인, 지방 기업과 공동체 은행 활용 등등이 있다. 실제 맥락 속에서 이해될 때 수리력은 인간 능력의 제한을 풀어주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성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관점에서 흐름을 읽어내게 해 준다.

수리력은 모든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며, 각각의 문화에 잘 맞는 수리력 교육과정은 형식 교육에 의미 있는 사회정서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북극권 선주민의 전통적 땅기절차(braiding procedure)는 학생들이 이산 정수 패턴(discrete

integer patterns)의 이해에서 곱셈 및 대수 변수와 같은 보다 복잡한 연산으로 나아갈 때 이용되어 왔다. 이와 유사하게 캐나다 교육청은 선주민 예술가와 교육자들을 끌어들이 구슬 장식, 바구니 만들기, 모카신 만들기과 같은 예술 형식과 연계해 대수, 비례, 공간 추론을 포함하는 수학적 개념을 가르쳤다. 수학적 지식을 학생들의 문화적 지식과 연결하는 것은 교육이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차원을 포함함으로써 가정과 학교환경 사이의 단절 극복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이는 수학이 ‘서구의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에 도전하며, 이누이트수학, 마오리수학 등의 민속수학(ethnomathematical) 체계가 오래도록 폭넓게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준다.

### 인문학의 활용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방식을 배우려면 인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공부야 필수적이다. 인문학적 전통은 비록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집단적으로 세계를 건설해 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세계적 공유지식 형성에 대단히 귀중한 기여를 해 왔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고 편향돼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규정하면서 우리 각자와, 살아 있는 지구와, 그리고 기술과의 관계를 다시 균형잡을 필요가 있다. 인문학은 조정이 필요하고, 체계적 학문 분야로서 인문학은 우리 또한 조정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예를 들어 역사는 효과적으로 가르친다면 차별과 특권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변화와 사회 시스템에 대해 매우 가치 있는 관점을 발전시키게 해 준다. 상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역사적 우발성의 이해는 미래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이 발휘되려면 역사는 연대기에 대한 천착을 훨씬 넘어서야 하며, 무엇이 증거를 구성하고 애초에 어떻게 우리가 인간과 비인간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교육을 인문학과 연결하고 재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또한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철학, 역사, 문학, 예술은 우리를 목적의식과 비판적 탐구의 이해, 공감, 상상력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인문학적 접근은 학생들의 ‘미래 문해력(futures literacy)’ 강화에도 필수다. 미래 문해력은 학생들이 보고 행하는 것 속에서 미래의 역할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미래 문해자’가 되는 것은 미래를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일어나는 변화에 대비해 더 잘 준비하고, 복원하고, 발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 안에서와 그 너머에서 인문학을 위한 공적 공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동의 인류, 우리 공동의 지구, 그리고 정의를 향한 집단적 열망이란 관점에서 모두 함께 인문학을 교육에 다시 연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 과학적 탐구와 이해

물리적 우주를 이해하려는 욕망에는 탐구하고 배우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반영되어 있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예측하고, 실험하고, 이론화하고, 이해에 대해 도전하고 정련하는 등의 과학적 탐구의 본질은 인간 정신의 발현이다. 현대과학의 뿌리는 모든 문화와 사회에서 기록된 역사의 최초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과학적 탐구의 결실은 의학에서부터 기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육체적·물질적 삶의 모든 부분에서 향유되고 있다. 강력한 인본주의적 가치를 담고 전인을 포용하는 폭넓은 교육과정은 과학적 문해력과 조사를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

인간의 역사에서 과학은 근본적 이로움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식 실천이었다. 이는 곧 진리가 집단적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절차와 합의의 결과라는 뜻이다. 그런데 과학은 특별한 분야, 예컨대 때로는 과학적 발견이나 실험의 효과에 대해서 윤리적 질문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듯한 분야로 발전했다. 이에 논란이 빚어졌고, 지난 몇 세기 동안 과학이 누렸던 신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질문이 제기됐다. 교육과정은 방법과 발견, 그리고 과학 윤리를 서로 연결된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

극단적 상대주의가 확산되고 다양한 미디어에 거짓정보가 널리 퍼지면서 이제 다시 강력하고 대단히 성찰적인 과학적 문해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적 문해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던 허위정보의 확산과 함께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됐다. 과학적 지식을 부정하고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실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의심과 불신, 두려움,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교육과정은 과학적 진실을 옹호하는 책임의식과, 복잡하고 미묘한 진실을 분별력 있고 진지하게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복잡하고 미묘한 진실을 분별력 있고 진지하게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글로벌 공유지식은 모든 사람이 인간의 웰빙에 기여하는 정확한 지식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은 메시지와 개념들이 사고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에서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규모 광업 및 석유 산업이 있는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서 정부는 공식적 과학 교육과정에서 자원 채취의 환경적 영향을 가볍게 다루라는 상당한 압력을 받는다. 모든 가능한 교육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러한 허위정보와 싸워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과학적 문해력 증진을 위해 좀 더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권리를 박탈당하고 소외된 인구 집단에서 더욱 그래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에는 전례 없는 양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과학적 문해력, 방법론, 엄격성, 경험주의, 그리고 윤리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 디지털 세상을 위한 기술

연결하는 기술(connected technologies)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삶과 학습 및 직업 영역에서 참여를 뒷받침한다. 교육 시스템들은 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 지원을 넘어 학습자가 기술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역량은 타고나거나 본능적인 것이 아니다. 이 능력은 다양한 형태의 무형식학습 및 자기주도학습과 아울러 의도적인 교육적 개입을 통해 시간을 들여 구축되고 다듬어지는 것이다.

디지털 교육은 대체로 기능적 기술과 기술적 노하우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여기에는 ‘비판적 디지털 문해(critical digital literacy)’, 즉 디지털 사회의 정치학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일련의 이해와 입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에서 학생은 디지털 기술의 정치적 특성을 파악하고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조작 능력을 전면적으로 배우게 된다. 학습자는 디지털 공간에서 행위자들의 동기를 인식하고, 자신이 개인이자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더 큰 디지털 생태계의 한 부분을 이루는 방식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서로 연결된 기술들은 이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까지 대체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술에 영향을 미치도록 지원하고, 기술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이용될지를 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기술에 대한 교육은 불가피하게 기술 그 자체에도 달려있다. 기술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의도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비판적 전망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더불어 속도에 변화는 있을지언정 끊임없이 유입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교육이 일방통행식으로 최신기술 발전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에 덧붙여 교육은 기술혁신과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술에 영향을 미치도록 지원하고, 기술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이용될지를 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 예술교육을 통한 상상력, 판단력, 가능성 함양

음악, 드라마, 춤, 디자인, 시각예술, 문학, 시 등의 예술교육은 학생들의 복잡한 기술 습득 능력을 대단히 확장시킬 수 있으며, 교육과정 전체에 걸쳐 사회정서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예술교육은 공감을 통해서든 비언어적 단서를 읽어서든 타인의 경험에 접근하는 인간의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은 때때로 모호한 진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며,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고양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공한다. 여러 형식의 예술적 표현들은 미묘한 것을 담아내고 삶의 애매모호함을 붙잡으려 애쓰는데, 여기서 학생들은 작은 차이가 큰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예술적 경험을 위해서는 종종 알지 못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 점에서 학생들은 상황과 기회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예술은 말해지고, 보여지고, 느껴질 필요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보여주고, 느끼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를 통해 예술 안에서, 또 그 너머에서 알고 존재하고 소통하는 지평을 넓혀 가도록 돕는다.

예술을 통해 창조적 표현을 장려하는 교육과정은 어마어마한 미래를 형성하는 잠재력이 있다. 예술활동은 세계를 이해하고, 문화비평에 참여하며, 정치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와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문화적 유산과 강력한 상징, 레퍼토리, 그리고 우리의 집단 정체성의 참조 체계들에 대한 비판적 감상과 참여 능력을 갖게 해준다.

### 인권, 시민의식, 민주적 참여를 위한 교육

인권교육은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때 변혁적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정받고 번영을 약속하는 도덕적 세상으로 들어가는 진입지점과 공동의 언어를 마련한다. 인권교육은 학습자 주체성을 지원한다. 불평등을 분석하고 비판의식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참여를 지원하는 한 방식이며, 이 점에서 인권교육은 시민교육을 강력히 지원한다.

또한 인권교육은 국가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 효과를 높이며,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사회·정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기본권과 모든 사람의 존엄과 자유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교육 자체가 평등의 약속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인권교육과 시민교육은 평화교육과 깊이 연결된다. 많은 상황에서 폭력이 사람들 간 관계의 주요 방식이 되고 있다. 여성과 아동을 포함하는 모든 인구집단이 차별과 언어적·신체적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삶을 영위하고 번영할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약당하는 것을 목격한다.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 및 복지기관들과 더불어 인권교육은 평화로운 사회, 즉 서로 다른 의견을 협상과 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사회 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사람들이 공동의 틀 안에서 그들의 협력 작업을 성찰하고 분석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시민적·사회적·정치적 행동을 지속할 역량을 길러준다. 교육과정이 연합관계를 구축하고 더 확대된 역사와 행동주의 및 연대의 흐름과의 연결에 중점을 두면, 사람들의 관계적·집단적 행위능력은 강력한 지원을 받는다. 교육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사고와 대화와 논의의 강화를 지향할 때, 전략적이고 변혁적인 행동도 지원한다. 인권

교육은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과 딜레마를 촉진해야 하며, 지구상의 다른 형태의 생명체를 보존하는 것에 관한 윤리적 문제들을 탐구해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정치적 사고와 이를 옹호하는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불의와 인권침해를 모니터링 하고, 나아가 성별, 인종, 선주민, 언어, 종교, 연령, 장애, 성적 지향성 또는 시민권 지위 등의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권력구조와 관계들에 대해 질문하고, 폭로하고, 맞설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시스템과 사회운동 간의 대화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교육과정은 또한 젠더 불평등 문제의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자가 사회적 권리와 권력의 대부분을 갖는 이데올로기 체제인 가부장제가 널리 퍼져있고, 이것이 사회와 학교에서 아동과 청년들에게 메시지와 사고방식으로 전달되고 계속 주입되고 있다. 억압적인 성역할과 성에 근거한 차별은 사회 내 모든 사람에게 해롭다. 중요한 평등의 원칙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어야 한다. 소년들이 가능한 한 일찍 성평등을 배우고 이를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여동생, 누나 또는 여자 친구들보다 자신에게 미묘한 이로움을 주는 가정과 사회의 불평등 시스템을 영속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딸과 자매들이 가사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잔심부름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기대는 여자 아이들의 학교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보다 낮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성평등 원칙은 아이들이 사회화되고 학습하는 환경 전체에 걸쳐, 즉 집이나 교실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일관되어야 한다. 평등의 증진은 집단적인 노력이며 모든 이의 지원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과정은 인종차별을 다루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목적은 선주민이나 아프리카계 주민공동체 및 소수민족처럼,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적인 표현과 내러티브 등에 도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 고등교육의 역할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는 교육이 공유지식을 활용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공유지식의 확대 및 발전과 포용성 확장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공유지식 강화에 대한 중추적 역할이 고등교육보다 더 분명히 드러나는 단계는 없다. 고등교육은 그 오랜 역사 중에서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 대학은 세상의 많은 지식과 연구 생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와 오픈

엑세스(open access)는 미래 세대 연구자와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 더불어 연구, 혁신, 탐구의 진보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원군을 고등교육 기관에서 찾고 있다.

### 개방된 공유지식을 위한 대학 연구

지식‘들’은 모두가 공유하는 웰빙을 위해 개발되고 이용되는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재 여러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지식의 균일화와 불평등한 분배 양상에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대학 연구는 현재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규범 안에서 틀에 박힌 지식을 만들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 시작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 언어의 사용을 더 확대하는 것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학은 공유지식을 확대하고, 그 안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대학 간 협력 및 국제화 노력은 우리가 공유하는 전 세계의 웰빙을 증진하겠다는 위대한 약속을 담은 개방성의 사례들이다. 모든 예측에 의하면 다가오는 수십 년 동안 고등교육 등록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많은 대학은 학습을 위한 공적 공간을 창조하고, 책임감과 공신력 있는 거버넌스를 발휘하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원하는 고귀한 전통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특히 최근 수십 년간 대학은 비용장벽과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많은 폐쇄성을 만들어 온 곳이기도 하다. 이와 상반되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곳으로 남아 있다. 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은 학술 장학금, 학습자료, 소프트웨어, 디지털 연결성 및 그 외 분야에서 지식과 과학에 대한 무료의 개방된 접근을 열렬히 지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오픈(open)’이란 용어가 단지 이용가능성과 접근의 용이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보와 지식을 수정하고 조작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등교육은 지식과 과학에  
대한 무료의 개방된 접근을  
열렬히 지지해야 한다.

### 고등 직업기술교육과 공유지식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s), 폴리텍대학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직업기술교육기관은 훈련기관만이 아니라 응용연구의 장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 기관들은 우리 개인과 집단의 삶에 필요한 생산능력의 중요성과 학습사회의 효과적 기능, 의미 있는 직업을 향한 무수한 경로, 그리고 다양한 부문과 공동체 간의 통합·파트너십·협력의 잠재력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많은 직업교육기관들은 지역사회에 긴밀히 연결돼 있고 지역적 특색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학습 문화 증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공유 지식과 독특한 연계를 가지며, 이와 관련해 직업기술교육기관은 독특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방법의 적용에 관한 통찰력을 발전시킴으로써 그에 기여할 수 있다.

### 지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고등교육과 상호문화적이고 인식론적인 다양성 간의 관계는 대체로 모호했다. 한편으로 고등교육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계관과 아이디어를 소개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품어 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등교육은 지식생산을 특정한 형태로 조직하고, 검증하고, 합법화하는 독자적 방식들을 개발했다.

자연과학의 방법론들과 ‘엄격성’, ‘신뢰도’, ‘타당도’와 같은 사회과학 연구 개념들은 문화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학술출판의 사회적 과정과 수준 보장 및 경제성은 일반적으로 상호문화적이거나 인식론적인 다양성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토착지식과 그 지식이 생성되고 공유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연구 형식이라기보다는 연구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앞의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의 복수성(plurality)이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풍부한 문화와 경험들을 활용하는 지식 생태계에 더욱 가치를 두어야 한다. 세계의 모든 곳에서 고등교육기관과 사회의 파트너십은 진정으로 상호적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앎과 행동 방식을 강점이자 지속가능성의 원천으로 인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일부 불균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 지형 안에 있는 기관들의 다양성에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도 다양성을 지지할 수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계속 높아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다양한 기관이 필요해질 것이다. 또한 공유지식의 개방성을 위해서도 가능한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고등교육 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 대화와 행동의 원칙

이 장에서 제안한 것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교육과정은 생태적·상호문화적·학문 간 학습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생의 지식 접근과 지식 생산을 지원하고, 아울러 지식을 비판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2050년을 바라보며 이 제안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대화와 행동을 안내하는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은 공유지식에 대해 학습자들이 접근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해야 한다.** 세대를 거쳐 축적된 인류의 집단적 지식 자원이 교육과정의 뼈대를 형성해야 한다. 공유지식은 폭넓게 접근하여 활용하고 여기에 덧붙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연령대의) 학생이 지식 창조에 참여하고 지식의 가정과 관심사에 비판적으로 질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공유지식으로부터 제외되고 배제된 것을 바로잡도록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어야 하며, 공유지식이 이 세상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존재 방식을 반영하는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자원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생태 위기는 세계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교육과정을 필요로 한다.** 효과적이고 관련성 있는 기후변화 교육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전반에서 우리는 인간 활동으로 손상된 지구를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 **과학적·인문학적·디지털 문해력으로 허위정보의 확산에 맞서야 한다.**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적 탐구, 그리고 엄격한 연구와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학습자가 기술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역량을 높여 줄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과정은 또한 학생이 과학기술의 사용 방식과 목적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 **인권과 민주적 참여는 사람과 세계를 변혁하는 학습의 핵심적인 조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권교육에 우선 순위를 두어 학습자의 행위능력을 지원하고 모든 사람의 인정과 번영을 약속하는 도덕적 세계로의 진입지점을 제공해야 한다. 성평등은 교육과정 전반에서 다뤄야 하고 억압적인 젠더 고정관념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학생은 인종 차별과 모든 형태의 차별에 직접 맞서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이 네 가지 원칙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영감을 줄 것이다.

## 제 5 장

# 교사의 변혁적 역할

교사라고 해서 반드시 고결한 진리에 접근할 특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투웨이밍(Tu Weiming, 杜維明), 『인간성과 자기 계발』, 1996.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교사들은 중심에 있어야 하며, 교사라는 직업은 교육과 사회의 변혁을 일으킬 새로운 지식에 불을 지피는 집단적 노력으로 재평가되고 다시 상상되어야 한다.**

교사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일에서 각별한 역할을 한다. 가르치는 일은 공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일하는 복잡하고 까다롭고 도전적인 직업이다. 교사는 미래를 상속받고 함께 만들어 갈 젊은 세대와의 대화 속에 공유지식을 동원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일한다. 가르치는 일은 집단 활동을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학생 각각의 고유한 요구와 능력에 관여하는 일이다. 이러한 긴장과 역설로 인해 교사 업무는 대체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가르치는 일에는 공감, 역량, 지식, 윤리적 결의가 필요하다. 현명하고 학식 있는 인물들은 전 세계의 문화에서 볼 수 있으며, 이런 전통 속에서 ‘교사’는 학교라는 맥락 안에서 전문화된 행위자로 자리잡고 있다. 교사는 변혁의 가능성을 짊어지고 있는 핵심 주체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적 만남을 통해 참여하고, 협력하고, 학습하는 학생들의 행위능력을 파악한다. 이 복잡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유로운 수단과 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풍요롭고 협력적인 교사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교사의 자율성과 개발 및 협력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적 연대의 중요한 표시가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미래 교사의 역할을 다양한 학습자를 위해 다면적 교육 활동을 보강할 수 있는 전문가들 및 팀활동을 통해 작동하고, 진화하고, 번영하는 ‘협력적 직업(collaborative profession)’으로 재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교사를 성찰적 실천가이자 지식 생산자로 인정할 때,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 안팎에서 교육환경과 정책, 연구, 실천의 변혁에 필요한 지식체(bodies of knowledge)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 장에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교사 임용에서부터 초보 교사를 거쳐 인정받는 실천가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전 생애에 걸친 개발 과정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이란 개인적인 여정이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며,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 걸쳐 풍요롭게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이다.

또한 이 장은 교사를 중심으로 연대에 동참하고,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교사들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학교와 지역사회, 가족, 행정가, 고등교육기관 및 정치단체들에 요청할 것이다. 이어서 특히 교사, 학교 지도자 및 정부의 관심과 관련한 2050 대화와 행동을 위한 기본 원칙을 결론으로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는 교사 협력에 대한 지원, 지식 생성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 공론의 장에 대한 교사 참여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다.

## 협력적 직업으로서 교사 역할의 재정립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교사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한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생각은 문화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교사는 공무원이자 공적 지식인일 수도 있고, 전문가이자 예술가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 지도자이자 혁신가일 수도 있고, 도덕적 권위의 수호자이자 미래 신뢰의 관리자일 수도 있다. 영적 지도자와 과학자에서부터 고대 철학자와 수학자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사로 불려 왔다. 이들 모두는 인류가 물려받은 지식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주변 사람들을 교육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사들은 19세기와 20세기에 교육을 위한 사회계약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사들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대중적 의무교육을 확립하는 데 중심이 되었다. 초기에 교사들은 최초의 공립학교의 교육자이자 주도자로서 기반을 닦았다. 초기 '정규학교'가 지향한 것들, 즉 표준화된 학교 구조, 교육과정, 교육학, 그리고 일과 등으로부터 당시 교사들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표준화와 모델링으로 다른 학교들이 참조할 수 있는 규범과 양식이 확립되었다. 지난 세기 동안의 이러한 활동은 미국에서부터 중국까지, 브라질에서부터 인도까지, 전 세계에서 진행된 교사훈련기관 강화 과정에서 가시화되었다.

학교 교육의 성장에 따라 개별 교사는 그들의 업무와 역할, 실력의 측면에서 중심적인 행위주체가 되었다. 이와 아울러 교육수요가 증가하면서 '한 개의 교실'에서 가르치던 학교 모델은 연령 집단별로 각기 다른 교실이 배정되는 학교를 만들 정도로 확장됐다. 하지만 학교 모델이 '달걀 바구니' 형태로 확장됐지만 교사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지 않았다. 교사는 여전히 개인적 책임 하에 자신의 수업계획과 자료를 만들었고,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다. 이 모델은 교사에게 점점 더 지속불가능한 압박감을 주었다.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교사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는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를 위해 교육을 위한 사회계약을 재구성하는 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마땅히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해내야 할 교사의 능력은 협동과 협력이 자신의 업무와 얼마나 긴밀히 엮여 있는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교사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포용적 교육 환경 속의 교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는 각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동료 교사 및 학교 내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교육이 교사 한 사람이 혼자 수행하는 일이라는 개념은 개인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구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교사가 이 직업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 그와 동시에 학생들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 요구는 그들의 학습능력에 통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필수적 지원과 함께 교사들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른 필수적 지원이란 건강과 영양, 사회 서비스, 정신 건강, 특수학습 요구에 대한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특히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학부모의 효과적인 참여도 포함된다.

교사들이 팀으로 일하게 해 주는 바람직한 방안들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문해교육 전문가, 특수교육 교사가 공동 계획팀을 만들어 어학(language arts)에 대한 학생들의 광범위한 요구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각 교사의 통찰력과 아이디어, 관찰 내용을 공유한다. 이러한 공동교수 파트너십을 통해 교사들은 개별 학생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하며 동시에 학급 전체의 발전 방향도 유지한다. 또 다른 예로는 공공서비스 및 비영리단체들이 우선과제 영역에서 학교와 협력해 학생과 가족을 학교 밖과 연결하고 이들의 학습과 건강, 웰빙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있다. 멘토, 상담가, 전문가, 공동 교수활동 등을 통해 모든 범위에서 각 학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접근 방식은 무수히 많다.

이러한 협력 가능성에 비추어 본다면, 다양한 교육현장 및 주체들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적 지형을 건설하는 데 있어 교사가 갖는 주도적인 역할은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수행되어 온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작업의 결과다. 지역의 지도자, 원로, 지역 당국, 지역사회,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 사회복지사, 진로상담가, 특수교육 자원, 도서관 사서 및 문해교육 전문가는 교사들이 모여 있는 학습환경 속에 학생들이 가져오는 고유한 역동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학교를 둘러싼 교육 생태계는 학습 공간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실 학습과 학교 내 학습, 그리고 그 너머의 방과후 활동 사이의 구분은 흐려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낫다. 교사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유지되도록 하는 연결관계의 디자인과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마음가짐과 정체성, 신분에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 생태계와 학습 공간들의 네트워크에서 교사가 주최자(convenors)로서 사회적·제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 교사와 교사들의 팀은 교육의 미래를 형성하는 핵심 주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가르치는 일은 교사가 닫힌 교실 안에서 활동이나 수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학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학교 전체에서 다른 교육자들과 함께 해내는 일로 여겨야 한다. 교실에 두었던 초점을 학습 조직으로서의 학교로 이전하기가 항상 쉽지는 않다. 실제로 학교 교육의 경직성 때문에 교직 내에서 협력하는 과정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다. 협력을 고려한다고 해서 개인의 의무나 중요성이 축소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협력을 통해 학교 공간 전반에 걸쳐 집단적 행동에 대한 새로운 책임감이 형성되면서 학교 관리 및 지도에서 개별적 역할이 강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협력을 강요하는 것은 소용도 없고 역효과를 낼 것이다. 자연스럽게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학의 조직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교육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교사에 의해 실시된다면 협력은 쓸모가 없다. 그러나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문제 및 프로젝트에 기반한 학습이 조직된다면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일이 될 것이다.

가르치는 일은 교사가  
닫힌 교실 안에서 활동이나  
수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학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 교육과정 및 교육학의 구상과 실행

교육과정은 디자인되고 쓰여지는 것일 뿐 아니라 성립되고 실행되는 것이다. 개방적이고 공유된 지식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실행하려면 교사의 역할에 상당히 의존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지만, 혁신은 각자 특수한 상황에 처한 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디자인될 때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 교사는 진정성(authentic)과 관련성(relevant)이 있는 교육을 위해 학습을 개인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에게는 재량권과 적절한 준비, 수업 자료와 더불어 학생을 위해 최고의 학습 기회를 채택하고 만들고 디자인하고 창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미래의 교육 과정은 교사들에게 폭넓은 자율권을 주면서 강력한 지원이 보완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지원에는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풍부한 협력이나 대학교수나 과학자와 같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등이 있다.

참여적·협동적 접근에 기반한 교육학은 교실 내에서 실시되는 협동학습만이 아니라 교실과 대학의 학습 커뮤니티 간의 협동학습을 통해서도 펼쳐진다. 교사가 직면한 몇 가지 도전과제는 교사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학교들의 네트워크, 대학과의 파트너십, 특수교육기관의 지원을 받는 전문가 공동체 등의 도움으로 풀어갈 수 있다. 수준 높은 학습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해 스터디 그룹, 교사위원회, 교수법 관련 모임, 동료 멘토링, 코칭, 관찰, 현장방문 등 교사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 교사 없이 교육과정과 교육학을 다시 그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적인 교수법에 관한 지식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대화 위에 구축되며, 쌓여가는 경험의 레퍼토리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성찰을 통해 발전된다. 그 어떤 두 가지 교육적 상황도 결코 똑같지는 않으며, 이 때문에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학은 각 학생이 지식과 인간 간 관계맺기의 일부가 되도록 하고, 지성(intelligibility), 창조성, 감수성을 갖고 세상에 접근하게 해 준다. 교사 없이 교육과정과 교육학을 다시 그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 교사와 교육 연구

교사가 성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그들 자신과 지식과의 관계다. 어떤 교사에게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교사에게는 교훈적·교육적 지식이 우선 순위에 있다. 세 번째 지식 유형은 전문적 교수법에 관한 지식이다. 어떤 직업에서든 실천가들은 전문지식을 생성하고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경험과 실천에 대한 체계적 실험과 평가의 결과로서 얻는 것이다.

실천에 기반한 지식은 교사가 성찰적 실천가로서 직업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필수적이다. 개인 수준에서 전문적 교수법에 관한 지식은 직관적·실천적·관계적 차원을 갖는다. 협력적 교수활동은 자연스럽게 성찰과 동료들 간의 공유라는 차원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이 점차 글쓰기로 변하면서 저자를 겸하게 되는 교사들도 있다. 하나의 전문 직업은 그것의 유산, 경험, 실천관행을 등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탐구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전선을 파악하고 연구를 위한 질문을 선정하고 그 해답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교사가 성찰적 실천가이자 지식 생산자로 인식될 때, 교사는 자신의 직업 안에서와 그 너머에서 교육 환경, 정책, 연구, 실천 등 변혁에 필요한 지식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생애와 연계된 여정으로서의 교사 개발

오늘날의 세계에는 교사의 역할 수행을 준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기관들이 있다. 여기서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교사의 정체성과 능력, 전문성 개발은 그 자격 및 경험과 상관없이 결코 ‘종료’되거나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사 개발은 평생 동안 생애와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학습과 경험의 풍요롭고 역동적인 연속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개인적·문화적 차원 또한 인정되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경험의 레퍼토리를 넓히고 지식과 아이디어의 세계에 참여해야 한다. 스스로 열정적 독서가가 아니면서 학생들의 읽기를 증진시킬 수는 없다. 이와 유사하게 교사가 과학에 호기심과 관심이 없으면서 과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생은 교사의 강의에서 배우는 것만큼이나 교사의 삶으로부터도 배우기 때문이다.

각 교사에게 ‘인생의 도서관’은 교사 역할의 기반이 된다. 그러한 배움과 문화적 풍요로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교사가 생애와 결부된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교사는 타인 및 살아있는 지구와의 새로운 형태의 공생과 연대에 기여할 수 있다.

### 교사 임용

어떤 사람들은 교사가 되는 여정을 일찍이 자신이 교육받는 초기때부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의 좀 더 나중 시기에 몇몇 이유들로 인해 다른 직업 경로에서 전환하면서 그런 기회를 갖는다. 지난 30년간 학교 교육이 대대적으로 확장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역 출신의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신규 임용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직업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긍정적 이점도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훈련된 교사 비율이 감소하고 교사의 급여 및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으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지원 체계를 늘려야 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도 있었다.

많은 곳에서는 교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재능 있는 신입교사 모집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교직에 몸담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의향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교직의 압박과 위험부담과 어려움이 커지면서 교직에 들어오는 신입교사는 상당히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의 세부목표들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 가까운 신입 초등 및 중등교사가 필요하다. 이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되어 교직을 떠나는 사람들의 자리까지 메우려면 더 많은 신입교사가 필요하다. 획기적인 변화 없이 교사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수의 동기 부여된 예비교사를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공공정책과 사회 전체에 있어서 시급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전 세계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교사 부족은 학령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예비 교사들의 교수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엄청난 재능을 갖고 교사 자격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급 측면의 장벽으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는 특히 고등교육 기회가 제한된 국가에서 심각하다. 가능한 지역에서는 교사 신규임용 및 교사개발에 대해 창의적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의 풍부한 협력적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지역 역량의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의 교직이탈을 방지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격을 갖춘 교사의 부족은 주로 불평등으로 인해 국가 내에서도 나타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잘 훈련되고 경험 많은 교사들은 이미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이직률이 높은 초보교사, 자원봉사자, 자격이 부족한 교육자 등이 가장 훌륭하고 경험 많은 교사가 필요한 교육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를 교직에 끌어들이는 정책과 아울러,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의 교직이탈을 방지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몇몇 지역에서 학생들의 문화적 유산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학교에 선주민 교사, 해당 지역 출신 교사, 그리고 해외동포 교사를 신규 임용하고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다양성의 가치와 학습 증진에 중대한 기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집단 출신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서 삶의 경험이 있고,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의 미래 창조에 커다란 가치를 지닌 요구와 열망, 문화적 패턴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

교사 교육

교사 교육이 교육의 우선과제와 잘 맞물리도록, 또 미래의 도전과제와 전망을 지향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 여러 지역,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다수의 교사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요청된다. 모든 필요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만능 모델은 없다. 교사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 예를 들어 공공당국, 연구기관, 교사단체,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협력이 있어야 교사의 학습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 가능성이 생긴다.

교사 교육에서는 지식이 생산되고 순환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삶과 지구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디지털 문화가 갖는 관련성(relevance)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술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길 필요는 없지만, 디지털 미디어는 혼합형 원격 전문성 개발의 수단으로서, 무엇보다도 학습의 주제로서 교사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와 플랫폼의 행동유도성과 교육학적 효과, 인식론적·윤리적 가능성 및 그 사각지대와 단점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교사 교육으로 교직이탈(teacher attrition)이 생기는 요인들을 해결해야 한다. 교직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교사 후보의 유입에 대한 관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역할을 다시 디자인함으로써 필요한 전문성과 자원, 인프라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는 팀들 간 협력을 통해 성공적 교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교사들이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호소했다. 이는 기술 플랫폼이 부적합했고 더불어 원격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 개발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었으며, 그 결과 일부 교사들의 교직 포기가 이어졌다.

### 신입 교사

어떤 직업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새로운 세대를 환영하여 맞아들이고 같은 직업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이다. 교직 입문 프로그램은 신입 교사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처음 몇 년 동안 협력적 구조를 통해 수업 계획을 수립하고 경험 많은 동료의 멘토링을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 초기 준비단계와 전문적 실천단계 사이의 이행기가 교직 생활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다. 그런데도 이 단계는 정책적으로나 교직 자체에서나 종종 무시되어 왔고 그 결과 높은 이탈률이 발행하게 되었다.

교직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지식 기반과 관련이 있다. 교수법에 대한 전문 지식은 교사의 통합과 사회화 과정에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훈련기관과 학교, 경험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이들 기관 간 연계는 21세기에 변하고 있는 교육의 환경과 맥락, 학습 환경 및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중요하다. 새로운 과제들은 모든 세대의 교사들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미래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뢰하는 동료들의 커뮤니티로서 서로를 지원하는 교사들의 능력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교사는 학습자와 함께 실행연구, 문제해결, 프로젝트 작업, 또는 새로운 기법의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지식 창조를 이끌어간다. 이러한 과정이 교직 입문 프로그램의 기반이자 신입 교사가 동료 교사들의 협력적 커뮤니티와 함께 하면서 교직에 통합되도록 하는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 지속적 전문성 개발

교사들에게는 민족적·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여러 집단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개발과 교육 및 지원의 기회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사 활동을 통해 특수한 요구를 지닌 학생을 포용하고 적절하게 지원하면서 학습을 개인화해야 한다. 교사는 역사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집단의 학생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는 특히 기후 변화와 사회적·정치적 폭력, 무력 충돌 등으로 인한 국내외 이주민 증가로 학급 구성이 급격히 변하는 지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런 상황은 향후 몇 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성 개발은 교사 개발의 각 부분들이 연속적 과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초기 교사 교육과 감독하에 진행되는 현장 실습에서 시작해 교직 입문 교육, 멘토링 및 정기적인 현장 전문성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교직 경로를 따른 효과적인 승진 과정은 교사의 일상활동에 초점을 두고 교직 실천에 쉽게 통합되는 의미 있는 지속적 전문성 개발과 연계되는 것이어야 한다.

효과적인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과 교사가 그러한 학습을 지원하고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주로 초점을 둔다. 비교적 오랜 기간 확대 실시되어 온 효과적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학교에 기반하고 경험 속에서 체화되는 프로그램이며, 배운 것을 적용하고 교육학적·개념적 지식을 발전시킬 만한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교수활동 변혁을 위한 공적 연대

교사들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교사의 선발과 준비, 경력 흐름을 관장하는 정책, 그리고 교직 자체 조직 안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협력이 단지 교사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협력을 통해 지원과 재정적인 자원을 제공받음으로써 다양한 교육 관계자, 특히 가족과 지역사회, 고등교육 기관 및 다양한 사회기관들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사의 근로 조건

다수의 연구들이 학교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수준 높은 교수활동임을 보여주지만, 교사는 여전히 제대로 인정받지도, 평가받지도,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며 지원 역시 불충분하다. 교사의 경력구조, 경력관리, 동기부여, 직무 만족도와 관련된 사안들은 공적 투자와 공공의 의지라는 필요조건 없이도 세계 어디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임시 교사나 자격 미달의 교사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교직과 공교육을 잠식할 수 있다.

열악한 근로 조건과 보수는 장래의 교사를 쫓아내는 요인이다. 교사 역할의 젠더 특성 또한 교직의 긴장과 수요를 분석할 때 가시화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직 부문에서 여성의 증가가 급여를 낮추거나 성별 간 급여 불평등을 확대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 교사의 근로 조건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뿐 아니라 학급 규모 축소, 학교 안전 개선, 전문성 인정 및 지위(legitimacy) 강화, 제도적 지원 증대, 그리고 협력 문화 증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교사의 경력을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승진은 능력, 전문성 개발, 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신입교사 멘토링, 교사 공동 수업 계획 수립, 교과목 주임이나 학년 주임 활동, 개인지도교사나 위원회 위원 활동 등의 조직 지원 서비스, 연구안식년, 전문성 심화 개발 등도 포함해야 한다. 압박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교사들은 행정적 요구와 교육적 요구 사이의 균형 잡힌 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등의 예처럼 교수활동에 보이지 않게 포함된 역할들도 감당해야 한다.

전면적이며 젠더 감수성에 의거한 교사의 노동법상 지위와 규범, 업무량 개정은 새로운 교육의 우선과제와 잘 맞물려야 한다. 더 나아가 교사의 자율성을 대체로 위축시키는 요구사항과 책무성 기술(demand and accountability technologies) 등을 통한 새로운 관리 형태의 등장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규모 시험의 등장, 교사평가, 학교점검, 교수활동 표준 등은 교사에게 적절한 지원도 없이 부과된 무거운 압력의 몇 가지 사례들이다.

일부 교육 시스템은 내부 관리와 효율성, 공적 책무성을 증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인공 지능(AI) 기술을 환영했다. 인공지능은 지식과 교육적 과정의 가시성과 관련해 장점도 있지만,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역자 주: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개선하는 컴퓨터 알고리즘) 기술의 발전이 교육적 과정을 ‘데이터 세트(data set)’로 파편화시키고, 관리주의와 감시, 교직의 탈전문화(de-professionalization) 추세를 가속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국가가 정치적 감시의 목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이는 교육의 목표를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증진으로 승인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26조를 위배하는 것이다.

교사의 역할에는 막중한 책임이 포함되며, 그런 만큼 교사는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개방적이고 신뢰가 있는 환경에서 안전을 느끼며 일해야 하고, 새로운 사고방식과 세계에 대한 소속감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과도한 관리주의와 집단주의(corporatism)에 기반해 실시되는 책무성의 형태는 불합리하며, 교사 역할을 지원하기보다는 더욱 저해하고 있다.

## 대학과 교사의 지속적인 관계

고등교육과 교직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새로운 기관 구성에는 이러한 연계성이 담겨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다시 그려 본다는 생각은 학교와 교사와 대학이 초기 교사 훈련 및 지속적인 교사 전문성 개발에서 서로 협력과 협동에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로 적용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은 차세대 교육자의 마음가짐과 교육학에 질문을 던지고 이를 형성해 줄 수 있다. 반대로 교육자들은 대학이 스스로 변혁하고, 대학의 공적 사명감을 혁신하며, 보다 확장된 교육 생태계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더욱 빈번해지는 대학과 교직 간의 연계 중에서도, 대학은 교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 책무를 높여야 한다. 역사적으로는 초등 및 중등교육과 대학 간의 연계가 주요한 교사 교육 방안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사 교육 프로그램과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초기 훈련에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할 때 관계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뿐만 아니라 학교도 단독으로

초기 교사 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 일부 초기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교육의 다양한 주체들, 즉 공공당국과 교사단체, 비정부기관들이 공동활동에 헌신하기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공간과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들은 학교에 깊이 들어가 학습과 실행에 대한 탐구지향적 접근

대학뿐만 아니라 학교도  
단독으로 초기 교사 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학의 교육학과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으며, 대학이 발전시키고 동원하는 공유지식의 전체 스펙트럼으로 초등 및 중등학습을 연결할 수 있다. 여러 지역의 대학이 과학과 산업을 연계한 협력단지를 유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교육 중심의 공간을 만들어 학습 디자인을 공유하고 교사 준비 작업을 도울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한데 모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책무 중에는 교직입문 프로그램의 강화가 포함된다.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멘토링에 중점을 뒀던 젊은 교사들에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시기에서 이를 실천하는 시기로 적절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화되게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대학교와 교육대학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또한 교직 경력 전 기간에 걸친 교사 지원에도 필요하다. 교사와 대학 간의 지속적 접촉은 학교의 개선과 교육적 변혁 과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대학의 프로그램과 교수진은 교사의 경력 기간 전체에 걸쳐 교사와의 활동에 계속 참여해야 하며, 교육자들이 그들의 업무에서 얻은 통찰을 대학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변증법적 관계를 장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에서는 교수법의 교육학적 발전과 교수진에 대해서도 변혁이 요구된다. 대학교와 전문대학 강사 및 교수는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협력적 계획수립과 교수활동, 지원 등에 책임을 다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학 못지않게 고등교육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교육학은 중요하다. 사실 그것은 대학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다음 세대의 전문가, 지도자, 연구자의 출현과 더욱 큰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 교육적 의사결정 및 공공영역에서의 교사

오늘날 교육과 관련한 토론과 논의가 펼쳐지는 공공영역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단지 토론이나 컨설팅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당국과 학부모,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단체, 각종 협의회와 청소년 운동 단체, 그리고 교사 및 교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에 관한 문제다.

교직의 역할은 교직 공간 안에서 끝나지 않으며 공공 공간과 사회생활, 그리고 공동선(the common good)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도 이어진다. 이런 면에서 교사들이 공공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적지 않은데, 이는 교사의 권한이 약해 행동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또는 교육정책에 관한 토론 및 심의 과정에 교사가 환영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되는 것은 교직 내에서 지위를 얻는 일일 뿐 아니라 주요 교육적 사안과 공공 정책 마련에 공적 입장을 갖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참여는 교사 자신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것에 국한되기보다는 교사의 목소리와 지식을 보다 큰 사회적·정치적 영역에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며 중요하게 지적할 것은 교사의 역할이 교실 안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 전체의 조직과 활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학교가 학습을 위한 조직이 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한다. 그러한 학교에서 교사는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에 초점을 맞춘 비전을 형성하고 공유하며, 그러한 학교에는 모든 교직원을 위한 지속적 학습기회가 있다. 교사는 연구와 혁신, 탐구의 문화 속에서 협력하고 함께 배우려는 노력에 앞장설 수 있고, 학습의 조직과 공유를 위한 통합적 시스템을 증진할 수 있다.

## 대화와 행동의 원칙



이 장에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교수활동이 협력의 행위로 더욱 전문화되어야 하며, 교사는 스스로를 지식생산자이자 교육과 사회의 변혁을 위한 핵심 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2050년을 바라보며 이 제안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대화와 행동을 안내하는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협력과 팀워크가 교사 역할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사가 교육 환경과 교육 관계 속에서, 또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모임을 주도하는 대표자로서 공동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양질의 교수활동은 팀을 통해 만들어지며, 그로부터 학생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 요구를 충족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지식 생산과 성찰, 연구는 교수활동의 일부로 통합되어야 한다.** 교사는 새로운 탐구와 혁신의 영역을 파악하고, 연구 과제를 찾고, 새로운 교육학적 실천을 만들어내는 지적인 참여적 학습자로서 지원받고 인정되어야 한다.
- **교사의 자율성과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 교사의 강력한 직업적 정체성을 장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적절한 교사 입문 프로그램과 지속적 전문성 개발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사가 학생의 학습을 디자인하고 이끄는 데 자신의 판단과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교사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공공 토론과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교사의 존재감이 교육을 집단적으로 새로이 그려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와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에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교사의 변혁적 활동과 관련된 이 네 가지 기본 원칙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교수활동과 교사에 대한 공동의 대화는 교육 혁신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 제 6 장

### 학교의 수호와 변혁

 가정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따라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학교는 내가 그런 자신을 잊고, 생각을 통해, 나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 교실은 그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의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의 장에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일할 기회를, 우리 자신과 동료에게 마음과 가슴을 열도록 요구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경계 너머로 나아가는 상상을 할 때에도 현실을 직면하게 해 줍니다. 

벨 훅스(Bell Hooks), 『경계넘기를 가르치기: 자유 실천으로서의 교육』, 1994.



**학교는 포용, 형평성, 개인과 집단의 웰빙을 지원하는 교육의 장소로서 보호해야 하며, 아울러 보다 정의롭고,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세계로의 변혁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학교로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을 실현하고 공유지식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 실현을 위해 투입할 시간과 공간이 필수적이다. 학교는 그 모든 잠재력과 약속, 결점과 한계 속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교육 환경으로 남아 있다. 학교는 교육을 공적인 인간 활동으로 여기는 사회의 책임의식을 나타낸다. 하지만 학교는 독립적으로 디자인되지 않았으며 학습과 성공, 성취,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일련의 가정을 반영하고 있다.

학교의 건축 환경과 시간 체계는 무엇이 허용되거나 금지되고, 누가 환영받거나 배제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다. 교육적 만남의 핵심 주최자로서 교사는 이러한 조직적 윤곽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호작용 및 학습의 형태 속에서 상당한 시간을 일하며 보낸다. 학교의 환경은 협력과 탐구, 실험에 건설적인가? 학교 환경은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과 성찰에 대단히 비판적일 것인가, 아니면 이를 장려할 것인가? 학교 환경은 학년이나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나이와 생애 단계에 걸쳐 다양한 만남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유형의 멘토링과 우정, 사고방식으로 이런 만남을 만들 것인가? 학교 환경은 다른 무엇보다 개인의 성취를 중심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개인과 또래 친구들의 발달을 상호 지원하도록 고려할 것인가?

이 장에서는 모든 문화와 전통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사회기관으로서 학교의 출현을 간단히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학교는 단지 초등 및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일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자체적 권한을 가진 사회센터로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웰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를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학교는 그 성취에서 한계가 있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학습의 공간과 시간 구조를 협소하게 정의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학교의 변혁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번 장의 다음 내용이 이어진다. 교실 너머로 확장되는 학습의 범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수업시간과 구조의 재검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성찰 등은 학교의 변혁을 통해 새로운 교육의 사회계약을 맺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교육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와 미지의 것들과 불확실성에 적응하며 집단적으로 살아갈 만한 미래를 건설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강한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장은 학생, 교사와 교육자,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화와 행동을 위한 2050 기본 원칙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 기본 원칙은 학교를 협력의 공간으로

보호하고 다시 디자인하며, 디지털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며, 지속가능성과 인권을 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대체 불가능한 학교의 역할

만약 학교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명해야만 했을 것이다. 학교는 보다 큰 교육 생태계의 핵심 구성 요소다. 활기찬 학교는 그 사회가 공동재(a common good)로서의 교육에 책임을 다한다는 표현이다.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이 공유지식에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제공한다. 학교는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에 맞서며, 가능성을 실험하는 장소다. 학교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가 지속되도록 자신의 경험, 능력, 지식, 윤리 및 가치를 활용하도록 보장한다. 2050년을 바라보며, 학교는 세대 간, 상호문화적인, 그리고 복수언어적 만남을 통해 연대와 호혜성의 윤리를 길러주어야 한다.

만약 학교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명해야만  
했을 것이다.

필수적 교육 활동들은 여러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학교의 공적인 시간과 공간은 특별하다. 학교 공간은 사회적 관계를 증진한다. 교육과 학습은 인간의 상호작용과 대화, 교류를 자극하고, 학교는 이를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야 한다. 학교는 단체생활의 형태를 띠고,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삶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타인으로부터, 또한 타인과 함께 배우는 공간이다. 원격학습 방안이 학교의 활동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의 이러한 관계적 성격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서아프리카를 휩쓴 에볼라 전염병, 폭력 분쟁, 기후문제 출현과 같은 점점 증가하는 혼란들로 인해 학교의 고유한 역할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학습을 위한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사회적 웰빙의 중심지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학교는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몇 안 되는 기관 중 하나다. 지역 사회 생활의 중심지로서 학교는 자립을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 내부 및 자연 환경과의 지속가능한 관계 구축을 위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20년과 2021년에 갑작스러운 대규모의 학교 폐쇄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 교사와의 접점을 잃어버렸다. 이처럼 대면교육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면 수백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지적·정신적 웰빙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영향은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어떤 연령대에 있든 학교는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를 높여 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가정과 인근 지역사회에서 대체로 마주치기 어려운 것들을 학교에서 접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교육적 만남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 교육공간 중에서도 학교는 독특한 배움과 가르침의 장소다. 인간은 학습할 수 있고, 또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이 아름다운 역동성은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세대와 삶의 방식을 가로질러 우리를 공유지식과 서로에게 연결시켜 준다. 교사 없이는 학교도 없다. 교사는 누구나 지식을 이용하고, 집단적 목적의식과 능력을 구축하고, 해방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적 사명을 증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해주며 건강하게 기능하는 학교의 시간과 공간에 의존한다.

### 공동의 역사적 책임

단순한 관찰과 모방 또는 이야기만으로는 학습될 수 없는 복잡한 수준의 지식을 성취한 대부분의 문화권에는 지식과 기술, 가치, 이해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공간과 시간이 있었다. 초기 학교 교육은 쓰기의 발전과 함께 생겨났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있다. 영어 단어 ‘학교(school)’는 그리스어로 자유 또는 여가시간을 뜻하는 ‘skholè’에서 왔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의 기관이 교육발전의 중심 모델이었지만, 다른 많은 문화권에서도 예시바(yeshiva, \*역자 주: 유대인의 초등학교), 마드라사(madrasah, \*역자 주: 이슬람 교육기관), 칼메각(calmécac, \*역자 주: 멕시코의 역사적 고등교육기관)의 사례와 같은 학교 교육 기관이 발전했다. 지난 두 세기에 걸쳐 학교가 전 세계에서 발전하고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돌보는 방법에 관한 세대 간 대화를 조직하는 중심적 공공 인프라의 역할이 학교에 있음을 전제하게 되었다. 학교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유산에 친숙해지고, 나아가 문화적 유산을 재창조하고 확장할 수 있다.

학교는 공유지식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주요 시공간의 하나가 되었다. 학교는 학생을 추론, 학습, 연구, 탐구의 풍요로운 전통으로 이끌어 인식론적 실천을 촉진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활동과 연습은 특정 정신세계와 지식에 대한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학교는 확립된 진리 주장(해당 신념체계가 진리를 담고 있다는 주장)을 전수하는 일에 더 많은 무게를 뒀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이 학교에서 실시되던 직접적 수업 방식에 도전했다. 보다 참여적인 학교 교육 관행과 학교 문화를 통해 세대 간 이해 증진 및 진리 주장의 결과에 좀 더 초점을 두게 되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와 도전과제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인식론적 실천이 넘쳐나게 함으로써, 그리고 여러 인식론들과 지식 생태계 사이에 건설적이고 폭넓은 동맹관계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가 지식 전수의 공간에서 더 나은 참여와 탐구의 공간으로 변해 가는 와중에도 학교에서의 학습은 필수적인 것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직성을 피하고 세계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려면, 얼마나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인간의 경험을 피폐하게 하기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학습의 시간과 공간 안에 이식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시간과 공간이 세대 간 학습 활동을 공적으로 촉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 학교에 필요한 변혁

학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변혁과 변화와 웰빙에 대한 열망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높아진 학교 교육 접근성은 개인과 지역사회 전체에 변혁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의식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이해를 발전시키며, 학습과 개발의 새로운 흐름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종종 탈학습되고 수정되어야 할 격차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공고하게 하기도 한다.

학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심대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학교의 조직 원칙의 중심에 포용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수월성, 성취, 품질, 측정 및 진보는 배제보다는 포용하는 방식으로 재정비될 수 있는 학교의 소중한 책무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모습의 학교 환경을 커다란 도서관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인터넷에 연결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몇몇 학생들은 혼자서 공부를 하고, 다른 학생들은 학급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자신의 작업을 발표한다. 또 다른 학생들은 도서관 밖에서, 아마도 멀리 떨어져 있을 학교 밖 사람들이나 세상과 접촉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엄청나게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시공간들을 지원한다. 이는 통상적인 학교와 교실의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새로운 환경이다. 이 도서관은 하나의 은유로, 혹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우리에게 학교의 시간과 공간이 학습자와 공유지식을 연결하는 포털(portals)이 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 협동과 돌봄, 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학교

학교는 포용적이고 협동적인 학습 환경으로서 폭행이나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학습자들의 차이와 다양성은 환영받아야 한다.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이 곧 획일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효과적인 협동학습은 학생과 교사의(역량, 능력, 인지, 흥미, 적성) 차이를 활용한다. 어떻게 보면, 학습은 우리 각자에 속하는 개인적 여정이다. 이때 협동학습은 반드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어야 하며 학습자의 개별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똑같이 타당한 또 다른 시점에서 보면, 학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태가 잡혀가는 집단적 여정이기도 하다.

자기교육(self-education)은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부분으로 중요한데, 이는 교육의 개인적 기능과 집단적 기능이 서로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배울 수는 없지만, 모두 함께 더 많이 배울 수는 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역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에 달렸다. 교육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우리의 관계와 상호의존성 안이다. 효과적인 집단학습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감을 주는 많은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곳의 학교들도 이러한 관계와 상호의존성을 좀 더 지향해 나가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습자 지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선생님이나 학교 경험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학교가 배제하고, 주변화시키고,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략 전 세계의 절반에 달하는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마칠 때 기초 역량에서 최소 숙달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로, 학생과 사회에 대한 학교의 실패를 의미한다. 적응력 있고 변혁적인 학교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이는 세계 곳곳의 무수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학교는 다른 교육 장소들과의 긴밀한 접합을 통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의 논의에 참여했던 백만 명의 사람들은 (건축 디자인, 교육과정, 교실 구조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학교의 디자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분명한 동의를 표했다. 2050년의 미래 교육을 상상하며 청소년들이 그린 그림들은 줄지어 늘어선 탁자와 책상들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예견했다. 교육 혁신가들과 함께 한 몇몇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방식을 적절히 인식한다면 학교를 변혁시킬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교실과 외부 세계 사이에 놓인 벽을 유연하게 하거나, 수업을 여정(journeys)으로 재개념화하는 것 등이 있다. 정리하자면 학교는 보다 포용적이며 보다 환대하는 방식이 되고, 보다 참여적이고 관련성을 가지면서 미래 세대에게 다르게 보이고 느껴져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지속가능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그러한 메시지를 가정과 지역사회로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녹색’ 학교가 되고 교육을 탄소중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엄청나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우리의 세계가 간절히 요구하는 녹색 경제 실현을 위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학교는 지난 두 세기 동안 역사의 상당 부분에서 학교의 특징이 되었던 엄격하고 획일적인 조직 모델을 깨뜨려야 한다. 혁신은 필수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학교 모델에 영향을 미쳤던 19세기와 20세기의 대단한 노력이 미래를 위한 통찰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지난 150년에 걸쳐 건축가와 공공보건 전문가, 철학자, 공무원, 교육자,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들은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얻은 교육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교육의 가능성을 확장해 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예컨대 학교건물과 교실 같은, 물질적 형태를 띠면서 대중적 공교육이라는 특별한 사회기관이 되었다. 그와 같은 상상력과 결단력, 협력은 오늘날에도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유된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학교에 물질적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교실에서 학습자 커뮤니티로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서 주요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 장소는 교실이었다. 포용과 협동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상상하는 데 있어, 교실에서의 ‘실(room)’은 이제 점점 후순위를 차지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헌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일부로서 해당 공간의 가치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학교 모델은 학생들을 연령, 성취도, 능력, 혹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는 것에 대단한 에너지를 쏟았다. 이와 반대로 오늘날의 교사에게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룹으로 모으는 일에 적응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함께 실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활동들은 학습자의 그룹이 작을수록, 혹은 클수록 좋을 때가 각각 있다. 그렇지만 학습자 커뮤니티의 일부가 된다는 가치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학교의 특징이다. 미래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더는 기존의 교실에 구속받지 않으면서도 학급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그러한 공유된 학습이 가져다줄 모든 기쁨과 눈물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이다.

미래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더는 기존의 교실에 구속받지 않으면서도 학급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교실에서의 학습에 대한 기대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종일 앉아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학교건물과 가구 디자인, 교실에 놓인 사물과 자료에도 녹아 있다. 조용하고 순종

적인 학생이 집중력 및 생산성과 동의어가 되어왔다. 너무나 당연히 능숙한 교수활동이란 조용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소음이나 움직임 제거하는 일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학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여겨질 때, 학교와 교실은 지루하고 즐겁지 않은 장소가 된다. 깊게 몰입하고 흡수하는 주의력은 엄청난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교실과 학교 배치가 이를 올바른 방식으로 촉진하고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교라는 사회적 공간을 보호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 공간이 사방이 막힌 벽일 필요는 없다. 교실 공간은 다양한 범주의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자원들을 끌어오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이 될 수 있다. 획일적으로 모두에게 맞추기 위한 (one-size-fits-all) 교실에 한정된 교육은 학습을 제한할 것이며, 학교가 창조해야 하는 가능성과 기회의 범위를 좁힐 것이다.

### 다양한 교육학을 지원하는 구조

수업과 시간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 수업은 학생들을 공동 활동에 집중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교육적 만남의 구조를 만들고 세대 간 대화를 진행시키는 중요한 기제다. 하지만 기존의 수업 디자인은 매일 또는 매주 고정된 시간 단위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당한 한계가 있다.

수업은 공부와 학습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양식에 가치를 두는 교육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사람들을 공동 활동에 함께 불러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세대 간 및 상호 문화적 교류를 활용하고, 교사의 수준 높은 능력과 지식을 이용하는 다양한 공부와 학습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제 및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접근법은 기존의 수업보다 더 참여와 협력을 잘 이끌어낼 것이다. 탐구 기반 교육학과 실행 연구 교육학은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적용하면서 동시에 지식의 생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커뮤니티 참여 교육학과 서비스 학습은 겸손한 배움의 자세로 임할 때 학습에 강한 목적의식을 불어넣는다. 이러한 학생들의 공동활동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고, 연대의 정신 속에서 집단적으로 숙고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학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학교 조직의 상당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 학교를 지원하는 디지털

디지털 기술로 학생들이 비슷한 관심과 질문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 이 기술은 교사와 학교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 연결은 교사와 학생이 전 세계의 정보와 문서 자료, 예술 형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단히 향상시켰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도서

관과 박물관의 소장품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도구로 학생들은 영상을 만들고, 다양한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게임과 앱을 코딩해 자신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세상 속에 드러낸다. 디지털 기기에는 학교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 가능성이 있다. 또한 디지털 도구는 학부모, 교사, 학생 간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학습 지원을 돕는 면에서 유용한 방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학교가 가상 공간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는 없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의 시기 동안 학교가 전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폐쇄되었을 때, 인터넷 연결성과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조차 학교 안에서 물리적·사회적으로 존재감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가정에서 접근하는 가상 교실은 실제의 물리적 학교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대체해 줄 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학교가  
가상공간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는 없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학습의 사회적 차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더욱 상호 연결되는 세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시민교육을 하는 것을 뜻한다. 지속가능한 시민교육을 통해 각 개인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관점과 경험을 포용하며, 환경 및 우리가 공유하는 자연 자원에 대한 책임 있는 실천에 참여하게 된다. 디지털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학교 현장 안에서, 또 그 너머에서 참여적 학습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이 과거의 제약에 묶이기보다 미래의 가능성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곳이어야 한다. 기회균등의 원칙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학생 각자의 배경과 상관 없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갇혀 있던 자신을 해방시킴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출신이 사회적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개인과 사회 모두에 과거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머신러닝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이 과거를 봄으로써만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결정에 존재하는 고정관념, 젠더 편향, 인종 차별 등은 디지털 플랫폼에 더욱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그저 기계들이 오늘날 사회에 있는 똑같은 편견들이 포함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훈련’받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기술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이다. 이러한 학습 경로를 따르는 학생은 지난 시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틀렸는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만을 알려주는 과거의 학습 수행만을 바탕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학습한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향상시켜야 할 재발명과 자기 지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여지가 거의 없다.



교사는 다양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과거의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참여와 소속의 가능성을 지향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디지털 도구는 다양한 형태의 가르침과 배움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서로 간의 만남과 (교사와 학생 간, 학생들끼리, 또한 교사들끼리의) 강력한 인간 관계다. 이러한 공동 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인류가 공유한 지적 자산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에 접근할 수 있고, 지적인 해방을 지원받으며,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공간과 디지털 환경을 가변적이고 오류가 있는 인간의 창조물로 인식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곳이다. 코딩과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는 디지털 구조물의 구축 방식을 밝혀주는 점에서, 또 그것들을 변경하기 위한 실천적·이론적 툴킷(toolkits)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많은 교육 시스템에서 핵심 교과목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비록 교육용 미디어라 하더라도 디지털 미디어를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디지털의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의 사고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주는 기술과 네트워크의 배열과 보상, 방향성, 논리, 기능을 다르게 만들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은 디지털 상호작용을 단지 교육 과정의 목표 추구를 위한 수단만으로 다루는 대신, 탐구와 학습 자체의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 디지털 권리, 감시, 소유권, 개인정보 보호, 권력, 통제, 보안에 대한 논의가 정규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 되었다. 몇몇 나라에서는 일반인이 하루 10시간 이상을 온라인에서 보내면서 디지털 기술에 몰입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학교는 학생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잘 살아가고, 이를 창조적으로 이용하며,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고 성장하기 위해 학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는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기술에 대한 인간 통제의 윤리를 보급해야 한다.

### 협력의 문화 구축

학교에서는 협력, 집단적 리더십, 집단학습, 그리고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성장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학교 교육의 중심 목표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행정가, 교직원들의 새로운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의 책무성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진화해야 한다. 학교의 경영진은 명령과 통제가 아니라 전문가적인 협조관계, 자율성, 상호지원을 증진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 간 협동을 촉진하는 한편 교사 간의 협동도 촉진해야 한다. 이는 교사, 교육행정가, 교직원을 위한 지속적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는 학교

문화로부터 뒷받침될 수 있다. 코칭, 멘토링, 개인연구와 그룹연구, 다른 학교 및 대학과의 실행연구와 연구협력 등의 모든 활동은 학교를 학습조직 그 자체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교사와 무수한 학교들이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수의 선주민이 거주하는 환경에 있는 학교들은 세대 간, 그리고 조상들의 지식과 언어와 연구 관행을 활용해 학습 및 문화 간 상호작용과 인간 너머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다. 다른 사례에서는 학교가 건설적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와 창의적 집단 활동을 포함하는 탐구에 바탕을 두고 스스로를 조직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의 진보에 있어서도 도제제도와 의미 있는 실습 과목, 효과적 훈련 형태 등을 다시 구상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의 인위적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세계적 연대를 정체성으로 삼는 학교, 다른 학교 및 다른 나라들과 지식 공유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학교, 그리고 스스로 공적 장소이자 협력적인 환경으로 혁신하며 재확립하는 일에 매진하는 학교가 필요하다. 학교는 공동재(a common good)로서 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일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 학교에서 고등교육으로의 이행

역사적으로 보면 교육학과를 제외한 대학과 전문대학은 초등 및 중등교육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 동안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고등교육 시작 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수학에서 과학, 문학에서 철학에 이르기까지, 전체 범위에 걸쳐 고등교육과 중등학교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계 및 강화 프로그램들이 종종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려는 의도를 염두에 두고 개발됐다. 그러면서 대학 연구자들이 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에 좀 더 두드러지게 나서게 되었다.

고등교육의 역할을 고려할 때는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 간, 그리고 고등교육과 성인학습 및 비형식 교육 간의 불가피한 연결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50년까지 학습자들이 고등교육과 그 이상의 영역에서 잘 해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 단계의 가치와 조직이 연결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을 위한 미래 정책 의제는 모든 수준의 교육을 포용하고, 비전통적 교육의 흐름과 경로를 더 잘 파악해야 한다. 수준과 형태가 각기 다른 교육들의 상호연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평생학습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을 위한 미래 정책의제는 모든 수준의 교육을 포용하고, 비전통적 교육의 흐름과 경로를 더 잘 파악해야 한다.

학교 시스템과 대학 간의 파트너십은 교육을 다시 구상하고 강화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대학의 도서관과 연구시설은 초·중등 수준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다. 교수의 전문 지식은 지역 학교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해결책을 고안하고 이를 실행하는 교육 시스템의 제도적 역량을 높일 것이다. 대학 역시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 교육, 봉사라는 대학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몇몇 문제들에 대한 공적 서비스 활동으로 좀 더 면밀하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화와 행동의 원칙

이 장에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학교가 포용과 공정과 개인 및 집단의 웰빙을 지원하는 교육의 장소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동시에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세계로의 변혁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다시 상상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2050년을 바라보며 이 권장사항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대화와 행동을 안내하는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학교는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는 해볼 수 없는 도전과 가능성을 만나는 공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학교를 발명해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타인으로부터, 또한 타인과 더불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집단적 역량 구축이 학교를 다시 디자인하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 학교 건축, 공간, 시간과 시간표, 학생의 그룹화 등은 개인이 협력적 역량을 기르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협력의 문화는 학교의 행정과 운영, 또한 학교 간 관계에도 스며들어야 한다.
- **디지털 기술은 학교의 대체가 아니라 학교의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학생의 창조성과 의사소통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알고리즘을 학교에 도입할 때는 기존 시스템 내의 고정관념과 배제가 그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학교는 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성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우리가 열망하는 미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학생이 교육 부문의 녹색화 과정을 이끌어가도록

신뢰와 임무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교육 정책이 지속가능성과 인권 존중을 증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기 위해, 누구든 어디에서든 학교의 수호와 변혁에 관련한 이 네 가지 우선과제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인류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강력한 교육기관의 하나다.

## 제 7 장

#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의 교육

도시는 남녀 모두가 교육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알고, 창조하고, 꿈꾸고, 상상할 필요성을 느낄 때 교육적인 곳이 됩니다. 들판, 산, 계곡, 강, 거리, 광장, 분수, 집, 건물들을 채우고 있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에 어떤 시기와 스타일의 흔적을, 또 특정 시대의 풍미를 남깁니다. (...) 도시는 곧 우리고, 우리는 곧 도시입니다.

파울루 프레이리 (Paulo Freire), 『정치와 교육』, 1993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우리는 평생에 걸쳐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교육 기회를 향유하고 확대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육이 주로 아동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성인으로서 살기 위한 준비를 마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 많은 공공 토론에서 ‘교육’이란 학생들의 가족과 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운영되는 전문화된 기관들과 동의어처럼 쓰인다. 집단적 가르침과 배움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는 전문화된 환경은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학교 교육은 그것만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인간 경험의 중요한 시공간이 되어 왔다. 아동과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교육 기회의 평등과 접근성 증진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교육에 관한 논의를 공교육기관에만 국한시키면 사회 내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풍부한 교육적 가능성을 포괄할 수 없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교육을 위한 사회계약의 기본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the right to education for all throughout life)다. 이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배움에 결코 끝이 없으므로 교육 또한 모든 시간과 공간에 걸쳐 더욱 확장되고 풍요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지역사회, 도시, 마을과 동네, 국가의 정신과 문화 시스템, 세계 각 지역과 국제사회 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와 우리의 집단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직업, 돌봄, 여가, 예술적 열망, 문화적 관행, 스포츠, 시민 생활과 지역사회 생활, 사회활동, 인프라, 디지털 및 미디어 참여 등은 모두 잠재적으로 교육적이고 교육학적이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학습 기회가 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동적인 학습 문화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다. 새롭게 시급해진 도전과제는 이미 50년 전에 『포르 보고서』(Faure Commission report, \*역자 주: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을 의미함)에서 교육 시스템을 다시 생각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교육도시(cité éducatif)라는 비전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는 다른 언어에서 다양한 방식(예를 들면 영어로는 ‘learning society’(학습 사회))로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도시’는 특히 상호연결성 속에서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포괄하는 공간에 대한 은유다. 이러한 비전은 우리가 교육에 포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지원하는 공간과 사회적 활동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반적인 양상으로 확립되어 받아들여지는 교육은 5세나 6세에 시작되어 약 10년 후에 종착지에 도달한다. 이 기간은 더 길어져 유아기까지 교육적 노력을

확장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고, 더 나아가 신생아와 영유아,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의 평생에 이르기까지 관심 범위가 넓어졌다. 첫 번째의 경우, 유아교육은 여전히 학교 교육을 위한 '학령전' 준비 과정으로 규정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필수적 교육 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번째 경우인 성인교육은 종종 '두 번째 기회' 또는 작업장 재숙련과 직업기술교육훈련의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여전히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규정되기는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정책과 전략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아나 성인을 위한 교육 방식에도 '학교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모델이 널리 쓰이면서,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 형태의 가능성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학교 방식'을 다른 교육적 과정과 교육 방안을 필요로 하는 특정 연령대와 특성을 지닌 학습자 집단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저항해 온 오랜 전통이 있었다.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통이 잘 확립되어 실험과 웰빙의 가치, 나아가 정서적·감각적·관계적 차원에 분명하게 초점을 둬으로써 학교와는 다른 교육 전략이 채택됐다. 심지어 상당수 사람들은 교육의 공간과 시간을 새롭게 조직하는 관점에 입각한 학교의 변혁이 유아교육의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모델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성인교육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통이 좀 더 명확해서, 성인의 자율성 및 삶과 일의 경험, 그리고 형식교육 밖에서 이루어진 성인의 학습을 존중하는 형태와 과정을 채택함으로써 성인교육을 '탈학교화(deschool)'하라는 제안이 수십 년 전부터 솔하게 있었다. 이는 곧 성인들이 비인간화와 억압 혹은 식민지화에 대항해서 싸우고, 교육과의 관계에서 학습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해방적인 교육적 제안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방식'이 말하자면 평생학습 추세의 헤게모니를 갖고 유아교육부터 성인교육까지 확장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2050년을 바라보며 교육을 생각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모든 형태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전체를 거대한 교실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리 생각해야 할 부분은 오늘날의 사회에 문화, 직업, 소셜 미디어, 디지털을 통한 무수한 교육 기회가 있으며, 그것들이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중요한 교육 기회로 자리잡아야 함을 이해하는 것이다. 향후 30년 동안 새로운 사회계약의 핵심 측면 중 하나는 교육이 어떻게 삶과 맞물리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를 교육

우리는 학교를 교육을 위한 고유의 시공간으로서 보호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비전을 전 생애에 걸친 공간과 시간으로도 확장해야 한다.

을 위한 고유의 시공간으로서 보호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비전을 전 생애에 걸친 공간과 시간으로도 확장해야 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이미 다양한 교육 현장과 기회들이 존재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해,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방향은 이러한 다양한 교육 현장과 기회들이 포용과 새로운 도전과제에 더 잘 대응토록 하는 것임을 논의할 것이다. 이어서 교육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수행하는 필수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아울러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을 다시 그려보는 데 필요한 기술인 디지털 공간의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한편, 지구의 생물권(biosphere) 역시 필수적인 교육 공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이 장은 2050 대화와 행동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당부하면서 마무리되는데, 여기에는 포용적인 성인교육의 중요성과 새로운 학습 공간 구상, 그리고 재정 지원 강화 및 교육권 확대 등이 포함된다.

## 포용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교육 기회의 활성화

교육의 거버넌스가 가장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사회기관, 그리고 임시적 관계들이 모세관(capillarity)처럼 촘촘하고, 다공성(porosity, \*역자 주: 물체 표면이나 내부에 작은 기공들이 많이 있는 상태)과 편재성(ubiquity)이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행위자들이 모두 포용과 지속가능성에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형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포용의 윤리는 교육을 관리하는 우리의 집단 활동의 지침이 되어야 하며, 이는 포용적 디자인의 원칙으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가장 취약하고 불안정한 환경이 포용적 디자인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교육 생태계는 명확하고 포용적인 가치 없이는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 수 있다. 그 어떤 교육적 관계 속에서도 권력과 특권, 착취, 억압 등이 작용할 수 있다. 교육 디자인과 교육 제도들은 너무나 자주 실패와 배제를 낳는다. 소수민족, 토착선주민, 그리고 다른 소외집단은 단순히 중퇴한다기보다 공교육으로부터 밀려날 수 있다. 난민과 장애인은 교육에서 특히 열악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교육 시스템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접근방식은 교육기관과 관계자 및 교육 공간 간의 연쇄 반응과 연계 효과에 분명한 강조점을 둘 수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실패를 지나치지 않게 할 것이다.



## 정부와 국가의 역할

전 세계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인권의 실현이며, 국가와 사회는 이 권리가 모든 아동과 청소년, 성인에게 실현되도록 보장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가는 교육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할 중대한 의무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들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몇몇 조약으로 좀 더 구체화된 바 있다. 여기에는 1960년 <교육 차별 금지 협약(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CADE)>과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제13조가 포함된다. ICESCR에서 모든 당사국은 교육이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모든 국가 간에 이해와 관용, 우정을 증진 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현행 국제법 하에서 당사국들은 초등교육을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책임이 있다. 중등 교육은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이 개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교육 받을 권리와 관련해 실현, 존중, 보호의 세 가지 의무를 가진다. 국가가 가진 실현의 의무에는 촉진하고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며, 존중의 의무에는 교육권을 훼손하는 조치를 방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마지막이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국가의 보호 의무에는 교육 권을 보호하고 제3자의 침해로부터 방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교육권은 다른 인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는 권리의 보증인으로서 여러 부문에 걸친 노력을 기울여 모든 아동과 청년들의 학습을 가능케 하고 촉진하는 조건을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 그러한 조건이란 곧 물에 대한 권리와 위생에 대한 권리, 건강한 음식과 영양에 대한 권리,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정서적·신체적 웰빙을 증진하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리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들을 보장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s on the Right to Education)은 교육을 공공재(public good)로 언급해 왔으며, 교육이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한다고 보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교육권에 관한 2005년과 2015년의 결의에서 교육을 공공재로 인정했다. 2015년에는 160개국 이상의 국가 대표들이 참여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에서 <교육 2030: 인천 선언과 실행계획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이 채택됐다. 이 문서는 교육이 ‘기본적 인권이자 다른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는 기반’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교육은 국가가 의무를 지는 공공재’이며 국가가 표준과 규범의 설정 및 강화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육 생태계에서 교육을 공공재로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물론 앞서 논의했듯 우리에게서 모두의 손을 모으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공동재(a common good)로서 교육을 혁신할 책임은 모든 교육자와 모든 학교,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모든 장소에 있다. 더불어 국가가 주도하고 비국가 행위자들이 함께 함으로써 공교육의 공공성이 보장된다는 사례가 전 세계에 수없이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국가는 적절하고 형평성 있게 교육 시스템에 재정 지원을 보장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국가는 자국민을 비롯해 해당 국가의 보호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하고 형평성 있게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장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조세정책을 통해 적절한 공공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유재산이 역외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가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적절히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동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 공공재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 방안의 관리감독(regulating)에 핵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 생태계 내의 모든 교육제공자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학습경험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교육이 자국민과 자국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특히 역사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교육 관련 의사결정과 대화에 시민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는 곧 교육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서 투명성과 책무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선주민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엔의 <선주민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서는 선주민이 국가가 보장하는 모든 수준과 모든 형태의 교육을 누릴 권리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에 적합한 가르침과 배움의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과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관리할 권리’도 있음을 천명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단적 실항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강제 이주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에게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활동과 국제협력 증진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것이 좀 더 보편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 디지털 학습 공간의 관리

잘 사용하면 기술은 교육의 공공성, 포용성, 공동의 목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디지털 구현 논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부 기술은 대단한 해방의 잠재력이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충격과 위험부담이 있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혁명’은 과거의 위대한 기술혁명이었던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혁명에서 생긴 주요 집단적 혜택은 우려되는 불평등과 소외의 증가를 동반했다. 우리의 도전과제는 이처럼 혼재된 효과들을 탐색하고 미래 결과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다.

교육 및 지식과 관련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공공영역에서, 그리고 교육을 공공재이자 공동재(a public and a common good)로 보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곧 디지털 인프라의 민간 관리 문제를 파악하고, 점점 교육 생태계의 일부로 모습을 갖춰가는 디지털 공유지식에 대한 반민주적 점유와 접근제한에 맞서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디지털 플랫폼은 지식의 발견, 교육, 연구에 기여했지만, 그간 축적된 사회적 혜택은 상당 부분 기술산업의 실질적인 광고 위주 비즈니스 모델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구글/알파벳(Google/Alphabet)은 모든 이의 공공 디지털 생활영역으로의 확장을 도모한 결과 디지털 공공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중개자 중 하나가 되었다. 구글 스콜라(Google Scholar) 및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과 같은 구글의 몇몇 핵심 교육 서비스들은 실제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며, 구글이 이런 서비스를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자 하는 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교육이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디지털 인프라가 대단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결국 종료된 구글 서비스들의 목록이 대단히 길다는 점에서, 현재 제공되는 이러한 서비스들의 전반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많은 대학시설이 폐쇄됐을 때,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형편이 좋은 일부 대학의 학자들조차도 서비스 수익에 관한 구글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만 구글 스콜라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 구글 스콜라는 여러 해 동안 운영되면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주요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구글 스콜라가 회사 전체 의제의 우선순위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

한 사례는 민간 운영 학습 인프라의 취약성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는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 의지할 만한 좀 더 지속적인 모델의 공공 디지털 인프라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무료로 운영되는 이유는 ‘새로운 석유(the new oil)’에 비유될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개인사용자 데이터를 상품으로서 대량으로 체계적으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 데이터는 오직 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수집됐다. 하지만 이후에 디지털 서비스의 뒤에 있는 플랫폼들은 이 방대하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사용자 데이터가 상업 서비스와 제품 구축 및 개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통해 아이디어와 의견, 선호도를 산출하는 데도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시장점유율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려는 열망으로 가득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인공지능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는 신호였다. 그 결과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는 추출주의자의 명령(extractivist imperative)에 따라 움직이면서 전자책 독자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 시계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접근제한 구역이었던 사적 영역에까지 센서와 알고리즘, 네트워크가 확산됐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영구적으로 감시받는 시대에 산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는 커다란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 표현의 자유와 사람들의 지적 자율성을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감시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창조적 활동에 대한 자기검열이 이루어지고, 민감하거나 위험한 책을 읽을 때 자신의 명성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불편한 2차적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우려는 감시와 추출주의가 우리 교육 생태계 속으로 확장될 때도 생길 수 있다. 감시가 지속적으로 일상화되면, 특히 어린이들이 교육 시스템 속에서 일찍부터 이에 익숙해진다면, 인간 존엄성의 개념에 대한 급격한 침식이 일어나고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이 크게 훼손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 생태계 내에서 학생과 교사의 데이터 보호 우려와 관련한 디지털 플랫폼의 위치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디지털 공간에서 데이터의 수집, 저장, 모니터링의 용이성은 가르침과 배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데이터 접근으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면 적절한 규칙과 규약(protocols)이 필요하다. 투명성의 윤리를 지침으로 하는 데이터 정책을 실시해, 기본 설정값으로 항상 데이터를 익명화함으로써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알고리즘 방식으로 지식 큐레이션(knowledge curation, \*역자 주: 매우 다양한 지식을 특정한 주제나 관심사에 따라 수집하고 분류하며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는 디지털 플랫폼

들이 교육 생태계를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정상을 차지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간 빠르게 증가하는 방대한 양의 전 세계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큐레이션 하는 도전과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공적 대응이 없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전문가들도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며, 그로 인해 자격이 있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를 게재하는 플랫폼 큐레이션 알고리즘의 번덕에 꼼짝 못하는 인질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현재 여러 곳에서 목격하는 허위정보와 과학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위기 같은 문제에 대해 장기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하고, 전문성 있고, 민주화된 지식 큐레이션에 우리가 정보를 갖고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사례들은 교육 내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성을 강조한다. 더 나은 기술적 도구를 설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하지만, 디지털 혼란을 완화하여 공동재(a common good)로서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최상의 전략은 디지털 인프라가 건강한 공공영역 안에서 민주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디지털 커뮤니티와 초기 인터넷 기술은 오픈 소스와 협력적 노력을 통해 발전했다.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이 지속가능성, 정의, 그리고 포용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동과 시민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을 이윤 추구의 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공적 투자의 공간으로 보는 광범위한 대중적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디지털 혼란을 완화하여  
공동재로서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최상의 전략은 디지털  
인프라가 건강한 공공영역  
안에서 민주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 살아있는 지구와 함께 하는 학습

우리는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인간 중심적 장소와 기관 너머로 확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원, 도시의 거리, 시골길, 정원, 들판, 농장, 숲, 사막, 호수, 습지, 대양, 그리고 인간 너머의 생명들이 살아가는 장소들도 포함된다.

인간은 살아있는 지구의 일부다. 오래 지속되어 온 많은 선주민 문화는 인간과 비인간이 참여하는 호혜적 관계 형성에 대한 적절하게 확장된 관점을 갖고 있다. 생물권(biosphere)은 중요한 학습 공간이다. 그리고 오늘날 선주민이 거주하는 땅이 세계 생물다양성의 약 80%를 차지한다는 사실 자체도 선주민의 관점이 지구를 돌보는 교육에 대해 모두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음을 충분히 드러낸다.

선주민의 대지와 물에 기반한 지식과 가르침,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우주론은 인간이 아닌 존재도 고유한 권리를 갖고 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자이자 스승으로서 이해하고 관계를 설정한다. 일부 토착 전통에서는 인간 너머 세계의 요소들이 더 오래되고, 더 현명하며, 존경받아 마땅하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존재라고 이해한다.

서구의 교육 전통에도 이와 비슷한 의문을 갖는 오랜 역사가 있다. 장소 기반 교육, 환경 교육, 야외 및 체험교육의 영역에서는 자연 세계와 환경이라는 존재를 학습 과정의 공동 참가자로 만들고자 시도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에서도 흔히 환경을 학생 학습에 봉사하는 존재로만 규정했다. 자연세계와 환경이 아니었다면 배울 수 없을 것들을 학생들이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기회가 종종 마련되었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만남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호혜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인간이 아닌 존재(non-human beings)가 그 자체의 주체성을 지닌 스승으로서 여겨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교육과 장소 기반 교육의 형태들이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환경보존과 복원에서 뿔어나온 ‘생태복원(rewilding)’ 교육이라는 은유는 특히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을 건설하는 생각과 관련해서 바람직하다.

세계의 여러 지식 체계와 우주론 간 대화에서 출현하고 있는 많은 교육적 만남도 이와 유사하게 교육과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를 세상과 더불어 상호진화하고 상호창발하는(co-emergence) 것으로 재규정하는 데 바람직하다. 인간은 자신을 사회적 존재만이 아니라 생태적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를 자연을 ‘돌보는 자(caretakers)’이자 ‘보호자(protectors)’로 규정하는 환경 관리자(environmental stewardship)의 원칙도 여전히 인간과 환경 사이의 구분을 전제로 한다. 우리의 생태학적 상상력은 우리를 살아있는 행성 안에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이 일으킨 생태 위기는 교육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학습자를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존재로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교육의 목표가 그저 학습자를 상호연결된 세계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 이상적 세계주의자, 말하자면 전형적으로 ‘인간 발전’에만 초점을 둔 교육에서 그려지는 ‘21세기형 학습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원하는 교육을 위해 우리는 우리 행성계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 반드시 다른 존재들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책임을 지는 학습자를 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런 관점은 교육 실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지구적 의식과 긴밀하게 조율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를 다시 균형잡기 위해 우리는 상호의존성을 다시 배우고 인간의 위치와 행위능력을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많은 문화들이

인류가 지구의 나머지 부분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케추아 언어의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라는 개념은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고 생태적으로 균형잡힌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 반투족(Nguni Bantu)의 우분투 철학의 관계성의 원칙(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은, 불교 윤리의 카루나(Karuna, 연민)와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일러준다. 이들은 인류가 활용해야 할 풍부한 문화 자원의 단지 두 가지 사례일 뿐이다.

다른 사회들은 여전히, 때로는 고통스럽게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과 지구의 상호의존성을 받아들여 애쓰고 있다. 2050년에 우리는 어떻게 조화와 웰빙과 정의의 원칙을 통해 지구의 일부로 살게 될 것인가? 세계적으로 우리는 아직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생명의 총체성에 뿌리내린 교육은 분명 우리가 함께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한 열쇠 중 하나일 것이다.

## 교육받는 ‘시기’의 확장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되면서, 교육이 삶과 얽히는 방식도 변화할 것이다. 교육의 요구와 우선순위와 양식은 청년과 노인인구 간의 균형, 노동 인구의 비중, 나아가 누가 언제 (유급 및 무급의) 돌봄노동을 하는지 등에 변동이 있을 때 함께 변화한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은 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 가정들을 명확히 드러낸다.

### 평생에 걸친 교육과 돌봄

우리의 웰빙과 경제 안정이 공식경제 부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유급노동은 전체의 한 부분이며,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가정 내에서 하는 노동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노동에는 어린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 식량 생산 및 식사준비, 보금자리 만들기, 그리고 생태적 어려움에 처한 여러 지역에서의 물고기 등이 포함된다. 대개 가족과 지역사회, 건강, 식품안전, 심지어 환경과 생태계 건강과 관련해서 여성과 소녀들이 큰 부담을 지지만, 이러한 대단하고 필수적인 기여는 제대로 인정받거나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30년 간 일어날 복잡한 상호작용들은 이러한 모든 종류의 ‘생계공급(provisioning)’ 활동을 세계 여러 지역과 지방에서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다시 균형잡을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개선 또는 노동력 부족 때문에 노인들이 더 오래 노동인으로 남을 기회와 수요가 생길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노인 보육의 문제가 지난 30년 동안 많은

수의 여성이 노동력에 진입하면서 아동 보육에서 일어났던 특징적인 문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펼쳐지게 될지도 모른다. 세계의 더 많은 지역에서 협동적 삶의 방식과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새로운 가구 형태가 출현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건강한 돌봄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이를 단단하고 오래 지속하는 능력이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사안이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을 학습하고, 돌봄을 삶과 결부된 교육의 특징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교육의 특징이 아니다. 2050년과 그 이후를 바라볼 때 이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앞으로는 음식을 준비하고 때로는 재배하는 매일의 생활노동을 지원하는 교육, 그리고 신체와 가족을 돌보는 것을 지원하는 교육이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을 삶과 결부돼 있고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 학습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이다.

### 해방적 프로젝트로서의 성인학습과 교육

전 세계적으로 최근 수십 년 동안 교육정책 수립의 중심은 평생학습의 원칙이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네 번째 목표(SDG4)는 우리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촉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성인학습과 교육에는 개인을 자유롭게 해 줄 잠재력이 있고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강력한 해방적 전통이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평생학습이 직업 및 기술 차원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전통은 위축됐다. 본질적으로는(생애의 이른 시기에 교육에 완전히 접근할 수 없었던) 성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였던 교육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신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한 ‘의무’가 되었다. 그 결과는 기술습득(skilling)과 재숙련(reskilling)의 무한한 반복이다.

성인교육은 노동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을 훨씬 넘어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이후에 성인학습과 교육의 모습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우리 경제와 사회가 변하면서 성인교육은 노동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을 훨씬 넘어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경력 변경과 재숙련 기회는 다중적이고 유연한 경로 형성을 강조하는 모든 교육 시스템의 광범위한 개혁과 연결돼야 한다. 모든 영역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성인교육은 노동시장과 기술 변화에 대해서든, 또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든 수동적이거나 순응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혁적인 학습을 중심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2050년과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성인교육에서 일련의 심대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조만간 인간 수명이 대부분 10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그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육 실시 시기에 대한 지속적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어떤 지역에서는 4세대가 같은 시공간에서 함께 살게 될 역사상 유례없는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성인기와 성숙기라는 문화적 개념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습관화된 생활방식과 일과 여가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바뀔 것이다. 이미 일자리와 고용의 성격이 한 개인의 노동 생활 전 기간에 걸쳐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 동안에도 시민적·정치적 생활이 변화할 수 있으며, 아마도 미래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요청하는 새로운 생태의식과 재정립된 인본주의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의 학습자들이 마주치게 될 새로운 교육적 관심사의 사례들이다. 21세기가 진행될수록 교육 정책의 초점은 삶 전체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야 하며, 특히 성인과 노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 차원은 최고의 평생학습 전통의 일부로서, 너무나 자주 교육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온 취약집단의 참여와 포용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다. 참여와 포용은 해방적 비전을 가진 성인교육에서 함께 추구하는 것이며, 성인교육은 무형식학습, 즉 정규 학교 교육의 바깥에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을 인정한다. 성인교육 정책은 전 생애에 걸친 무형식학습을 포용과 참여에 대한 우선과제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인교육 종사자들은 점점 더 디지털 수단을 통해 중개되고 가능해지는 교육 방식을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젊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세계에 노출되지만, 노인 세대에게도 지속적인 지식 개발과 축적을 위해 이러한 도구가 필요하다. 성인교육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오픈 액세스 및 오픈 소스 운동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 과학적 문해력을 강화하고 모든 형태의 허위정보와 싸우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인교육 전략의 핵심 요소다.

성인학습과 교육은 다중적 역할을 한다. 이는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통해 길을 찾아가도록 돕고, 역량과 행위능력을 증진시킨다. 성인학습과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에 좀 더 책임을 갖게 한다. 나아가 교육은 성인들이 패러다임 변화와 권력 관계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 성인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것만큼이나 모든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삶과 결부된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성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뿐 아니라 미래 세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다음 세대에 미룰 수는 없다. 세대 간 연대의 윤리가 공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교육권의 확대

우리 앞에 놓인 강도 높은 도전과제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교육자, 정부, 시민사회가 앞서 제시된 제안사항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다. 그 제안들은 유토피아적 모델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구체적 생존 전략이다. 교육은 학습이 그 근본적 부분을 차지하는 삶의 깊은 의미와 기쁨으로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체적인 삶 속에서 교육을 생각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교와 대학 같은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간에 그것을 유일한 교육 형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최상의 교육은 동료 간의 학습과 세대 간 학습, 나아가 상호문화적 학습의 가치를 인정하는 집단적 과정이다. 교육의 이러한 사회적 측면은 우리 각자와 우리 지역사회, 나아가 지구를 돌보는 학습을 강조한다. 이러한 집단적 과정과 사회적 측면은 학교와 대학에도 있어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2050년을 앞두고 교육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존의 사고가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과 청년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다 명확히 적용되어야 한다. 교실과 학교라는 제도화된 교육 현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교육이 일어나도록 더욱 명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 기간 동안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활용하면서 우리는 교육과 문화와 일반 지식에서 이러한 매체가 갖는 중요성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이런 매체들은 특히 온라인 자료와 스마트 기기에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는 디지털 연결성과 온라인 플랫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었다. 이는 우리가 그 자체로 기본 권이기도 한 정보 접근성을 교육권과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게 될 정도였으며, 10년 전만 해도 예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교육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문화자원에 접근토록 함으로써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지원한다.

교육받을 권리는 정보에 대한 권리와 문화에 대한 권리의 지원을 받고, 역으로 이 권리들을 지원하기도 한다. 의견 표출과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다. 허위정보와 잘못된 뉴스들이 판을 치는 미디어로 가득 찬 오늘날의 세계에서 교육은 정확한 정보를 탐색하고 그 정보를 조작 없이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구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 교육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문화자원에 접근토록 함으로써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지원한다. 역으로 교육은 사람들이 문화자원에 기여할 능력을 갖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문화 간의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대화는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를 뒷받침하는 열쇠다. 교육은 문화다원주의의 장려에 기여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서 대화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교육으로 확장될 때, 교육은 공동의 노력(common endeavour), 즉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고, 관리하고, 실행하는 것으로서 강화된다. 공동재(a common good)로서의 교육은 함께 성취하고 선택하는 공유된 웰빙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야 한다. 아동과 성인은 고객이나 구경꾼이 아니라 행위자로서 교육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는 삶의 서로 다른 단계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교육의 서로 다른 부분들을 담당하고, 또한 그 일부가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알고, 느끼고, 실천하는 것을 강화하는 교육,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일을 강화하는 교육의 일부가 될 권리가 있다.

## 대화와 행동의 원칙

이 장에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기회를 향유하고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2050년을 바라보며 이 권장사항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대화와 행동을 안내하는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삶의 모든 시기에서 사람들은 의미 있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습은 평생 동안 생애 전반에서 실시돼야 하며, 성인교육을 인정하고 거기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우리는 포용적 학습 디자인의 원칙을 채택해야 하며, 어떤 학습계획이든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가장 취약한 환경을 지원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건강한 교육 생태계는 자연적 학습현장, 건물로 된 학습현장, 그리고 가상 학습현장을 연결한다.** 우리는 생물권을 학습공간으로서 더 잘 이해해야 한다. 디지털 학습공간은 이제 교육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고, 교육의 공공성과 포용성, 공동의 목적을 지원하도록 발전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의 데이터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오픈 액세스와 오픈 소스 플랫폼 마련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 **공공재정을 지원하고 교육을 감독하는 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표준과 규범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국가적 역량을 구축해 대응력 있고 공정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 **교육권은 확대되어야 한다.** 단순히 학교 교육 중심으로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는 더 이상 우리를 적절히 지원해줄 수 없다. 누구나 어디서나 평생학습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요소로서 정보에 대한 권리와 문화에 대한 권리를 지원해야 하며, 연결성(connectivity)에 대한 권리도 구축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기 위해 이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 국가, 지역, 세계 수준에서 우리는 이 원칙을 둘러싼 대화와 행동에 책임을 다해야 하며, 우리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3부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촉진

인류와 살아있는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중첩된 위기 너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급진적 경로 변경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회적·인식론적·경제적·환경적 정의의 원칙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시급히 구축해야 하며, 이는 미래의 변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란 공적인 사회적 행위이자 공동재(a common good)로서 교육을 강화하고 공유지식을 보호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의미한다. 정부 및 다양한 비국가 파트너들은 과거에 완수하지 못한 약속을 실행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의 변혁적 잠재력을 꽃피우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대학과 다른 파트너들은 공동재로서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혁신에, 그리고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함께 만들어 가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전 세계의 지역별·국제적 교육 발전 조직들은 2050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교육을 공동재로서 관리하고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관건이 되는 것은 국제적·세계 각 지역적 수준을 넘어 각각의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대화를 요청하는 초대장이다.

## 제 8 장

# 연구와 혁신에 대한 요청

 모든 공동체 접근에서 과정이, 즉 방법론과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프로젝트에서도 성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존중하고, 사람들을 깨우고, 치유하고, 교육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과정입니다. 자기결정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과정입니다. 

린다 투히와이 스미스(Linda Tuhiwai Smith), 『탈식민화 방법론』, 1999.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본 위원회는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에 기반을 둔 전 세계적 협력적 연구 의제를 요청하며, 여기에 여러 풀뿌리 협의체와 교육자, 기관, 사회부문 및 다양한 문화가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앞 장에서 제시한 제안들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된 맥락과 상황 속에서 교육을 위한 노력과 실험, 탐구, 혁신을 수행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시 그려보기 위해 교육에 대한 협력적 연구와 혁신을 요청한다. 교육 자체도 그런 것처럼, 연구와 혁신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공공재이자 공적 과정이다.

교육의 미래에 관한 연구 의제는 학습자와 교사가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여러 측면에서 교육의 미래를 이루는 요소는 적어도 어떤 초기적 형태로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어떤 교육 시스템이든 출발점은 그러한 밝은 지점들, 즉 이 보고서에 명시된 원칙들을 이미 구현하고 있는 긍정적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의 효과와 그것을 가능케 한 조건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이 보고서의 아이디어들을 실현할 기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달리해서 아이디어를 실행 전략으로 옮기면 좋을지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광범위한 연구자료와 방법, 패러다임으로부터 발전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수단들은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즉 실천가와 지역사회의 대화에서부터 대학과 연구 파트너십, 그리고 유네스코의 포럼들을 포함한 국내 및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 이르기까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와 혁신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함께 학습할 수 있게 해 줄 방식을 강조한다. 그런 방식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성찰하고, 실험하고, 함께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를 함께 다시 그려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구와 혁신은 우리의 상상력에 힘을 불어넣고 우리가 지금 교육에서 보고 실천하는 것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우리의 예측 능력과 미래 문해력을 강화해야 한다. 협력과 겸손, 그리고 예측의 윤리가 교육에 대한 연구 의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야 할 것이다.

## 연구와 혁신은 우리의 예측 능력과 미래 문해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보고서가 제안한 것들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모든 교육 참가자들이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통찰을 지원하고 체계화할 것을 특별히 요청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지침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적용하게 해 줄 도구를 국제적 수준에서 갖추어야 한다. 끝으로 이 장의 결론은 모든 교육 참가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2050 대화와 행동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마무리되며, 이는 서로 다른 관점과 내용, 장소들을 포괄하는 포용적이고 세계적인 연구 의제들에 대한 요청이다.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연구 의제

이 보고서는 일련의 관찰과 원칙 및 본 위원회가 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연구 의제의 지침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안을 담고 있다. 연구 의제는 우리가 함께 할 미래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지구 전반에 걸친 학습 과정을 담은 광범위하고 다면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관점, 그리고 다양한 원천에서 오는 통찰을 배제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강조하는 우선과제들은 서로를 강화하면서 응집력 있는 공통 연구 의제를 이룬다. 1장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연구 의제는 교육권에 중점을 두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평등한 교육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또한 이 연구는 변화하는 기후와 환경, 가속화되는 기술적 전환, 심화되는 몸의 정치(body politic, \*역자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몸을 매개로 권력과 불평등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기제)의 분절성,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직업과 생계 등 2장에서 언급한 변화의 경로들이 다가오는 결정적인 몇 년 사이에 어떻게 교육과 맞물리게 될 것인지를 추적해야 한다. 더불어 이 연구는 단순한 측정과 비판을 넘어 보고서 2부에 제시한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교육학, 교육과정과 공유 지식과의 관계, 교사 역량 강화, 다시 그려보는 학교, 그리고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삶과 연계된 학습 등의 운영원칙에 따라 교육의 혁신을 탐색해야 한다. 이렇게 훨씬 광범위해진 연구 의제에서 생성되는 학습과 통찰 및 경험은 우리가 함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형성하는 일을 촉진할 것이다.

### 교육 내부로부터의 연구

오래되고 중요한 교육 연구의 유산은 20세기 초반과 그 전부터 다양한 작업, 흐름, 관점을 포함해 이루어졌으며, 영향력 있는 사상과 행동의 계보를 만들고 구축해 왔다. 교육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학교와 교실, 그리고 교육이 일어나는 여러 현장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연구는 개인과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전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실천가 연구, 실행 연구, 역사기록물 연구, 사례 연구, 민속지 연구 등은 교육 분야 내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증된 것들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교육은 단지 외부적인 실험과 연구를 적용하는 분야가 아니라 스스로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분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학교가 지식 생산의 장소로, 그리고 교사가 아는 사람(knowers)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대학과 기관 및 연구자들이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풍부한 통찰과 교훈과 경험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에 달려 있다. 대학은 학문적 지식 발전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도, 서로 다른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서도 교육 연구 촉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교사라는 직업에 관한 지식은 교육 경험에 대한 공유된 성찰로부터 오기 때문에 교사는 언제나 해당 지식의 핵심 저자가 될 것이며, 따라서 교사들이 자신의 연구와 성찰을 출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 역시 그들 자신의 교육적 경험과 열망, 성취, 성찰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중요한 원천이다.

학생 역시 그들 자신의 교육적 경험, 열망, 성취, 성찰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중요한 원천이다.

대학과 연구자들은 언제나 학교, 교사, 학생과 대화하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많은 방법론적 전통 중에서 참여적 평가, 협동 연구, 청소년 주도 연구, 실천가 탐구 등은 교육 내부의 연구자와 외부 연구자들 간의 학습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 학습과학의 등원

최근 수십 년 동안 교육에서 가장 독특하게 이루어진 과학적 진보의 하나는 신경과학과 학습에 관련된 뇌 연구를 통해서였다. 이들 연구 덕에 ▲인간 발달의 모든 단계에 있는 신경가소성, ▲뇌의 해부학·구조·기능과 인간 신경학, ▲기억, 정보처리, 언어 발달 및 복잡한 사고능력, ▲수면, 신체활동, 감정, 스트레스, 학대 등이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자극의 효과에 대한 이해가 크게 발전했다. 더불어 학습의 인지적 과정 그 자체도 충분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말하기, 읽기, 쓰기, 공간 인식 등과 같은 특화된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통찰을 얻게 되었다.

비록 해당 분야의 완전한 이해와 이를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이제 출발선상에 있을 뿐이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여기서 얻은 통찰에 가능한 많은 교사와 연구자, 학습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행동과 두뇌 활동 간의 강력한 패턴과 상호관계를 관찰할 수 있지만, 이러한 패턴이 복잡한 사회적 학습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인구집단과 시기, 공간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미래의 학습과학(learning sciences)이 보다 폭넓은 연구 질문과 가정, 가설, 우선과제들을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젠더,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 언어적 배경, 연령 등에서 매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연구자로 포함돼야 한다. 또한 학습과학의 중대한 진전은 신경다양성, 학습 차이, 장애 연구, 특수교육 등에도 혜택을 줄 수 있다.

학습과학의 통찰력이 강력하고 필수적이라고 해서 전체 교육 분야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인지는 우리가 학습하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며, 사회적 지식과 체화된 지식, 감정 지능 등은 신경과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정의되지 않는 무언가와 상호작용한다.

교육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앞에서 강조했듯, 교육의 복잡성은 교육이 세계의 모든 측면, 즉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물질적·영적 차원들과 분리되지 않고 맞물려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마음을 사물과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며, 이는 교육이 다양한 학습자들과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습 관련 신경과학이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우선과제들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면모를 지닌 교육의 맥락 속에서 그 발견들을 살펴봄으로써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하는 인지적·사회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 교육을 위한 연구 파트너십의 변혁

학문 간(interdisciplinary), 부문 간(inter-sectoral), 문화간(cross-cultural)에 이루어지고, 학계와 시민사회 및 교육계를 포괄하며, 소통의 공유와 상호학습을 증진하는 연구 파트너십은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우선과제와 제안들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모든 연구 파트너십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은 아니며, 더 많은 자원과 제도적 권력을 가진 파트너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파트너십의 과정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인간의 본질, 사회의 본질, 또 인간 너머 세계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깊이 박힌 채 교육계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정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적 겸손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를 운영하는 패러다임은 ‘남/북’이나 ‘서구/비서구’ 같은 지식 관계의 단순한 범주화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관계 지향적인 지식의 생태학으로 이동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생태계가 다양한 경험과 앎의 방식에 의해 풍요로워져야 하며, 배제와 결핍의 사고와 협소한 인식론적 가정에 의해 황폐화되지 않아야 한다. 교육은 학생, 교사, 가족, 지역사회 사이의 관계적 과정이며, 그에 따라 위계적 지식이 아닌 관계적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맥락과 문화, 언어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역량까지 포괄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혼란과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풀뿌리 공동체와 사회운동의 목소리 역시 교육이 더욱 경청하고 활용하고 기여해야 할 중요한 지식과 통찰의 원천이다. 지구의 파괴와 모든 형태의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는 운동들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다시 그려가고자 하는 여러 사례 중 일부다. 비록 항상 공식적이거나 제도화되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공동체 및 사회운동과의 협력은 교육의 역할과 그러한 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집단적 학습 못지않게 필수적이다.

## 지식, 데이터, 증거의 확장

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연구 의제를 가동하게 되면 양적이거나 질적인, 규범적이거나 서술적인, 디지털화되거나 단기적인, 이론적이거나 실용적인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양의 지식과 데이터와 증거를 생성하고, 또 그것에서 연구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현재의 조건을 이해하고 미래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전달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특정한 형태와 유래를 가진 지식이 지배권을 행사했고 다른 지식은 배제됐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과 교육에서의 지식은 모두 권력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인간과 지구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양식은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포용과 참여의 형태를 발견함으로써 인간과 함께하는, 그리고 인간에게 복무하는 권력의 양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향후 수십 년간 교육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의제의 하나로, 교육에서 지식과 데이터 및 증거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복잡한 지식 생태계의 강화

현재 너머로 더욱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구집단과 문화와 전통이 세상을 읽고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연구와 혁신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보고서의 교육학과 지식, 참여, 협력, 연대에 대한 지침은 이미 여러 문화들의 세계관과 관점으로부터 나온 풍부한 지식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지식의 탈식민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를 가진 지식이 현재와 미래의 긴급 상황에도 타당하고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선주민의 인식론을 그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실행 가능한 접근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정 형태의 지식은 개발에서부터 경제, 교육에 이르는 여러 분야에서 다른 지식보다 더 대우를 받는다. 흔히 북반구의 지식은 개발도상국의 맥락으로 이전될 때는 해당 지역에서 생성된 지식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는 가정 하에 이전된다. 그러나 이렇게 이전된 ‘해결방안’은 대체로 해당 국가의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채 실패하거나, 취약계층이나 환경의 장기적 웰빙을 희생하면서 소수에게만 이익이 된다.

여러 가지 앎의 방식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그저 극단적 상대주의를 수용하는 것이라거나 진리 추구에 대한 사명감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런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토착적이며 다원적인 앎의 방식이 도전하는 대상은 그들의 현실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던 개발 모델과 실천 관행에 내포된 가정이다. 예를 들어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서구적 사고 전통은 이론과 실천, 개인과 집단, 예술과 과학, 인간과 자연, 진보와 보수, 앎과 감정, 지성과 육체, 영혼과 물질, 현대와 전통 등으로 구분된 이분법적 사고를 관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많은 비서구적 관점들의 기여는 바로 이러한 양극성을 가진 전제에 도전함으로써 상호관계와 거기서 생성되는 긴장을 복잡하고 상호관련된 세계의 결합된 부분들로 보는 새로운 이해의 빛을 비춰주었다는 데 있다.

토착적이고 다원적인 앎의 방식은 개발 모델과 실천 관행이 내포한 가정에 도전한다.

예를 들어 위기가 닥쳤을 때 지역사회들은 그들의 방대한 경험과 지식과 창조성의 저장소를 교육이 비상상황을 완화하고 적응하는 방향으로 연결되도록 만들 수 있었다. 그 중 몇 가지만 거론하자면 지속가능한 농사짓기, 사회적 호혜주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 등 오래 축적되어 온 선조들의 지식은 인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지식의 원천이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은 공교육에서 잊혀졌고, 인정받지 못했으며, 완전히 삭제됐다.

교육의 미래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도출된 주요 우선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 유형과 원천을 새롭게 하고 포괄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정의롭고 공평한 조건에 기반하여 공유지식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달려 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지식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포용적이고, 사회 및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학문 및 전문분야 간 협력을 강화하며, 소통과 협력, 주도성, 그리고 상호학습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 통계, 지표와 분석

통계는 시간 속에서 특정 지표의 스냅샷을 포착해 주는 힘이 있으며, 다른 데이터의 요점들과 관련하여 제시될 때 여러 시간과 공간에 걸친 상관관계, 변화, 조건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또한 특정 지표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보여주고, 다양한 시나리오와 선택, 사건 혹은 개입을 통해 가능한 성과의 범위를 예측하게 해준다.

유네스코통계원(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IS)은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 공적이고 필수적인 통계를 수집하고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네스코통계원의 활동은 국가, 지역, 국제 수준에서 통계의 수집과 확증을 위한 역량 구축의 한 방안이었다. 젠더, 지역, 소득수준 및 다른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통계는 형평성과 평등 문제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유네스코 통계원이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통계의 무결성(statistical integrity)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의를 명료하게 다듬은 것은 통계의 품질과 유용성의 진화 및 보장에 필수적인 일이었다. 유네스코통계원의 이러한 작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은 우리가 중요한 교육 지표들에 대한 필수 정보를 얻고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와 동시에 향후 수십 년 동안에 통계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엄격히 피해야 할 것은 바로 환원주의(reductionism)다. 범주화는 분석에 유용하지만, 이것을 고정 불변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현실은 언제나 범주들로 정량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복잡미묘하고 경계가 흐리다. 통계 수집과 확증 작업은 특히 대규모 작업인 경우 노동집약적이며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가능한 곳에서는 기존의 국가 데이터 자료의 강화와 보강 쪽으로 데이터 수집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병렬적 데이터세트 구축에 따른 높은 부담과 비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지역 우선과제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의미 있는 지표를 파악하기 위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측정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교육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이 정량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통계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통계를 통해 얻은 통찰을 교육목표 및 우선과제 진전을 위한 추가적 탐구와 탐색 및 통찰의 출발점으로 여겨야 한다. 교육 통계들은 다른 기관 및 연구자들과 아울러 유네스코통계원의 신중한 작업을 통해 생명력을 갖게 되고, 가능한 곳에서는 예측을 제공하며, 뿐만 아니라 통계의 분석적 힘을 드러내주고 또한 그에 도전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 빅데이터와 변화하는 지식의 본질

기술의 진보 덕에 지식은 무엇이며, 또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가정들이 생겨났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기술들은 정보 및 지식과 거기서 발생하는 이해가 크고 (단일한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지점에서 도출되므로), 검색할 수 있고(복구 가능하고 찾기 쉬우므로), 저장할 수 있고(기록 보관이 가능하므로), 전송할 수 있고(끊김 없이 공유가 가능하므로), 개별화가 가능하리라는(개인적 소비에 최적화되므로) 기대를 우리가 품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는 그 특성들이 교육의 목적과 과정을 포함하는 교육에 대한 생각을 규정하고 만들어내며, 또한 일부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다른 가능성은 차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도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연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하게 교육적 데이터세트를 조직하고, 종합하고,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디지털 방법과 도구, 데이터 수집과 저장,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가 보여준 힘은 이들이 어떻게 교육적 방법론과 접근방식에 대한 이해와 실천, 효과성 향상에 이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뜨거운 열의에 불을 붙였다. 통계 데이터 처리와 차트 작성, 지형 지도 및 네트워크 지도 작성, 패턴 찾기, 키워드 추적 등은 연구자가 채택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다. 또한 우리의 교육적 생활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측면에 대해서도 좋은 연구 기회가 있다.

오늘날 대학 강의실과 관공서, 기업 본사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찬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에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많은 수의 데이터 포인트 없이는, 또는 대규모 프로파일과 미세한 행동, 키보드 입력, 눈동자와 전기신호 등의 집계 없이는 어떤 패턴도 식별할 수 없다고 가정하게 된다. 데이터 분석의 논리에 따르면 패턴이 없으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두 번째 효과는 데이터, 특히 디지털 기술과 잘 어울리는 정량화된 데이터를 가장 중요한 지식 형태로 보는 미묘한 경향성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문기술 분야의 특별한 분과영역으로 데이터과학(data science)이 탄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분과영역과 마찬가지로 데이터과학도 교육에서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와 설명의 구축에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디지털 연구 도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주어진 탐구 목적을 감안할 때, 더 많은 데이터가 반드시 더 좋거나 더 정확한 것은 아니다. 도구 중심이 아니라 목적 중심의 연구의 제와 연구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컴퓨터가 도달할 수 있는 통찰이 인간이 이용 가능한 통찰과 똑같지는 않다. 때로는 놀랍게도 소프트웨어가 명확한 발견을 해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와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능력 덕분이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인간의 마음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정교하게 맥락과 의미, 가치, 함의들을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교육에서 빅데이터와 디지털 도구의 엄청난 잠재력을 활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객관성을 가정한 근거 제시를 위해 디지털 분석 소프트웨어에 매료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디지털 프로그래밍의 범위 바깥에 남아 있는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 정의와 형평성의 렌즈로 디지털 연구 방법의 편향성과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우리 지식의 많은 부분이 양적이고, 알고리즘 친화적이고, 분자화되고, 쉽게 저장되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 우리는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분야가 이러한 지적자산을 자기 스스로 유지하고, 자율적이며, 인간 관리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한 야심의 윤리적 위험에 대해 향후 30년 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혁신되는 교육의 미래

교육의 혁신에는 실험하고, 공유하고, 확장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반영된다. 혁신은 개별 학생이나 학급과 함께 일하는 교사에서부터 학교 전체 또는 국가 전체의 접근방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현장에서 모든 규모로 가능하다. 혁신은 대개 많은 협력 활동과, 다양한 맥락에서 활동하는 교육자, 정책입안자, 연구자, 학교들의 경험과 성공으로부터 얻은 영감의 결실이다.

###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차용, 적용

실천과 정책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교육 환경으로 교육 경험과 혁신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를 통해 배우려는 충동은 ‘친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힘이 있으며, 이는 관점을 넓히고 당연하게 여기던 특이성과 가정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적용과 차용은 그 자체로 학습이자 혁신의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이 보고서에 제시된 규범적 원칙들에 비추어 다른 곳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영감을 기리고 끌어오면서, 그 맥락적 조건들, 경험들, 기존의 지식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 시스템 내의 행위자들 또한 혁신적 접근방식과 통찰의 중요한 원천이다. 전적으로 교육 분야의 ‘외부’에서만 부과되는 혁신은 그 통찰력과 제시되는 해결방안이 불가피하게 제한적이고, 심지어 왜곡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산되고 정당화되는 교육적

지식의 중심 행위자들은 교사, 학생, 교장, 학교 등이며, 이들은 모두 연구와 혁신을 만들어 내는 참여자들이다. 교육과정의 개발과 개정은 공유지식을 이용하고 여기에 더 깊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여를 통해 특히 더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교사와 학교가 공교육 시스템 및 과정과 관련된 대화와 개정에 참여하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와 혁신에서는 종종 규모의 문제가 생긴다. 바람직한 경험은 유용하고 공유될 수 있다. 하지만 ‘모범 사례’ 자체는 흔히 거기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조건들을 상세히 다루기보다는 그 결과에 더 중점을 둔다. 교사, 학교, 문해교육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와 학습공동체가 늘어나면,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실시간 연구와 적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겸손의 윤리는 교육 혁신이 비역사적이고 탈맥락적인 가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및 이들의 파트너들은 공동재(a common good)로서, 그리고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공동 건설로서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혁신에 특별한 관심을 두도록 요청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이미 교육 안에서 일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교, 가족,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대화 속에 자신들을 위치시킬 때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를 위해서는 열려 있고 접근하기 쉬운 공유지식을 생성하고, 그들 자신과 인류를 위해 지식의 발전에 책임을 다하는 새 세대의 연구자와 전문가를 교육하는 대학의 공적 사명을 혁신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및 이들의 파트너들은 공동재로서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혁신에 특별한 관심을 두도록 요청받고 있다.

국제기구 또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한 교육의 연구와 혁신의 발전에서 독특하고 강력한 역할을 한다. 이 보고서에 따라서, 경험 정보교환소(clearinghouse of experiences)를 발전시키도록 유네스코를 초대하는 바이며, 여기서 서로 대화하고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제안사항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변화하고 새로운 지식이 등장하는 속도로 볼 때 이 보고서는 역동적이어야 하고 매 순간 다시 쓰여질 필요가 있다.

### 평가, 실험과정, 순위

평가와 성찰은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의 전체 주기에서 필요한 과정으로 나타난다. 평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 디자인의 동기가 행동을 통해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평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과 디자인의 성과를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으며, 특히



평가가 의도한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모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분명히 전체적인 평등의 증진을 희생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이익을 안겨주거나 장기적 지속성을 희생해서 단기적 실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러한 개입 방안을 뒷받침했던 가정들은 재빨리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협동의 윤리를 준수하면서, 평가는 혁신의 도전과제와 약점 또는 강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방안을 바꿔야 할지, 개선 혹은 거부해야 할지에 관한 의미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 내부의 교사와 학생, 학교의 성찰적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명확한 분석틀이 있어야 혁신 디자인의 목적과 평가, 권고사항들 간의 긴밀한 결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시험과 실험,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 trial)은 가정을 검증하고, 기법을 조정하고, 잘못된 계산을 수정하고, 일반화의 한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개별적 변수를 도출하는 능력에는 신중한 사고와 정교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협력의 정신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윤리적 원칙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 교사, 가족 등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교육과 발전에 관련된 학습에서 온전한 참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미 교육 경험 속에서 느끼고 있는 좀 더 확대된 개입 방안이나 변화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인’ 실험을 이용함으로써 향후 몇 년간, 특히 이미 떠오르고 있는 중대한 변화와 혼란을 비추어줄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통해 변화에 대한 교육의 회복탄력성과 대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예측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성찰과 개선, 영감을 얻기 위한 다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중요한 탐구와 관심과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드러내기 위해 유용한 비교를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비교와 순위 매기기가 징벌적으로 사용되면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재정 지원이나 이를 위한 가족 등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 경험과 기대를 균일하게 만들고, 맥락과 자원, 역사적 요인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그러한 비교는 거의 쓸모가 없다.

고등교육에서 비교순위를 만드는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좋은 의도로, 윤리적으로, 균질성을 강제하지 않고 비교를 하는 것은 어렵다. 대조적인 상황에서 운영되는 서로 대단히 다른 고등교육기관들이 그 자체의 특수한 환경과 상관없이 국제적 순위 안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될 때 비교는 매우 문제가 된다. 자원이 풍부한 연구중심대학의 엘리트 모델은 다른 고등교육기관들의 야망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종종 지역적 관련성 및 지역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요구 충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순위와 경쟁에 기반한 교육기관의 균일화에 대한 비난을 고등교육기관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제사회 또한 고등교육 시스템의 연구중심적 목적에만 근시안적인 초점을 두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보다는 전 세계 다수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다수의 고등교육기관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습과 전문가로서 ‘학생’의 미래와 해당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민사회 담론과 정치적 논의를 지원하고,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정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이들 기관이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는 종종 간과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런 부분이야말로 모두에게 배울 점을 제공하는 보다 가치 있는 비교 항목들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에서의 평가는 경쟁적 순위를 넘어서,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그들의 공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교수 및 연구 역량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를 살피는 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

## 대화와 행동의 원칙

2050년을 바라보며 교육의 미래를 위한 연구와 혁신과 관련한 네 가지 핵심 우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본 위원회는 교육의 미래에 대해 일반화되고, 세계적이고, 집단적인 연구 의제를 요청한다.** 이 연구 프로그램은 모두를 위한 교육권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혼란과 변화를 탐색해야 하며, 이 보고서의 2부에 제시된 기본 원칙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 보고서의 정신에 따라, 연구 프로그램은 미래 문해력과 미래 사고에 비추어 그 우선과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지식과 데이터, 증거들은 다양한 원천과 앎의 방식들을 포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오는 통찰은 서로를 배제하고 밀어내기보다 교육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교육 혁신은 다양한 맥락과 장소에서 생기는 더욱 폭넓은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비교와 경험은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만, 주어진 맥락의 고유한 사회적·역사적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되는 것이어야 한다.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초대되어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 씨앗은 특히 교사와 학생, 학교 안에 이미 심어져 있다. 연구기관, 정부, 국제기구들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공동 작업을 촉진하는 연구의제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 제 9 장

# 세계적 연대와 국제협력의 요청



새로운 사회계약은 각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존엄하게 살도록 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전망과 기회를 갖도록 하고, 아프거나 취약하거나

소수인 모든 이를 보호할 것입니다. (...) 한 세대 안에서,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의 모든 어린이가 모든 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며, 우리는 다만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권력과 부와 기회가 전 세계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할 글로벌 뉴딜(A New Global Deal)이  
필요합니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넬슨 만델라 연례강연 (2020.7.18.)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본 위원회는 교육을 공동재로서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 간의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지역·국가·국제 차원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책임의식을 요청하는 바이다.**

교육을 공동재로 보는 원칙은 세계적인 책임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 2020-2021년에 우리는 전 세계 과학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 공공 및 민간기관, 시민 사회의 지원을 받아 전례 없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비록 이것은 인류의 미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세계 과학계의 협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 깊은 사례였

**백신민족주의는 함께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에 심각한 격차가 있음을 드러내주었다.**

지만, 코로나19 백신을 국제적으로 형평성 있게 보급하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 앞에서 이들은 침묵했다.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았음에도 백신민족주의(vaccine nationalism)는 전 세계의 공동재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에 심각한 격차가 있음을 드러내주었다.

교육은 인간이 우리 시대의 주요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독창성과 집단 행동을 위한 잠재력을 길러준다. 따라서 오늘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번영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그 출신과 문화와 현실 조건에 관계없이 평생에 걸쳐 양질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과 학습에 대한 접근성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평등한 접근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누구나 어디에서든 디지털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한 사람의 건강이 모두의 건강과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 생존은 전 세계 모든 아동과 청년 및 성인이 우리 공동의 미래를 형성하고 관리하는 일에 의식적·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해 줄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달려 있다.

교육을 공동재로 인식하는 것이 교육 분야의 국제협력과 국가적·국제적인 교육의 공공 재정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밝혔듯, 모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 질서를 마련하는 핵심적 근간이다.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완수할 의무는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부과되는 것이다.

## 더욱 위태로워지는 세계 질서에 대한 대응

국제 교육 협력은 더욱 위태로워지는 세계 질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의 보편적 가치에 뿌리를 둔 국제사회(a world society)라는 개념은 심각하게 잠식되고 있다.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전 세계의 집단 행동을 조직하는 책임이 있는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들은 혹독한 비판과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경계 연결자(boundary spanners)이자 규범 창설자(norm entrepreneurs)인 비국가 행위자들(nonstate actors)과 시민사회는 20세기에 국내적·국제적 인권 증진을 책임졌지만, 점점 파편화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동맹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들의 활동 공간은 국제적 재정지원이 축소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자유주의적(illiberal) 비국가 행위자들이 자체 권한을 가진 규범 창설자이자 교육가로 떠오르면서,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고 보다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명백히 표현된 가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디지털 기술과 정보의 흐름을 남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만큼이나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적 변화도 심각했다. 경제적 세계화와 함께 기술과학의 진보는 분명 번영을 가져왔고, 세계적으로 빈곤가구를 감소시켰으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는 이제 보다 ‘평등하고’, 좀 더 개방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칭찬받지 못한다. 경제성장은 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영토를 만들어 주었다. 기술 발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독점 및 정보 독점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라는 오랜 믿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 년의 경제발전 동안에는 국가 내에서나 국가 간에 집단행동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역량이 예상치 못할 정도로 제한됐다.

기후행동에서, 그리고 국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분야(해외이주, 평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느린 진전에서 비극적으로 드러나듯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적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빈곤층이 부적절하게 큰 영향을 받는 오늘날 우리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의 합의(또는 합의 능력)만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엔 개혁은 이러한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위기에 대응하려는 혁신의 시도다. 이 장에서는 새로운 세 가지 접근방식을 제안하며, 이는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 거버넌스에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시키는 것, 하향식 활동방식에서 다중심적 활동방식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지역 협력의 형태로 특히 남-남 간 협력과 삼자 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을 추구하는 것이다.

### 원조에서 파트너십으로

교육에서의 국제협력은 위태로운 세계 질서 안에서도 작동할 뿐 아니라 그에 대응해야만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뉴딜(new global deal for education)을 실현하려면 새로운 국제협력의 양식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육기관 자체에서 현재의 도전과제와 특히 청소년들의 집단행동 필요성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육협력이라는 국제적 구조가 주로 각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이해관계 추구하고 식민주의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재정의 흐름과 아이디어의 이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오늘날 국제적 교육 발전과 해외원조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교육은 전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서 아주 적은 몫을 차지할 뿐 아니라, 교육원조는 부적절하게 중간소득 국가 쪽으로 편중돼 있다. 또한 2050년에 세계에서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교육원조는 줄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직접적인 환경적·경제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교육 공적개발원조(ODA)는 장학금 지급을 비롯한 고등교육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히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G7 공여국들 사이에서 그렇다. 유아교육의 보편적 접근과 양질의 초·중등교육 실현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20세기 중반에 유엔에서 처음 채택한 목표였던 아동 비문해 근절을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집단행동 전략은 마련되지 않았다. 여전히 일정 수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남아 있고, 학교에 다니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도 배우는 것이 거의 없다. 난민과 비자발적 이주자의 교육 요구에 대한 재정지원도 부족하다.

난민과 비자발적 이주자의  
교육 요구에 대한  
재정지원도 부족하다.

교육 원조 공여국 간의 조율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남아 있다. 이는 특히 원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북반구의 양자 간 기구들에서 그러하다.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이후 거의 20년이 지났지만, 교육 원조 공여국들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추측에 기반한 형식으로 수혜국의 필요에도 맞지 않는 개발 원조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에 대한 다자간 논의 채널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를 더 잘 활용하고 국가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모으고 조정할 기회가 없다.

하지만 교육의 국제협력이 구축될 수 있는 새롭고 바람직한 발전도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지방과 국가, 그리고 국제적 규모로 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도 생겨나고 있다. 남-남 개발협력과 삼자 형태의 개발협력도 등장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최근의 강력한 지지 노력 덕분에 교육이 국제 정치 의제에서 좀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교육은 세계 및 지역적 정치 기구들의 의제로 점점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

앞으로 더욱 형평성 있고, 더욱 관련성이 있고, 더욱 지속가능한 공동의 교육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유형의 세계적 공공재가 특히 중요할 것이다. 첫째는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 공유된 목적과 규범, 표준을 따르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사회가 교육에 관한 모두에게 열린 지식·연구·데이터·증거의 저장소를 만드는 데 투자하고 홍보하며, 이를 통해 모든 단계의 교육자들이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거를 생성하고 활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그 재정을 보편적인 교육받을 권리 실현이 가장 크게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한다.

## 목적, 책임, 규범, 표준의 공유를 위해

유엔과 유네스코가 창설되고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는 것을 목격한 20세기 중반부터 교육 분야의 국제협력은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공통의 교육 목적에 관한 긴밀한 논의의 필요성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산업화된 세계의 아이디어와 제도들을 복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국제협력의 역사적 흐름으로부터 벗어나 이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 논의에서 남-남 간, 그리고 3자 형태를 증진해야 한다. 특히 교원노조와 학생운동, 청소년단체, 시민사회, 민간부문 공급자와 고용주, 자선단체, 정부, 시민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 행위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높여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 또한 아동 및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장기적 미래에 중점을 둔 협력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재정적 제약이 있는 시기에 진입하면서,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둘러싼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국제적·국가적 재정이 그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은 양국 간 기금이나 자선기금을 놓고 경쟁보다는 상호조정을 도모하고, 함께 모여 공통의 교육 목표 달성에 대한 공동의 지지를 표명하고 기금 마련과 관련된 의제 설정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 부문은 기후와 보건 부문에서 공동목표와 실행방안 확정과 관련한 적절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국제협력 테이블에 참석하는 모든 행위자가 각자에게 맞는 특수하고 마감 시한이 있는 목표와 책임을 설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 국제협력은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역자 주: 유럽연합(EU)의 통합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 제도상의 원칙. 소단위의 법률이나 제도가 우선하고 소단위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단계에서 차상위의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구체적이고 더 지역적인 목표일수록 집단적 지지와 책임을 갖는 실행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고, 그 목적의 특정 ‘소유자’가 이를 법제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각 행위자의 진행 상황을 증거에 기반해 검토함으로써 행위자들이 이러한 책임과 목표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더 강력한 지역적·세계적 모니터링 기제를 만들 수도 있다.

전 세계적 수준에서 교육 부문 및 관련 국제기구들은 주제와 하위 부문의 이슈 전반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퍼포먼스 같은 선언은 종종 나오는 데 반해 활동은 미약했고, 가장 소중하고 오랫동안 유지해 온 몇몇 교육목표 달성은 실패로 돌아갔다. 국제기구들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역할은 다른 행위자들의 활동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은 합의에 기반한 책임을 실행하는 세계적·지역적 역량과 그 책무성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전 세계의 행위자들 역시 지식의 생성과 활용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식과 증거의 중개자로서 행동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국가와 비상 상황에서의 긴박한 교육적 도전과제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서도 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기구들은 우리가 보다 장기적인 과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함께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면서 국제기구들은 우리가 보다 장기적인 과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업 세계의 변화와 자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 해외이주와 기후변화로 인해 국경을 넘는 외부화 문제의 효과적 해결방안, 그리고 점점 디지털화되고 초국가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초점을 둔 연구와 토론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

공동의제는 폭넓은 참여와 공동의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의제는 미래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사고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교육 불평등과 배제를 바로잡기 위한 개입의 시급성 사이의 긴장을 해결해야 한다.



## 지식 생성과 증거 활용에서의 협력

연구와 증거는 교육의 필수적인 글로벌 재화(global goods)다. 연구와 증거는 정부와 그 파트너들이 함께 교육의 변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세계, 지역, 그리고 국가의 책임에 대한 국제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토대가 된다.

OECD부터 유엔 산하기구들까지 주요 국제 기관들의 활동이 체화되지 않은 데이터, 순위 성적표(league tables), 다른 형태의 ‘숫자 위주의 관리(governance by numbers)’ 등을 오용한다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지만, 교육 시스템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공동선(the common good)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여전히 공유된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건 부문과 기후 부문에서 드러났듯, 그리고 교육에 대한 최근의 초국가적 지지에서 보듯,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계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교육 내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행위자들은 국제적 증거와 데이터의 이용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조정하는 일에 실패해 왔다. 전 세계 보건 부문에서는 주요 다자간 기관들이 양질의 모니터링 데이터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 풀을 조성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엔 기구들 사이에서는 공동표준 설정과 통계 및 관련 역량 구축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조정이 없었다. 효과적인 증거 수집과 배포, 증거 및 연구의 격차에 대한 지형 파악,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의 행위자들 간에 새로운 수준에서의 조정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 데이터, 증거를 생성하고 이용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도 더 많은 재정과 조정이 필요하다. 때때로 지식과 연구에 대한 국제적 노력은 일방적인 대화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국제협력에서는 남반구 국가들이 그들의 독자적인 상황에 맞는 새롭고 혁신적인 연구 패러다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여지를 열어주어야 한다. 보건 분야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최근의 노력은 국가와 지방의 역량을 높이고 국가 간 상호학습 지원을 목표로 하는 조정 플랫폼 설립에 중점을 둔 바 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남 협력에 투자하는 새로운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 8장에서 강조했듯이,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사고와 좀 더 다양한 혁신적 해결 방안을 지원하도록 다양한 인식론과 앎의 방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제 연구와 증거, 데이터에 대한 자원조달은 교육의 주요 도전과제다. 보건 부문에서는 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약 25%가 연구, 데이터 등 글로벌 재화에 지출된다(미화 약

70억 달러). 반면 2015년에 공유지식, 증거, 데이터 관련 재화에 투입된 재정은 공적개발 원조의 3%(미화 2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된다. 연구, 지식, 증거에 대한 세계적 재원 조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엔 산하기구 안에 교육적 지식과 증거 생성을 위한 예측 가능한 기금을 조성해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 교육이 위협받는 곳에 대한 재정지원

교육 분야 국제협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원조에 의존하는 논리로부터 벗어나는 것 한편으로, 우리는 또한 교육 분야 국제원조의 역할과 새로운 관계의 초점을 재평가해야 한다.

각국의 필요 대비 원조 제공의 비중이 계속 줄면서, 세계 무대에서 원조의 영향력과 관련성도 감소할 것이다. 원조는 식민주의에서 생겨난 권력의 불균형을 심화시킨 반면 교육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강화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반면에 저소득 국가와 중하위소득 국가들, 특히 향후 수십 년 동안 청년의 대다수가 살게 될 아프리카의 이런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풀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원조의 47%만이 저소득 국가와 중하위소득 국가의 K-12 교육(\*역자 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교육기간)에 사용된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그 수가 늘어날 실향민과 비자발적 이주민의 교육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국제적 자금이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드러났듯이 위기나 비상 상황 이후의 긴급 대응과 교육 재건을 위해 국제 재정의 일부를 비축하는 것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2050년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격차를 메우기 위한 새로운 재정 자원을 증대할 수 있도록 현재의 다자간 채널을 개선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국가 자원을 동원하고 국가 역량도 높여야 한다. 국가 교육 계획과 국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나라에 대한 원조들 간에 더 폭넓은 조정과 조화를 도모하는 일은 국제 원조 공여자들이 2005년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을 승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다자간 채널은 원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기회를 만들고, 가장 필요한 국가와 사람들에게 원조를 곧바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간 채널에서도 수원자를 불필요하게 공여자가 생성한 지식과 처방에 묶어둔다는 점이나 국가 역량 지원에 대한 추적 기록이 미비하다는 점 등과 같이 아직 계획으로만 남아 있는 숙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전 세계 공공보건 분야에서는 이러한 실패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기관들에서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분리하고, 다자간 기관 전반에 걸친 공동 책무성 매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제안된 바 있다.

## 유네스코의 역할

유네스코는 지난 25년간 숱한 도전에 맞서왔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 대화를 조정하고 표준을 설정하며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 책임을 갖고 그 효과적 실행을 위해 애써왔음에도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작은 변명을 하자면,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폭넓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의 전체 예산은 다수 유럽 대학들의 예산보다도 적으며, 유네스코의 교육부문 총예산은 세계은행이 지식과 교육의 역량 구축 활동에 동원하는 예산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교육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실행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교육개발에 대한 접근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유네스코의 접근방식이란 첫째, 스스로를 세계 각 지역 및 국가별 기관과 과정들을 강화하는 파트너로 보는 것이다. 둘째로는, 증거 중개자(evidence broker)로서,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와 시민에 대한 강화된 책무성의 대변인으로서 스스로를 보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달성하고자 세계적 대화를 촉진하는 그 고유한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한편으로, 유네스코의 재정과 인적자원의 일정 부분을 교육권이 가장 위협받는 지역, 특히 2050년까지 세계 청년의 절대 다수가 살고 배우게 될 아프리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해 유네스코는 교육 규범 설정과 재정지원 및 지식 동원에 참여하는 전 세계와 지역적 행위자들의 복잡한 교육 생태계 내에서 유네스코만의 비교우위 항목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유엔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비자발적 이주자들과 난민이 된 사람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혁신적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주자들과 난민의 수는 불확실한 이번 세기를 지나면서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네스코는 그 세계적 수준의 존재감을 활용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보다 평등하고 향상된 접근성 보장을 인권으로서 옹호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교육의 거버넌스에 시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유네스코는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 건설에 있어 교육이 수행하는 역할을 유엔에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평화와 번영,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의 강화가 포함된다.

유네스코는 우리가 공유하는 교육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사람들과 기관들을 모을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 바로 이것이 유네스코의 강점이다. 이러한 강점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구축과 국제적 합의에, 더 중요하게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뉴딜에 대단히 필요하다.

## 대화와 행동의 원칙

이 장에서는 교육의 미래 요구와 도전과제 및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혁신을 요청했다. 2050년을 바라보면서 교육의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네 가지 주요 우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본 위원회는 교육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세계적·지역적 수준에서 협력하여 교육의 도전과제에 대한 목적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인류에게 정의롭고 공평한 미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세계적 도전과제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위협받는 사람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와 파트너십이 참여해야 하고,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다중심적 방식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지역적 협력 형태, 특히 남-남 및 3자 협력을 포괄해야 한다.
- **국제협력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지방·국가·세계 지역 수준의 노력을 지원하고 그 역량을 높여야 한다.** 교육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의 개선을 조율하고 옹호하기 위해 새로운 책임의식과 규범 및 표준이 필요할 것이다.
- **국제개발 재정지원의 중점을 저소득 국가 및 중하위소득 국가에 두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는 특히 아프리카처럼 경제 위축이 심각하고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위기와 비상사태의 혼란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위협받는 인구집단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 **증거, 데이터, 지식에 대한 공동투자 역시 효과적 국제협력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분야에서의 우리의 노력 또한 보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지식을 생성하고 사용하는 지방과 국가, 세계 지역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발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교육 불평등과 빈곤 해소, 그리고 공공서비스 향상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 여러 사회와 국경을 넘어서는 상호학습과 지식교환을 강화해야 한다. 자동화와 디지털화, 이주문제와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보다 장기적인 도전과제에도 대응해야 한다. 교육 발전을 위한 세계적 지식과 데이터라는 두 차원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기금 조성 플랫폼과 새로운 재정 자금이 필요하다.

세계적 연대와 행동을 위한 이 의제는 끈기와 대담성과 결집력을 가지고, 항상 2050년과 그 이후를 바라보며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곧 유엔이 책임을 공유하고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며, 유네스코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교육이 전 세계

공공의 공동재라는 정의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확립을 위해 이 보고서가 제시한 제안들은 실현될 수 없다. 한 세대 안에서 우리는 교육 시스템을 변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 시스템은 진정으로 포용적이고 관련성이 있게 되며,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

에필로그,  
그리고 지속

함께 만드는 교육의 미래

우리는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해 시급히 협력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한 우선과제를 제안하고 이 새로운 사회계약이 두 가지 기본 원칙에 근거해서 마련되도록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그 첫째는 교육받을 권리의 비전을 평생 동안으로 확장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교육을 공공재이자 공동재(a public and a common good)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제안이며, 그 계약이란 교육을 둘러싸고 사회적 결속을 이뤄내고 이에 영감을 주면서, 그에 걸맞는 교육방안이 만들어지도록 할 암묵적 합의와 원칙들을 말한다. 에필로그에서는 주요 우선과제와 제안들을 요약하고, 그러면서 독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것들을 실행에 옮기고, 해석하고, 또 우리가 공유할 교육의 미래를 그려보도록 초대한다.

교육자, 지역사회, 청년과 아동, 가족들은 이미 오랫동안 기존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 왔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에 관해 집단적으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경로를 단지 약간만 수정하자는 것도 아니다. 교육자, 지역사회, 청년과 아동, 가족들은 이미 오랫동안 기존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명확히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러한 노력들은 개별적인 일, 또는 거대한 제도적 기제에 대한 제한적 조정으로 그치고 만다. 대화와 실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고, 정의롭고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혁신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공적 대화를 맥락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초대다. 이 보고서가 의도하는 바는 현실 적용에서, 그리고 각각의 특수한 맥락에서 교육을 위한 사회계약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 이 보고서가 촉매제이자 촉진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미래로 뻗어가는 길 위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이 보고서는 향후 전 세계 사람들이 더 탐색하고, 공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방안과 원칙, 권고사항들을 제안하는 살아있는 문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교육을 혁신하고 변혁하는 정책 개발과 혁신적 행동을 이끌어 낼 새로운 영역에 영감을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학습자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의 변혁에서 이 보고서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오직 교사, 학생, 가족, 정부 공직자, 그 외 교육 이해당사자,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가 이 보고서의

아이디어에 호응하고, 이 아이디어들이 각자의 지역사회의 현실에서 갖는 의미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본 위원회는 보고서가 제시한 많은 아이디어들과 관련해서 유네스코가 긴밀한 논의와 참여, 경험의 공유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을 마련하고 유지하기를 요청한다. 지속적인 성찰과 행동의 과정을 자극할 역량이 있는지에 이 보고서의 미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교육 활동은 언제나 '진행 중'이므로, 여기에 제시된 권고사항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해 작성됐다. 우리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우리 지구를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생명체 및 생명 시스템과 더불어 그리고 인간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공간과 잠재력을 빠르게 열어주면서 동시에 비할 수 없는 위험도 가져다주는 기술과 더불어 더욱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우리 세계를 형성하고 재형성한다는 교육의 가치를 둘러싼 세계적 합의가 우리의 집단적 출발점이다. 이 공유된 신념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새롭고 대부분 전례가 없는 도전들에 맞서는 동안 우리의 책임감을 지켜줄 것이다. 다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듣고, 상상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 지식, 학습에 대한 기존에 확립된 사고방식들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야 하며, 이는 우리의 미래를 변혁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한 제안

이 보고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구축에 필요한 다섯 가지 변화의 차원을 검토했다. 그 차원들 각각에 대한 주요 제안들은 이 보고서의 2부에서 실행을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제시됐다. 여기에는 전체 제안 중에서 교육을 통한 새로운 미래 실현을 위해 각 지역에 맞게 현지화되고 발전될 수 있을만한 한 초기 실행방안으로서 그 요약을 제시한다.

###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

교육학은 협력과 연대의 원칙을 중심으로 변혁해야 하며,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배제와 개별화된 경쟁 방식을 대체해야 한다. 교육학은 공감과 연민을 증진하고,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협력하는 능력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학습은 교실 내 규범과 행동규칙의 한계를 넘어

교육학은 이미 존재하는 것과 새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에 기반한 변혁적 만남을 창조하는 활동이다.



교사, 학생, 지식 간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습은 우리가 공유하는 공동의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필요한 윤리와 돌봄에 대한 학생들의 관계를 확장시킨다. 교육학은 이미 존재하는 것과 새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에 기반한 변혁적 만남을 창조하는 활동이다.

205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학업 성취에 대한 개인주의적·경쟁적 정의(definition)를 우선시하는 교육학적 양식과 수업, 측정방식을 버려야 한다. 대신 다음의 기본 원칙을 우선시해야 한다.

첫째, 개별적·집단적 변혁의 교육학에는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 연대가 필요하다. 교사가 교실 안과 그 너머에서 교육적 관계를 증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 시스템이 이러한 실천 관행을 제도적 수준에서 좀 더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경험과 대화, 봉사과 의미 있는 행동, 연구와 성찰, 건설적인 사회운동과 지역사회 생활 참여 등은 많은 바람직한 접근방식 중 단지 몇 가지 예를 든 것이다. 또한 학교와 교육 시스템은 사회적 장벽과 부문 간의 장벽을 허물어 가족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다른 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교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결과 교육적 관계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협력과 협동이 집단적·관계적 과정으로서의 교육학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또래 피드백,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 제기식 학습 및 탐구기반 학습, 학생 실험실, 직업 기술 워크숍에서부터 예술적 표현과 창조적 협력작업 등 광범위한 학습전략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모든 학습전략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해줄 수 있다. 학교와 교육 시스템은 다양한 연령집단과 관심분야, 사회 부문, 언어집단, 학습 단계에 걸쳐 더욱 폭넓은 교육적 만남을 촉진하는 길을 탐색할 수 있다.

셋째, 연대와 연민(compassion), 공감이 우리의 학습방식에 뿌리내려야 한다. 교육학은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게 해줄 수 있다. 또한 부모와 가족이 자녀와 함께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공유하고 소중히 여기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런 활동은 학생이 마주치는 환경과 관계들로부터 나타나는 편향성, 편견, 구분에 대한 탈학습에 필수적이다. 학교와 교사는 공감을 소중히 여기고 다양한 역사와 언어,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선주민 공동체와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유지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넷째, 모든 평가는 교육학적이며(pedagogical), 따라서 평가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에 대해 좀 더 폭넓은 교육학적 우선과제를 지원하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교사와 학교,

교육 시스템이 학생의 개별적·집단적 학습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도전이 되는 영역을 먼저 파악하고 그 해결을 우선시하는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를 징벌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자'와 '패자'로 범주를 나누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은 고부담의, 탈맥락화된 시험에 과도한 우선순위를 두는 순위매기기로부터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시험은 거꾸로 학교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 교육과정과 공유지식

교육, 지식, 능력, 또 교육이 증진하는 가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육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필수적 과정과 관련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류 공동유산의 일부로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과, 새로운 지식과 새롭게 가능한 미래를 집단적으로 창조하는 과정이다. 205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육과정을 단순히 학교 교과목 체제로 보는 전통적 관념을 넘어설 필요가 있으며, 그보다는 학생들이 인류의 공유지식으로부터 배우고 그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학제적, 상호문화적 관점을 통해 교육과정을 다시 상상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지도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두 가지 필수적인 과정,  
즉 인류 공동유산의  
일부로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새롭게 가능한  
미래를 집단적으로  
창조하는 과정들이 교육을  
뒷받침한다

첫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공유지식에 접근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이 공유지식은 모든 인류의 유산으로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포괄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디자인과 실행은 사실과 정보의 전달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대신 학습자들의 개념, 기술, 가치, 그리고 태도를 증진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지식습득, 적용, 생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와 지구행성의 상황은 세계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구의 변화가 이미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교육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웰빙의 본래적인 상호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반드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사회가 인간 너머의 세계와 불가분의 상호연결성을 갖는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하고, 뒤바꿀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 교육과정에서는 기후변화가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세계에, 그리고 특히 소외된 계층, 예를 들면 빈곤층, 소수집단, 여성과 소녀들

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야 한다. 교육과정 지식은 의미 있는 행동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후변화의 완화와 환경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도록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잘못된 정보와 조작된 정보의 급속한 확산에는 학생 개개인이 진실하고 정확한 지식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해 줄 다중적 문해력, 즉 디지털 문해력과 과학적 문해력, 문자 문해력, 생태적 문해력, 수리력 등으로 맞서야 한다. 이러한 문해력은 진리의 공유에 기반한 의미 있고 효과적인 민주적 참여에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문해력은 사실, 정보, 데이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결론을 도출하고 발견한 결과를 검증하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소통에 필요한 확증과 합리적 자료 구축과 같은 과정에 대한 이해까지 증진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이해, 정확성, 명료성, 그리고 진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 광범위한 역사적·문화적·방법론적 접근방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넷째, 인권과 민주적 참여가 사람과 세상을 변혁시키는 학습과 교육과정을 위한 기본 원칙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신성불가침한 것으로서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며, 우리의 사회계약을 뒷받침하는 집단적 출발점으로서 학습을 규정하는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imperative)을 강조해야 한다. 사회운동과 풀뿌리 공동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과정은 성별, 인종, 선주민 정체성, 언어, 성적 지향, 연령, 장애 또는 시민권의 지위 등 각종 이유로 해당 집단을 차별하는 권력구조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드러내고, 맞설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경로들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다.

## 교사와 교직

교사는 그들의 직업을 통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구축에 독자적 역할을 한다. 교사는 모임의 핵심 주최자로서 서로 다른 요소와 환경들을 함께 모아 학생의 지식과

아직은 그 어떤 기술로도  
훌륭한 인간 교사의  
필요성을 대체하거나  
없앨 수 없다.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며 일한다. 아직은 그 어떤 기술로도 훌륭한 인간 교사의 필요성을 대체하거나 없앨 수 없다. 2050년을 바라보며, 교수활동을 교사 개인의 효과적인 학습 지휘에 의존하는 고립적인 행위로 대하는 것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그 대신 교직은 팀워크를 통해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을 보장하는 협력적 직업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과 팀워크가 교사 직업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포괄적 목적은 가장 재능있는 교사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 따라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그리고 교과전문가와 문해전문가, 사서, 특수교육 교사, 진로상담가,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팀으로서 일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향후 몇 년간 인류가 더욱 다양한 혼란에 직면하게 되면 협력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교사는 아동, 청년, 성인이 변화하는 세상을 적절히 탐색하도록 그들의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최전선에서 계속 일하게 될 것이다. 교육 환경이 학생에게 웰빙, 건강한 관계, 정신건강을 지원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교사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생계에 충분한 급여, 경력승진, 계속교육, 전문성 개발, 협력적 학습환경 등의 형태로 지원이 확대될 때 교사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지식생산 및 성찰과 연구를 교직의 통합적 요소로 인정해야 한다. 교육의 미래에 대한 연구와 지식은 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에서 시작되며, 실제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여러 요소들은 이미 많은 교사가 실천하고 있는 변혁적 교육학 안에 존재하고 있다. 교사들이 공식적·비공식적 방식으로 동료 교육자 및 학교와 함께한 연구와 경험을 문서화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도록 도움으로써 지식생산자이자 교육학의 개척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은 새로운 제도를 구상하여, 교사들의 업무 전반에 걸친 지식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들과의 연구 및 전문가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교사의 교직 자율성을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교직에는 광범위하고 수준 높은 기술과 지속적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수준 높은 예비교사교육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며, 이는 특히 청년 인구의 급증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자격을 갖춘 교사의 공급을 계속 초과하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그러하다. 신입교사의 전문성은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십, 협력적 공동수업 등을 통해 좀 더 개발될 수 있다. 교사에게는 수업 준비와 성찰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더불어 공정하고 공평한 급여도 제공해야 한다. 교직 자율성과 사회적 존경, 적절한 급여의 보장은 유능한 교육자들을 교직에 계속 남아있게 하고, 기술과 동기가 있는 개인들을 교직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것이다.

넷째, 교육에 관한 공적인 토론과 대화,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가 교사의 핵심 업무의 일부로서 통합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너무나 자주, 학교나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사결정이 외부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대화나 상호작용 또는 의미 있는 피드백의 교환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이는 바뀌어야 하고, 교사는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공공 토론과 정책 및 대화에서 리더이자 중요한 정보제공자로서 환영받아야 한다. 교사가 된다는 의미 속에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참여가 교사의 핵심 기능으로 포함된다는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 즉, 교사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형성에 핵심적 참여자로 여겨져야 한다.

## 학교의 수호와 변혁

학교는 더 큰 교육 생태계를  
떠받치는 대들보이며,  
활력 있는 학교는 그 사회가  
공적인 인간 활동으로서의  
교육에 대해,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는 증거다.

학교는 그 모든 잠재력과 약속, 결핍과 한계를 지닌 채 여전히 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교육 환경으로 남아있다. 학교는 더 큰 교육 생태계를 떠받치는 대들보이며, 활력 있는 학교는 그 사회가 공적인 인간 활동으로서의 교육에 대해,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는 증거다. 205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학교가 더는 맥락과 상관 없이 획일적 모델에 따라 조직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현재 학교 모델의 건축, 절차, 조직 방식 대신에 우리는 학교의 역할을 보장하고 변혁하는 방식으로 학교의 시간과 장소를 다시 디자인하는데 대대적인 공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의 우선 과제들이 이 필수적 작업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는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는 도전과제와 가능성을 만나는 공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또 서로와 더불어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는 협동과 돌봄의 환경이 필요하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이 지원과 배려가 있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의 삶에 관련된 도전과제들에 대비할 뿐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급속한 변화에도 대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개별 학생이 함께 협력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의 건축, 공간, 시간, 시간표, 그리고 학생의 그룹화에 대해 다시 상상하고 디자인해야 한다. 그러한 건축 환경과 포용적 디자인은 그 자체로 교육학적 가치를 가지며 공유된 학습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협력의 문화는 학교 행정과 관리뿐만 아니라 학교 간 관계에서도 지침이 되어 이들 간에 건전한 학습, 성찰, 혁신의 네트워크를 증진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 반복은 디지털 기술이 공식적·물리적 학습기관의 적절치 못한 대체물일 뿐임을 보여준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학생의 창조성과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고 필수적일 수 있다. 또 학생들은 디지털 공간

을 탐색함으로써 공유된 지식과 인간 경험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교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알고리즘을 적용하려는 노력은 기존의 고정관념과 배제 시스템을 반복하거나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와 배려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교는 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성의 모범이 됨으로써 우리가 열망하는 미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학생은 신뢰 속에서 교육 분야의 녹색화를 지원하는 일에 임무를 맡아야 한다. 지역 특색과 선주민의 환경 조건과 변화를 잘 반영한 디자인 원칙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 우리가 그 일부이자 삶을 의존하는 자연 세계 및 생태계와의 더 나은 공생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해 줄 적응과 완화, 예방 학습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학교에 관한 교육정책과 기타 정책을 통해 학교와 그 너머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고 증진해야 한다.

##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의 교육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생각을 넓혀서, 이를 더 다양한 시간과 공간과 삶의 단계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우리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우리는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와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완전한 교육을 위한 잠재력을 이해하고, 다양한 교육 현장들을 종종 겹쳐치기도 하면서 교육을 발전시키는 문화적·사회적·기술적 가능성과 연결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사회가 학교 외의 수많은 현장에서 미리 정해지거나 우연한 때에 학습을 제공하고 장려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2050년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권고사항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대화와 행동의 지침으로는 다음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우리는 미래사회가 학교 외의 수많은 현장에서 미리 정해지거나 우연한 때에 학습을 제공하고 장려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의미 있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교육은 평생 동안(lifelong), 생애 전반(life-wide)에 걸쳐 이루어진다. 성인학습과 교육은 더 지원을 받고 발전해야 하며, '숙련'과 '재숙련'이라는 결핍된 개념을 넘어 삶의 모든 단계에서 변혁적 교육의 가능성을 포괄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기회를 실현하고 현재와 미래의 혼란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개념, 태도,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건강한 교육 생태계는 자연적 학습 현장과 건물로 된 학습 현장, 그리고 가상의 학습 현장을 연결한다. 대지, 물, 생명, 미네랄, 대기, 생태계 및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생물권은 필수적 학습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생물권은 우리의 첫 번째 선생님이다. 이와 아울러 디지털 학습 공간은 교육 생태계에 더욱 깊이 통합되고, 교육의 공공성과 포용성, 공동재(common good)로서의 목적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오픈 액세스와 오픈 소스 플랫폼 생성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재정과 정부의 교육 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대응력 있고 형평성 있으며 인권을 옹호하는 교육 방안을 위해 표준과 규범을 정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방, 국가, 세계 지역 및 국제 수준 각각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대화와 행동에 헌신해야 한다.

넷째, 교육권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권을 공식적인 학교 교육만을 중심으로 규정해서는 더는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정보, 연결성,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평생 동안, 그리고 생애 전반에서 학습할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

## 행동에 대한 요청

이 보고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촉진하고 조율하기 위해 두 가지 요청을 제안했다. 그 하나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연구 의제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재이자 공동재(a public and a common good)로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혁신이다. 이 두 가지 요청에 대한 대응을 안내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연결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연구 의제

이 보고서에서 강조된 우선과제들은 공동의 결집된 연구 의제를 뒷받침한다. 그러럼 크게 확장된 연구 의제를 통해 생성된 학습과 통찰 및 경험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함께 구축하기 위한 촉매가 될 것이다. 2050년을 바라보면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연구와 혁신을 안내하는 네 가지 우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미래에 대한 세계적이고 집단적인 연구 프로그램은 모두가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동시에 미래의 혼란을 예상하고 그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 연구는 단순한 측정과 비판을 넘어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교육 혁신을 탐구하는 것으로도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 미래 문해력과 미래 사고에 비추어 우선과제들을 재조정해야 한다.

교육의 미래에 대한  
세계적이고 집단적인 연구  
프로그램은 모두가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미래에 대한 지식과 데이터, 증거는 다양한 출처와 앞의 방식을 반드시 포괄해야 한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오는 통찰들은 서로를 배제하고 밀어내기보다, 교육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도록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자, 대학, 연구기관들은 반드시 탈식민지적이고 민주적이며 인권의 행사와 강화를 촉진하도록 방법론적 가정과 접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연구자는 학교, 교사, 사회운동, 청소년운동, 지역사회가 지식과 정보의 필수적 원천임을 인식해야 한다. 학습과학, 신경과학, 디지털과 빅데이터, 통계 지표를 통해 발견된 내용들은 질적 연구와 실천가 연구를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경험적 투입 요소들과 관련지어 검토함으로써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셋째, 교육혁신은 다양한 맥락과 시간, 장소에 걸쳐 있는 훨씬 광범위한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주어진 상황의 독특한 사회적·역사적 현실을 반영해 적절히 재검토하고 재맥락화한 비교와 경험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육혁신은 때때로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적 집중(institutional convergence)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평가와 성찰은 교육정책이 지속적·통합적 방식이 되도록 촉진하고, 변화 이론으로 정기적으로 다듬어지게 하며, 한편으로는 정체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끝없는 체제 변화의 순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교육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연구를 재검토해야 하며,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교육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씨앗은 특히 교사, 학생, 학교 속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다. 연구기관과 정부, 국제기구는 이 사회계약의 공동 작업을 촉진하는 연구 의제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유네스코는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 교육에 대한 지식과 비전,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정보센터(clearing house)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국제 연대와 협력의 혁신

이 보고서에 명시된 야심찬 비전은 모든 규모에서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실현할 수 없으며, 이는 가깝게는 교실과 학교 환경에서부터 넓게는 국가, 세계 지역, 세계 수준의 책임과 정책방안까지 모두 해당된다. 이 보고서는 공공재이자 공동재(a public and a common good)로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에 대한 책임을 혁신하자고 요청하는 바이며, 이는 국가와 지역·국가·국제 수준의 비국가 행위자 간의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한 협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205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육의 미래를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에 관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집단적 행동에서는 특히 세계적 혼란과 변화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를 가장 위협받는 학습자를 우선해야 한다.

첫째, 본 위원회는 교육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세계 및 지역 수준에서 협력하여 교육의 도전과제에 대한 목적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요청한다. 그 노력은 조화로워야 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정의롭고 공평한 교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또한 평생 동안 교육받을 권리와 공공재이자 공동재(a public and a common good)로서 교육의 가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집단적 행동에서는 특히 세계적 혼란과 변화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를 가장 위협받는 학습자를 우선해야 한다.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국제협력에서는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와 파트너십이 참여하도록 하여 권

력 불균형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집단행동은 하향식 방식에서 다중심적 활동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형태의 세계 지역별 협력, 특히 남-남 및 3자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둘째, 국제협력은 보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지방·국가·세계 지역 수준의 역량 구축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적 책임, 규범, 표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준에서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유네스코는 교육 발전을 위한 접근 방식의 재검토해야 하며, 우선 스스로를 국가 및 세계 지역 수준의 기관들과 절차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 파트너로 여기고, 그 다음으로는 증거 중개자이자 지식생산자, 그리고 교육 시스템과 시민에 대한 책무성을 위한 데이터 강화의 옹호자로서 여겨야 한다.

셋째, 국제 개발 재정지원의 중점을 저소득 국가와 중하위소득 국가, 특히 침예한 경제 위축을 겪고 있고 청년 인구가 많은 나라에 두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국제협력에 있어서 그 재정 및 인적 자원의 일정 부분을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위협받는 지역, 특히 2050년 까지 세계 청년층의 대다수가 살면서 배우게 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긴급히 집중해

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가속화로 비상 상황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곳에도 국제협력의 자원이 지원돼야 한다.

넷째, 증거와 데이터, 지식에 대한 공동투자 역시 효과적인 국제협력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다가오는 수십 년에 걸쳐 우리는 여러 사회와 국경을 넘어, 상호학습과 지식교환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종식, 공공서비스 개선과 같은 핵심 영역뿐만 아니라, 자동화와 디지털화, 해외이주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장기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유네스코는 국가들과 세계 지역 간의 이러한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대화와 참여

우리에게는 희망을 가져야 할 커다란 이유가 있다. 교육 시스템 디자인, 학교 및 기타 교육 시스템의 조직,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육학적 접근방식에서 대규모의 변화와 혁신은 가능하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교육을 변혁하여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활용하고 그밖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가면서, 정의롭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인과 집단의 용기, 리더십, 저항, 창조성, 돌봄의 행동을 통해 경로를 바꿀 것이다. 우리에게는 미래 건설의 기반이 되는 깊이 있고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전통이 있다. 인간에게는 대단한 집단적 행위능력과 지성, 그리고 창의성이 있다. 바람직한 실천은 혁신적인 것이거나 전통에 뿌리를 둔 것일수도 있으며, 둘 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개인과 집단의 용기,  
리더십, 저항, 창조성,  
돌봄의 행동을 통해 경로를  
바꿀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대화에는 최대한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 교육은 지방, 국가, 세계 수준의 시민의식 발전에 결정적인 요소다. 교육은 모든 사람과 관련돼 있으며, 따라서 누구든 자신에게 적절한 그 어떤 영역에서도 교육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교사, 대학,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청년들에게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대화와 행동을 더욱 확대하는 데 참여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음을 제안했다.

- **교사.** 미래에도 교사는 교육의 중심이다.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이어 온 사회계약의 공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결의에 찬 모임의 주최자이자 실천가, 연구자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장하고 교직생활 전반에 걸쳐 발전을 지원하며, 사회 속에

서 그 역할과 공공정책에 대한 참여를 인정해야 한다. 교사는 대화와 혁신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집단을 불러모으는 주역이 될 것이다.

- **대학과 고등교육.** 이 보고서는 모든 장에서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에 특별한 요청을 했는데, 이는 이들 기관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모든 실현 상황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학과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지식의 창조와 보급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육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기초교육의 미래의 상당 부분은 대학의 역할에 달려 있고, 대학의 미래 모습의 상당 부분 역시 기초교육의 역할에 달려 있다. 대학은 아동과 청소년, 특히 유아교육에서 새롭고 더욱 효과적인 방식을 발견하는 한편, 성인교육의 실천에도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그 정의에 따르면 고등교육은 세대 간의 변혁적 대화의 장이며, 이 보고서에 제시된 미래의 상당 부분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 강력하고, 자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인 고등교육 없이는 이 보고서에 담긴 교육을 위한 사회계약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정부.** 이 보고서는 정부의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의 제안이 국가 수준의 교육 시스템에만 해당된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 개혁에 관해 대개 정부 중심의 논리를 따르는 여타 보고서들과 달리,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이 연구, 지식, 혁신, 분석과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자 했다. 이는 다층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행동에 가치를 두는 문제이며, 개혁의 논리보다는 정부가 좀 더 폭넓은 참여를 돕는 촉진자이자 혁신의 촉매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교육의 공공재성이 적정하게 배정·유지되도록 하고 교육을 적합하게 감독하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교육의 공적인 측면을 보호하고 공고히 하는 고유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 **국제조직과 시민사회 조직.** 이 보고서는 교육이 공공재이자 공동재(a public and a common good)임을 상기시키면서 국제 조직과 시민사회 조직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반복의 의도는 중요한 관점의 변화를 요청하는 신호이며, 이를 통해 지방과 국가, 세계 지역, 세계 수준 및 여러 부문에서 교육적 협력에 대한 새로운 목소리가 나올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국제 및 시민사회 조직이 강력한 역할을 할 때,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화는 이들의 고유한 지식과 전문성 및 동원 능력에 힘입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조직은 생각, 성별, 인종과 민족, 문화, 종교적 신념, 성적 정체성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 온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더 잘 드러나고 지지받도록 해 줄 것이다.

- **청소년과 아동.** 마지막으로, 또한 의문의 여지없이, 여기서 제안된 대화에는 젊은이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들의 미래는 부담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으로 다시 규정되어야 한다. 단지 청년들에게 귀기울이거나 그들과 협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것이고 그들의 것이 될 미래를 건설하는 일에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 인종차별, 가부장제, 구속적인 성 규범(gender norms)에 대한 저항, 문화 다양성과 선주민의 자기결정권 옹호 등에 관한 최근의 주요한 청년 및 어린이 중심 운동 사례들은 우리에게 미래로 향하는 중요한 길을 보여준다. 청년들은 이러한 운동을 주도하면서 어른들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어른들이 그저 압도당하거나 얼어붙기만 했던 의제들에 대해 긴박성과 도덕적 명확성을 갖고 스스로 대응하고자 했다. 청년에게는 우리와 자신들의 미래 건설에서 독창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이 있다. 이 보고서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구축에 청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전 세계에서 교사와 지역사회, 조직, 정부는 필요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이미 여러 가지 바람직한 교육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 무수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지식의 공동 창조와 공적 공유를 위한 방법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례들은 교육이 어떻게 의미를 창출하고 사람들의 역량을 높이고 해방시키는지 보여주었으며, 학습이 공동선(the common good)을 위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존의 실천 사례들은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길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좋은 활동들은 더 잘 알려져야 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유네스코가 이 보고서에 제시된 원칙들의 바람직한 실천과 혁신적 적용 사례들의 촉매이자 정보센터가 될 것을 권고한다.

## 지속을 위한 초대

이 보고서의 핵심은 바람직한 미래와 그 미래를 건설하는 데 교육이 도움이 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실현하도록 요청하는 데 있다. 여기 실린 아이디어는 시대의 한 순간을 반영하며, 2년 간의 대화와 협의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보고서의 제안은 미래를 향해 다층적인 대화와 협력과 파트너십을 지속하자는 초대로 끝을 맺는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대화와 협력과 파트너십이다.

보고서는 미래의 교육을 위해 노력을 쏟아야 할 도전과제와 희망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명확히 제시하면서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저절로 실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의 비전이 형태를 갖추고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프로그램과 자원, 시스템, 과정 속에 녹아들어 학생과 교사의 일상 활동과 경험을 변혁시켜야 한다.

교육에는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수많은 개인과 집단들이 참여한다. 교육은 학생, 교사, 가족, 정부 내 여러 수준의 교육행정가와 리더를 참여시키며, 또한 지역사회와 지자체, 국가, 세계 지역 및 세계 수준의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와도 접촉한다. 교육 문화의 변혁은 공동 작업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많은 집단이 이 과정에 자신들의 관심과 이해를 가져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새로운 아이디어와의 비교를 통해 이를 재검토하게 된다. 이 보고서가 제안한 원칙과 제안, 전략을 새로운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지향할 것인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함께 모음으로써 궁극에는 우리의 교육 행위를 변혁시킬 수 있는 자원과 활동을 명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다하고,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여건이 잘 이해되고 수용되고 실행될 때, 교육 행위는 변하게 된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향상시킬 수 있다. 누구나 대화를 소집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는 특히 통신기술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오늘날에 잘 맞는 말이며, 이러한 통신기술 덕분에 평범한 사람도 근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와 교육기관, 지역사회 사이에서도 기술과 인터넷의 도움으로 전혀 없는 협력이 가능해지면서 교육 기회가 실현되고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보고서의 발간과 준비과정 대부분에 그늘을 드리웠다. 이러한 전 세계적 사태는 광범위한 협력과 공동 작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웠다. 아직 코로

나19로 인한 교육적 피해와 손실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 피해가 심각하며 이를 해소하는 과정이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에게 부담이 될 것을 알고 있다. 특히 남반구에 살거나, 다른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곳에 사는 빈곤층과 소외계층에서 그 결과를 가장 힘겹게 느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죽음과 상실의 흔적이 가속화·집중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현실과 겹쳐지면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발명 과정은 우리가 지식과 과학,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학습을 위해 함께 모일 때 무엇이 얼마나 빨리 가능하게 되는지를 인식하게 해 주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들이 새롭고 보다 밝은 교육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모두 함께 모이자는 요청에 추진력을 주기를 희망한다.

이토록 시급한, 그러면서도 커다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에 제시된 아이디어들은 우리가 함께 미래를 그려보면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수립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교육의 미래를 함께 건설하기 위해 더불어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초대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발점이며, 대화와 공동 작업 과정의 시작이다. 교육 그 자체가 그러하듯, 이 보고서 역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것의 실현은 지금 막, 전 세계의 교육자 및 이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통해 시작되고 있다.

# 부록

## 주요 참고문헌

### 독립 보고서

국제미래교육위원회가 핵심 도전과제와 기회를 확인하고 정보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와 작업그룹을 조직하기 위하여 기획된 보고서 공모에 다음 보고서들이 제출됐다. 그 외 약 200여 개 단체들도 관심 집단들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파트너들은 뒷부분에 수록된 글로벌 자문 제공자 목록에 포함됐다.

Arab Campaign for Education for All. 2020. *Summary report on the Futures of Education in the Arab States: Building the future (2020-2050)*. Ramallah, Arab Campaign for Education for All. <http://www.teachercc.org/articles/view/379>

Asia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nd Adult Education. 2021. *From the margins to the center: Youth informing the futures of education*. Manila, Asia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nd Adult Education. [http://www.aspbae.org/userfiles/2021/Futures\\_of\\_Education\\_Report.pdf](http://www.aspbae.org/userfiles/2021/Futures_of_Education_Report.pdf).

Barber, P., Bertet, M., Choi, J., Czerwitzki, K., Njobati, F. F., Grau I Callizo, I., Hambrock, H., Herveau, J., Kastner, A., Laabs, J., Manalo, A., Mesa, J., Mutabazi, S., Muthigani, A., Richard, P., Scheunpflug, A., Sandler-Koschel, B., White, M., and Wodon, Q. 2020. *Christian schools and the futures of education: a contribution to UNESCO's Futures of Education Commission by the International Office of Catholic Education and the Global Pedagogical Network – Joining in Reformation*. International Office of Catholic Education and Global Pedagogical Network – Joining in Reformation. <http://oiecinternational.com/wp-content/uploads/2020/12/OIEC-GPENR-contribution.pdf>

Bridge 47. 2020. *The role of education in addressing future challenges*. Bridge 47. [https://www.bridge47.org/sites/default/files/2020-12/bridge47\\_-\\_report\\_to\\_unesco\\_foe\\_international\\_commission\\_final.pdf](https://www.bridge47.org/sites/default/files/2020-12/bridge47_-_report_to_unesco_foe_international_commission_final.pdf)

Éducation, Recherches et Actualités. 2021. *L'Éducation du futur - L'enseignement supérieur : défis et paradoxes*. Beirut et Paris, Université Saint Joseph et Université Gustave Eiffel. <https://www.periodicos.ufam.edu.br/index.php/larecherche>

Emmaüs International. 2020. *Rapport à l'attention de la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initiative de l'UNESCO: « Les futurs de l'éducation : apprendre à devenir »*. Montreuil, France, Emmaüs - International. [https://emmaus-international.org/images/actualites/2020/10/EMMAS\\_INTERNATIONAL\\_-\\_Contribution\\_Les\\_futurs\\_de\\_l'ducation\\_juillet\\_2020\\_003.pdf](https://emmaus-international.org/images/actualites/2020/10/EMMAS_INTERNATIONAL_-_Contribution_Les_futurs_de_l'ducation_juillet_2020_003.pdf)

Garcés, C. E. 2020. *Aportación para la Comisión Internacional*. Madrid.



- 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 (ICAE). 2020.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ALE) – Because the future cannot wait*. 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 <https://en.unesco.org/futuresofeducation/sites/default/files/2020-10/ICAE%20-%20Futures%20of%20ALE%20FINAL.pdf>
- International Task Force on Teachers for Education 2030. 2021. *The futures of teaching: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Futures of Education Initiative*. Paris, UNESCO <https://teachertaskforce.org/knowledge-hub/futures-teaching-background-paper-prepared-futures-education-initiative-0>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Commission 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CEC). 2021. *Vi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s of Education*. Gland, Switzerland,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https://www.iucn.org/sites/dev/files/content/documents/cec\\_report\\_to\\_unesco\\_foe\\_-\\_6.5.pdf](https://www.iucn.org/sites/dev/files/content/documents/cec_report_to_unesco_foe_-_6.5.pdf)
- Mouvement International ATD Quart Monde. 2020. *Contribution du Mouvement International ATD Quart Monde aux Futurs de l'Éducation*. Pierrelaye, France, Mouvement ATD Quart Monde – Agir Tous pour la Dignité. <https://nextcloud.atd-quartmonde.org/index.php/s/DzMMci4yqP6dkPA>
- Red Regional por la Educación Inclusiva de Latinoamérica. 2020. *Los futuros de la educación – Contribuciones de la Red Regional por la Educación Inclusiva de Latinoamérica*. Buenos Aires, Red Regional por la Educación Inclusiva de Latinoamérica. <https://rededucacioninclusiva.org/wp-content/uploads/2020/09/Los-futuros-de-la-educaci%C3%B3n-Contribuciones-de-la-Red-Regional-por-la-Educaci%C3%B3n-Inclusiva-de-Latinoam%C3%A9rica.pdf>
- Schulte, D., Cendon, E. and Makoe, M. 2020. *Re-Visioning the Future of Teaching an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Report on Focus Group Discussions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Initiative*. University of the Future Network. [https://unifuture.network/wp-content/uploads/sites/2/2020/08/20200722\\_UFN\\_UNESCO-report\\_fin.pdf](https://unifuture.network/wp-content/uploads/sites/2/2020/08/20200722_UFN_UNESCO-report_fin.pdf)
- SDG-Education 2030 Steering Committee. 2020. *Contribution to the Futures of Education*. Paris, UNESCO. <https://sdg4education2030.org/sites/default/files/2020-07/Futures%20of%20Education%20SDG-Ed2030%20SC%20contribution%20July%202020.pdf>
- Sefton-Green, J., Erstad, O. and Nelligan, P. 2021. *Educational Futures Across Generations*. Centre for Research for Educational Impact (REDI) at Deakin University and Department of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Oslo. [https://www.deakin.edu.au/\\_data/assets/pdf\\_file/0005/2298551/Educational-Futures-Across-Generations.pdf](https://www.deakin.edu.au/_data/assets/pdf_file/0005/2298551/Educational-Futures-Across-Generations.pdf)
- Seguy, F. 2021. *Penser l'avenir de l'éducation en contexte de pandémie*. Port-au-Prince,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8392>
- UNESCO. 2020. *Humanistic Futures of Learning: Perspectives from UNESCO Chairs and UNITWIN Networks*.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2577/PDF/372577eng.pdf.multi>

-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20. *Embracing a culture of lifelong learning: Contribution to the Futures of Education Initiative*. Hamburg,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112/PDF/374112eng.pdf.multi>
- UNESC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ESALC). 2021. *Thinking Higher and Beyond: Perspectives on the Futures of Higher Education to 2050*. UNESC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7530>
- UNESCO. 2021. *Caribbean Futures of Education – Final Report*. Kingston, UNESCO. <https://en.unesco.org/caribbean-futures-of-education>
- UNESCO's Collective Consultation of NGOs on Education 2030. 2021.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 2050 and beyond*. Paris, UNESCO's Collective Consultation of NGOs on Education 2030. [https://en.unesco.org/system/files/the\\_role\\_of\\_csos\\_in\\_2050\\_and\\_beyond.pdf](https://en.unesco.org/system/files/the_role_of_csos_in_2050_and_beyond.pdf)
- Unescocat and Fòrum Futurs de L'educació. 2020. How to Get to the Future of Education: Lessons Learned from the Escola Nova 21 Alliance in Catalonia. Unescocat-Center for UNESCO of Catalonia. <https://catesco.org/wp-content/uploads/2020/10/Unescocat-contribution-to-Futures-of-Education.pdf>
- Wong, S., Kwok, V., Kwong, T. and Lau, R. 2020. Individuality, Accessibility, and Inclusivity: Applied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in Revolutionising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Our Hong Kong Foundation. [https://ourhkfoundation.org.hk/sites/default/files/media/pdf/UNESCO\\_submission\\_13102020.pdf](https://ourhkfoundation.org.hk/sites/default/files/media/pdf/UNESCO_submission_13102020.pdf)
- World Council on Intercultural and Global Competence. 2021. Contribution from the World Council on Intercultural and Global Competence to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Initiative. [https://iccglobal.org/wp-content/uploads/World-Council-Futures-of-Education-Learning-to-Become-Initiative\\_.pdf](https://iccglobal.org/wp-content/uploads/World-Council-Futures-of-Education-Learning-to-Become-Initiative_.pdf)

## 참고 문서

다음 참고 문서들은 국제미래교육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이슈에 대한 성찰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의 의뢰로 집필됐다.

- Assié-Lumumba, N. T. 2020. *Gender, knowledge production, and transformative policy in Africa*.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154>
- Buchanan J., Allais S., Anderson M., Calvo R. A., Peter S. and Pietsch T. 2020. *The futures of work: what education can and can't do*.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435>

- Common Worlds Research Collective. 2020. Learning to become with the world: Education for future survival. *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 Working Paper 28*. Paris, UNESCO
- Corson, J. 2020. *Visibly ungoverned: strategies for welcoming diverse forms of knowledge*.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85>
- Couture, J. C., Grøttvik, R. and Sellar, S. 2020. *A profession learning to become: the promise of collaboration between teacher organizations and academia*.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156>
- Damus, O. 2020. *Les futurs de l'éducation au carrefour des épistémologies du Nord et du Sud*.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47>
- Desjardins, R., Torres, C. A. and Wiksten, S. 2020. *Social contract pedagogy: a dialogical and deliberative model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879>
- D'Souza, E. 2020. *Education for future work and economic security in India*.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880>
- Facer, K. 2021. *Futures in education: towards an ethical practice*.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5792>
- Facer, K. 2021. It's not (just) about jobs: education for economic wellbeing. *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 Working Paper 29*.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6150/PDF/376150eng.pdf.multi>
- Facer, K. and Selwyn, N. 2021. *Digital technology and the futures of education – towards 'non-stupid' optimism*.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7071>
- Gautam, S. and Shyangtan, S. 2020. *From suffering to surviving, surviving to living: education for harmony with nature and humanity*.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86>
- Grigera, J. 2020. *Futures of Work in Latin America: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risis*.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436>
- Hager, P. and Beckett, D. 2020. *We're all in this together: new principles of co-present group learning*.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89>
- Haste, H. and Chopra, V. 2020. *The futures of education for participation in 2050: educating for managing uncertainty and ambiguity*.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441>

- Hoppers, C. 2020. *Knowledge production, access and governance: a song from the south*.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33>
- Howard, P., Corbett, M., Burke-Saulnier, A. and Young, D. 2020. *Education futures: conservation and change*.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87>
- Inayatullah, S. 2020. Co-creating educational futures: contradictions between the emerging future and the walled past. *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 Working Paper 27*. Paris,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581/PDF/373581eng.pdf.multi>
- Labate, H. 2020. *Knowledge access and distribution: the future(s) of what we used to call 'curriculum'*.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153>
- Lambrechts, W. 2020. *Learning 'for' and 'in' the future: on the role of resilience and empowerment in education*.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88>
- Mengisteab, K. 2020.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African contexts*.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155>
- Moore, S.J. and Nesterova, Y. 2020. *Indigenous knowledges and ways of knowing for a sustainable living*.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46>
- Saeed, T. 2020. *Reimagining education: student movements and the possibility of a Critical Pedagogy and Feminist Praxis*.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157>
- Schweisfurth, M. 2020. *Future pedagogies: reconciling multifaceted realities and shared visions*.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77>
- Smart, A., Sinclair, M., Benavot, A., Bernard, J., Chabbott, C., Russell, S. G. and Williams, J. 2020. *Learning for uncertain futures: The role of textbooks, curriculum, and pedagogy*.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78>
- Sriprakash, A., Nally, D., Myers, K., and Ramos-Pinto, P. 2020. *Learning with the past: racism, education and reparative futures*.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45>
- Stitzlein, S. M. 2020. *Using civic participation and civic reasoning to shape our future and education*.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34>

Vasavi, A.R. 2020. *Rethinking mass higher education: towards community integrated learning centres*.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442>

Wagner, D., Castillo, N. and Zahra, F. T. 2020. *Global learning equity and education: looking ahead*.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5000>

Ydesen, C., Acosta, F., Milner, A.L., Ruan, Y., Aderet-German, T., Gomez Caride, E. and Hansen, I. S. 2020. *Inclusion in testing times: implications for 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4084>

Alongside this background research, an interactive game was developed for the Futures of Education initiative to think about alternative learning systems and explore their implications with different groups.

Keats, J. and Candy, S. 2020. *Accession: Building an intergenerational library*. Game developed for the Futures of Education initiative.

## 글로벌 자문 자료

다음 문서들은 유네스코의 의뢰로 포커스 그룹, 온라인 플랫폼,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를 위해 기획된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 채널을 통해 입수한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분석하고 종합하기 위해 집필됐다.

Jacobs, R. and French, C. 2021. *Women, robots and a sustainable generation: Reading artworks envisioning education in 2050 and beyond*.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search/faad9f2c-4a70-4b7a-8ac7-c3cffeec156c>

Melchor, Y. 2021. *Analysis report of the online consultation modality: Your ideas on the futures of education*.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8271/PDF/378271eng.pdf.multi>

TakingITGlobal. 2021. *Focus group discussion analysis: Perspectives from the UNESCO Associated School Network's community of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8054/PDF/378054eng.pdf.multi>

UNESCO. 2021. *Education in 2050: Analysis of social media polling campaign for UNESCO's Futures of Education report*. Paris, UNESCO.

Moeller, K., Agaba, S., Hook, T., Jiang, S., Otting, J., Sedighi, M. and Wyss, N. 2021. *Focus group discussions analysis: September 2019 – November 2020*. Paper commissioned for the UNESCO Futures of Education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5579/PDF/375579eng.pdf.multi>

## 국제미래교육위원회 간행물

이 보고서의 집필 과정에서 위원회는 피드백과 다양한 제안을 받기 위해 진행중인 업무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수차례 발표했다. 위원회는 또한 코로나 19 위기에 의해 촉발된 교육 혼란에 대한 제언도 내놓은 바 있다.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2020. *Visioning and Framing the Futures of Education*. UNESCO, Pari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208>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2020. *Protecting and transforming education for shared futures: joint statement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UNESCO, Pari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380>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2020. *Education in a Post-COVID World: Nine ideas for public action*. UNESCO, Pari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717>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2021. *Progress update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UNESCO, Pari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5746>

# 국제미래교육위원회

## 사명

국제미래교육위원회는 점차 복잡성,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커져가는 세계에서 교육을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를 모두 함께 성찰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 대화와 행동을 이끌어낼 의제를 제시하기 위한 대표 보고서를 만들어 분석과 제언을 내놓고자 한다. 보고서는 2050년과 그 이후를 내다보며 교육 정책과 교육 실천 양쪽에서 동시에 채택될 비전과 전략을 담아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발표 이후 그 영향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근의 지정학적 변화, 급속한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 인간 이동 패턴 변화, 과학기술 혁신의 가속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기술, 사회, 경제, 환경적 혼란이 가져올 여러 가지 미래의 모습을 비롯해 이러한 미래에 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예상하고 분석해야 한다.

위원회는 지식을 공동재로 여기며 교육에 대해 다원적·통합적·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해 온 유네스코의 오랜 헌신을 보고서에서 검토할 것이다. 또한 과거 유네스코 세계 교육 보고서가 제시한 기본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재평가도 요청받았다. 요약하자면 위원회는 앞으로 예상되고, 가능성이 있고, 바람직한 미래의 엄청난 도전과제와 기회의 측면에서 교육과 학습, 그리고 지식의 역할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 위원 소개

### 사흘레-워크 쥬드(HE Sahle-Work Zewde)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사흘레-워크 쥬드는 2018년 10월 25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5대 대통령이자 첫 번째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88년 에티오피아 외무부에 입부한 뒤 주세네갈 대사로 카보베르데,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를 함께 관할했고 지부티 대사 겸 동아프리카 정부간개발기구(IGAD) 대표부 대사를 지냈으며, 주프랑스 대사로 모로코와 튀니지를 관할 하면서 주유네스코 대표부 대사를 겸임하고 아프리카연합(AU) 대표부 대사 겸 아프리카국장(Director-General for African Affairs)을 역임했다.

사후레-워크 대통령은 2009년 유엔에 합류해 사무총장 특별대표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유엔 통합평화구축사무소(UN Integrated Peacebuilding Office) 소장으로 재직했다. 2011년에는 사무차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최초의 전임 나이로비 유엔 사무소 소장으로 임명됐다. 2018년 6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그녀를 아프리카연합 특별대표 겸 주아프리카연합 유엔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했다. 그녀는 유엔에서 이들 직책을 맡은 최초의 여성이다.

## 안토니우 노보아(António Nóvoa)

포르투갈 리스본대학 교육연구소 교수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연구초안위원회 의장

안토니우 노보아는 리스본대학 명예총장이며 2006년에서 2013년까지 총장직을 수행했다. 교육학 교수인 그는 제네바대학과 소르본대학(파리 4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40여 개 국가에서 세미나와 강의를 했고 200여 편의 학술 논문을 집필했다. 현재 주유네스코 포르투갈 대사로 재직하고 있다.

## 마사노리 아오야기(Masanori Aoyagi)

일본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마사노리 아오야기 교수는 1944년 중국 다롄에서 태어났다.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사 분야의 주요 석학 중 하나인 그는 40여 년간 지중해 유적들을 발굴해 왔다. 1967년 도쿄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한 뒤 1969년에서 1972년까지 로마대학에서 고전미술사와 고고학을 공부했으며 문학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본 문화청 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나라현 가시하라시 고고학연구소 소장 겸 타마미술대학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

미국 뉴욕대학교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바드 대학원 센터(뉴욕) 막스 베버(Max Weber) 글로벌 교수

아르준 아파두라이는 뉴욕대학교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이자 바드 대학원 센터 막스 베버 글로벌 교수이다. 그는 세계화의 문화적 역동성에 대한 분석가로 손꼽히며 다양성, 이주, 폭력, 도시 등을 연구 분야로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저작으로는 네타 알렉산더(Neta Alexander)와 공저한 <Failure>(Polity Press, 2019)가 있다.



## 패트릭 아우아(Patrick Awuah)

가나 아셰시대학(Ashesi University) 설립자 겸 총장

패트릭 아우아는 새로운 세대의 윤리적인 기업가 리더를 교육시켜 아프리카의 부흥을 촉진하고자 하는 아셰시대학의 설립자 겸 총장이다. 그의 주도 하에 아셰시대학은 엄격한 다학문적 핵심부문을 경영학, 컴퓨터과학, 공학 등의 주력 전공분야들과 통합 운영하고 있다. 그는 와이즈 교육상(WISE Prize for Education) 수상자이자 맥아더 연구원(MacArthur Fellow)이다. 2015년에 포춘(Fortune)지는 그를 세계 리더 50인 중 하나로 선정했다.

## 압들 바셋 벤 하센(Abdel Basset Ben Hassen)

튀니지 아랍인권연구소 소장

압들 바셋 벤 하센은 튀니지 아랍인권연구소 소장이다. 30년간 인권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그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인권 프로그램과 교육 개혁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업무에 몰두해 왔다. 인권, 인권교육, 문화에 대한 다수의 글을 집필했으며 유엔 인권교육 10년 초안 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 크리스토팅 부아크(Cristovam Buarque)

브라질 브라질리아대학교 명예교수

크리스톳방 부아크는 소르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워싱턴DC의 미주개발은행에서 6년간 일했다. 브라질리아대학교 명예교수이며 과거 총장으로 재직했다. 브라질에서는 교육부 장관, 연방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지냈다. 교육과 관련된 조건부 현금급여 개념을 창시했으며 접근성 확대 및 교수법 혁신과 관련된 기본교육과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글들을 발표했다.

## 엘리사 게라(Elisa Guerra)

멕시코 필라델피아 벨리 학교(Colegio Valle de Filadelfia) 설립자 겸 교사

엘리사 게라는 교사이자 멕시코 필라델피아 벨리 학교의 설립자이며 인간잠재력개발연구소(Institutes for the Achievement of Human Potential) 라틴아메리카 지부장이다. 그녀는 2015년 미주개발은행과 ALAS 재단(Fundación ALAS)이 수여하는 ‘라틴 아메리카 최고 교육자상’을 받았고 글로벌 교사상 최종후보에도 올랐다. 멕시코 몬테레이공과대학교(ITESM)와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6권의 저서와 교과서를 집필했으며 조기교육, 세계시민교육, 혁신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바드르 자파르(Badr Jafar)

아랍에미리트 크레센트 엔터프라이즈(Crescent Entreprises) 최고경영자

바드르 자파르는 크레센트 엔터프라이즈의 최고경영자(CEO)이자 크레센트 석유(Crescent Petroleum)의 사장이다. 그는 유엔 협력사무국(UN Office for Partnerships)과 함께 투명성과 책임에 중점을 둔 기업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민간 주도 비영리 단체인 펄 이니셔티브(Pearl Initiative)를 설립했다. 샤르자창업센터(Sharjah Entrepreneurship Centre)와 가자 스카이직스(Gaza Sky Geeks)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재직 중이다. 다수의 고등교육기관과 관계를 맺고 케임브리지대학 저지경영대학원,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레가텀개발·창업센터(Legatum Centre for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of Beirut), 샤르자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of Sharjah)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케임브리지대학 전략자선센터(Centre for Strategic Philanthropy)의 창립 후원자이다.

## 김도연(Doh-Yeon Kim)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그 후 울산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을 맡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과 교수법의 변화를 관심분야로 두고 있다.

## 저스틴 이푸 린(Justin Yifu Lin)

북경대학교 신구조경제연구소(New Structural Economics Institute) 교수겸 학장

저스틴 이푸 린은 북경대학교 신구조경제연구소와 남남협력발전연구소의 학장이자 국가발전연구원 교수 겸 명예학장이다. 과거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겸 수석경제학자로 재직했으며 북경대학교 중국경제연구소의 창립 소장이었다. 경제학과 개발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 예브게니 모로조프(Evgeny Morozov)

작가

예브게니 모로조프는 작가이자 정보기술의 사회·정치적 함의에 대한 사상가로 <The Net Delusion>(2011)과 <To Save Everything, Click Here>(2013)를 집필했다. 그는 하버드대학에서 과학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조지타운대학과 스탠포드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했다. 또한 일반 대중이 진지한 학문적 지식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미디어 프로젝트 'The Syllabus'의 창시자다.

## 캐런 먼디(Karen Mundy)

유네스코 국제교육계획연구소(IIEP) 소장,  
토론토 대학교 온타리오교육연구소 교수(휴직 중)

캐런 먼디는 유네스코 국제교육계획연구소의 신임 소장이자 토론토대학교 교육정책-리더십 교수다. 개발도상국의 교육에 대한 주요 전문가이며 과거 글로벌교육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에서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일했다. 또한 캐나다 연구교수(Canada Research Chair), 연구혁신 부학장, 비교·국제교육학회(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회장도 역임했다. 그녀는 교육개혁, 정책, 시민사회에 관한 6권의 저서와 수십 편의 논문, 공저, 정책문서를 집필했다.

## 페르난도 레이머스(Fernando M. Reimers)

미국 하버드교육대학원 교수

페르난도 레이머스는 하버드교육대학원에서 포드재단 국제교육실천 교수와 글로벌교육혁신 이니셔티브 담당소장을 맡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분야 전문가인 그는 21세기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교육법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기울인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40여 권의 학술서적을 집필 및 편저했으며 100여 편의 논문과 공저를 발표했다. 또한 대학원생 팀을 이끌고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몇몇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며 이 교육과정들은 세계 각지의 학교에서 이용되고 있다.

## 탈시라 리베라 지아(Tarcila Rivera Zea)

페루 선주민문화센터(Centro de Culturas Indígenas del Perú: CHIRAPAQ) 소장

탈시라 리베라 지아는 페루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선주민 운동가 중 한 명이다. 그녀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주민 여성 및 청소년 리더들의 교육을 촉진하는 기관인 페루 선주민문화센터(CHIRAPAQ)를 통해 40여 년간 선주민 권리를 옹호해 왔다. 또한 미대륙선주민여성네트워크(ECMIA) 및 국제선주민여성포럼(FIMI)에도 참여하고 있다.

## 세리네 음바예 티암(Serigne Mbaye Thiam)

세네갈 수자원위생부 장관

세리네 음바예 티암은 루앙대학교 경영대학원(Rouen Business School)을 졸업했다. 그는 세네갈에서 국회의원, 예산 보고관(general rapporteur), 고등교육·연구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018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글로벌교육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이사회 부의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세네갈 수자원위생부 장관을 맡고 있다.

##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Vaira Vīķe-Freiberga)**

전 라트비아 대통령,

현재 바쿠 니자미 간자비 국제센터(Nizami Ganjavi International Center) 공동의장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 박사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라트비아 대통령으로 재임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리더십연맹/마드리드 클럽 의장을 역임했다. 그녀는 유럽연합의 유엔개혁 특사 및 다수의 고위그룹 특사로 활동했다. 17권의 저서와 200편 이상의 저술을 발표했으며 5개 학술원의 회원이자 옥스포드대학 올프슨 칼리지 명예 연구원이기도 하다.

## **마하 야야(Maha Yahya)**

레바논 카네기중동센터(Carnegie Middle East Center) 소장

마하 야야는 카네기중동센터의 소장으로서 정치적 폭력, 정체성 정치, 불평등, 시민권, 난민 위기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MIT와 런던에 있는 영국건축협회 건축학교(AA)에서 사회과학과 인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다수의 자문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삼극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 글로벌 위원,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 아스파리시민사회·시민권연구소(Asfari Institute for Civil Society and Citizenship) 공동 의장, 아나아크라협회(Ana Aqra Association) 이사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

##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에 전반적인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다

### 타리크 알 구르그(Tariq Al Gurg)

두바이케어(Dubai Cares) 최고경영자

### 앨리스 올브라이트 (Alice P. Albright)

글로벌교육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GPE) 최고경영자

###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유엔글로벌교육특사

### 아네트 딕슨(Annette Dixon)

월드뱅크그룹 인적개발부총재

###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Fore)

유니세프 총재

### 수잔 홉굿(Susan Hopgood)

국제교원노조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위원장

### 카를로스 모다스(Carlos Moeda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4-2019 연구과학혁신위원

### 마티아스 로드리게스 인시아르트 (Matías Rodríguez Inciarte)

산탄데대학교 총장

### 레팻 사바(Refat Sabbah)

글로벌교육캠페인(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회장

### 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

콜롬비아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장

### 세실리아 스카프(Cecilia Scharp)

스웨덴국제개발협력단 사무총장보

### 안드레아스 슬라이허 (Andreas Schleiche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기술국장

### 알레트 반 레르(Alette Van Leur)

국제노동기구(ILO) 정책국장

### 하이리헤 반트 랜드 (Hillegje van't Land)

세계대학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사무총장

### 유메 야마구치(Yume Yamaguchi)

유엔대학 지속가능성연구소장

# 글로벌 자문 제공자 목록

## 기관 및 네트워크

다음의 비정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 학술기관, 연구단체, 민간단체, 청소년·학생 단체 및 네트워크, 그리고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들은 포커스 그룹 토론, 주제보고서, 웨비나 (webinars)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교육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 대화(2019-2021)에 기여했다. 업데이트된 명단은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Abhivayakti Media for Development	Association des Parents Adventistes pour le Développement de l'Education (APADE)
Academic and Career Development Initiative Cameroon	Associ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lternatives (ASDA)
Accademia delle Arti e delle Nuove Tecnologie di Roma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étudiants en sciences économiques et commerciales (AIESEC)
Adream Foundation	Association Montessori Inter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AMI/USA)
Afric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AflIA)	Association Montessori Internationale (AMI), Russia
Agastya International Foundation	Association Montessori Internationale (AMI), Sub Saharan Africa
Agency for Cultural Diplomacy (ACD)	Association Montessori Internationale (AMI), United Kingdom
Allama Iqbal Open University	Association Montessori of Thailand
Amala	Association Nigérienne des Educateurs pour le Développement (AN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at the United Nations	Athabasca University
Amity University	AzCorp Entertainment
Arab Campaign for Education for All	Bangladesh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rab Institute for Human Rights	Bangladesh Youth Forum
Aristotle University of Thessaloniki	Beijing Normal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Ashoka	
Asia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nd Adult Education (ASPBAE)	
Asociación Montessori Española	

- Bilingualism Matters
- Bilingualism Matters, Siena Branch,  
University for Foreigners of Siena
- biNu
- Board of European Students of Technology
- Brainwiz
- Bridge 47
- Cameroon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 Canadian Commission for UNESCO (CCU)
- Canadian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ESDC)
- Catalyst 2030
- Center for Education Development and Skill  
Acquisition Initiative
- Center for Engaged Foresight
- Center for Intercultural Dialogue
- Centre Catholique International de  
Coopération avec l'UNESCO (CCIC)
- Centr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Research in Education (CIRE)
- Centre for Research for Educational Impact  
(REDI) at Deakin University
- Centre for Youth and Development Malawi
- Centro de Estudios em Educação Superior,  
Pontifícia Universidade Católica de  
Rio Grande do Sul (PUCRS)
- Centro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Académica y Posgrados, México
- Centro de Investigación y Acción Educativa  
Social - CIASES
- Centro Regional de Profesores del Este -  
Maldonado
- Centro Regional de Profesores del Suroeste  
- Colonia
- Chartered College of Teaching
- Cinglevue
- Civil Society Education Partnerships, Timor  
Leste
- Climate Commission for UK Higher and  
Further Education
- Climate Smart Agriculture Youth Network  
(CSAYN)
- Coalition for Educational Development, Sri  
Lanka
- Collective Consultation of NGOs
- Columbia University's Teachers College
- Comisión Costarricense de Cooperación  
con la UNESCO
- Comisión Nacional Española de  
Cooperación con la UNESCO
- Comité mondial pour les apprentissages  
tout au long de la vie
- Commission nationale algérienne pour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culture
- Commission nationale angolaise pour  
l'UNESCO
- Commission nationale haïtienne de  
coopération avec l'UNESCO
- Commission nationale Lao pour l'UNESCO
- Commission nationale libanaise pour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culture  
(UNESCO)
- Commission nationale malgache pour  
l'UNESCO
- Commission nationale rwandaise pour  
l'UNESCO
- Commission nationale suisse pour  
l'UNESCO
-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CIES)
-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of Asia  
(CESA)

- Consejo de Formación en Educación,  
Administración Nacional de  
Educación Pública (ANEP), Uruguay
- DAP 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Development Management
- Délégation permanente de la Suisse auprès  
de l'UNESCO et de la Francophonie
- Department of General and Preschool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Azerbaijan
- Developmental Action Without Borders -  
NABAA
- Dhurakij Pundit University
- Diálogo Interamericano
- Dream a Dream
- DW International (Germany)
- E-Net Philippines
- e<sup>2</sup>: educational ecosystems
- ED Wales
- EDUCAFIN Mentoring Program
- Education for all Somalia
- Education for an Interdependent World
- Education International
- Éducation, Recherches et Actualités (EDRAC)
- Education+
- Educational Futures Network (EFN),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Bristol
- Educational Resource Development Centre  
Nepal (ERDCN)
- Eidos Global
- Emmaus International
- Epiphany Labs
- Erasmus Student Network
- ESD Japan Youth
- European Democratic Education Community
- European Dental Students' Association  
(EDSA)
- European Parents' Association (EPA)
- European Student Network
- European Students' Union
- European Youth Forum
- Expert Advisory Board for Transformative  
Education of the Austrian  
Commission for UNESCO
- Finnish Development NGOs – Fingo
-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 Firenze Fiera
- Foundation For Youth Employment Uganda
- Franklin University
- Fundação Calouste Gulbenkian
- Fundación Mustakis
- Fundación Santillana
- Galileo Teacher Training Program (GTTP)
- General Direction of Planning, Ministry of  
Education of Bolivia
- GeoPoll
- German Commission for UNESCO
- Girls Not Brides AR
- Giving Hope to the Hopeless Association  
(GHHA)
-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 Global Changemakers
- Global Edtech Impact Alliance
- Global Education Policy Network
- Global Hands-On Universe (GHOU)
- Global Pedagogical Network - Joining in  
Reformation (GPENreformation)
- Global University Network for Innovation  
(GUNI)



- Global Young Greens
- Grow Waitaha - Ōtautahi (Christchurch)
- Hellenic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Rhetoric in Education
- HundrED
- Indonesi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Initiative for Article 12 UNCRC (InArt12)
- Innovazing Vision
- Institute for Research on Population and Social Policies,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Italy
-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isbon
- Instituto de Formación Docente - Rocha
- Instituto Politécnico de Beja & Universidade Lusófona de Humanidades e Tecnologias de Lisboa (ULHT)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IAU)
- International Centre for Higher Education Innovat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UNESCO-ICHEI)
- International Centre for UNESCO ASPnet (ICUA), China
- 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 (ICAE)
- International Council for Open and Distance Education (ICDE)
-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Scotland (IDEAS)
-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 (IPSF)
- International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InSEA)
- International Youth Council
- INTI International University and Colleges
- Isa Viswa Prajnana Trust
- Istituto Comprensivo Statale "Perna - Alighieri" of Avellino
- Istituto Professionale di Stato per i Servizi per l'enogastronomia e l'ospitalità alberghiera "R. Virtuoso" of Salerno
- IUCN Commission 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 Karanga: The Global Alliance for Social Emotional Learning and Life Skills
- Kidskintha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Professeurs et maîtres de Conférences des Universités - IAUPL
- L'Organisation International pour le droit à l'éducation (OIDEI)
- L'Organisation Mondiale pour l'Éducation Préscolaire (OMEP)
- Latvi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Learning through Landscapes
- Lebanese University (LU)
- Maker's Asylum
- Me2Glosses, Thessaloniki branch of Bilingualism Matters
- Millennium Project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Haiti
- Ministère de l'éducation, Lao PDR
- Ministère de l'éducation, Rwanda
- Ministero dell'Istruzione (Ministry of Education, Italy)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Republic of Latvia
- Ministry of Education of Quebec

- Ministry of Education, Belarus
- Ministry of Education, Bhutan
- Ministry of Education, Ecuador
- Ministry of Education, Research and Religious Affairs, Greece
- Ministry of Education, Romania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rtugal
-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Indonesia
- Montessori Association of Thailand
- Montessori México
- Mouvement International ATD Quart Monde
- National Campaign for Education, Nepal
- National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UNESCO
- National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UNESCO
-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al Planning and Administration, India
- National Youth Council of India
- National Youth Council of Malta
- National Youth Council of Namibia
- Neo-bienêtre
- Network for International Policies and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NORRAG)
- Network of Education Policy Centers
- Networking to Integrate SDG Target 4.7 and SEL Skills into Educational Materials (NISSEM)
- North American Montessori Teachers Association
- Northwestern University
- Oceane Group
- Office International de l'Enseignement Catholique (OIEC)
- 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s Envoy on Youth (United Nations)
- Officina Educazione Futuri initiative
- Okayama University
- Omuta City Board of Education, Japan
- One Family Foundation
- Our Hong Kong Foundation
- Out of the Books ASBL
- People for Education
- Permanent Delegation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to UNESCO
- Permanent Delegation of Viet Nam to UNESCO
- Peruvian National Commission of Cooperation for UNESCO
- Peruvian National Commission of Cooperation for UNESCO
- Philippine Futures Thinking Society
- Philippine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 Polish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Portland Education
- Portugues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Portuguese Network of Communities of Learning (Rede CAP)
- Prince's Trust International
- ProFuturo
- Protection Approaches
- Proyecto Sinergias ED
- Red Regional por la Educación Inclusiva
- Regional Center for Educational Planning (RCEP)
- ReSource at Burren College of Art

- RET International
- Rete Dialogues Nazionale
- Réussir l'égalité Femmes-Hommes
- Right to Education Initiative
-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 Santander Universidades
- Scholas Occurrentes
- Sciences Po Campus de Poitiers
- SDG-Education 2030 Steering Committee
- ShapingEDU, Arizona State University
- Slovene NGO Platform for Development,  
Global Education and Humanitarian  
Aid (SLOGA)
- Society for Intercultural Education, Training,  
and Research (SIETAR)
- Southeast Asia ESD Teacher Educators  
Network (SEA-ESD Network)
- Strate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Initiative
- Study Hall Educational Foundation
- Subcommittee on Migrant and Refugee  
Children of the NGO Committee on  
Migration
- SW Creative Education Hub, Bath Spa  
University
- Swedish Association for Distance Education  
(SADE)
- Swedish Association for Distance Learning  
Härnösand
- Swedish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weduction
-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 Te Pū Tiaki Mana Taonga | Association of  
educators beyond the classroom
- Teach For Liberia
- Thammasat University
- The Arab Network for Popular Education/  
The Ecumenical Project for Popular  
Education – The Lebanese Coalition  
for Education for All
- The Dialogue
- The Edge Foundation
-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The Goi Peace Foundation
- The Hamdan Foundation
- The Innovation Institute, Australia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Research & Capacity  
Building (IIHed), O.P. Jindal Global  
University
- The International Task Force on Teachers  
for Education 2030
- The Millennium Project
-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The Montessori Society AMI (UK), United  
Kingdom
- Tybed
- UN Association of Norway
- UNESCO National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 Unescocat, Fòrum Futurs de l'Educació
-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for the  
Advanced Study of Sustainability  
(UNU-IAS)
- Universidad Católica de Córdoba
- Universidad Nacional de Tres de Febrero
- Universidad Tres de Febrero
- Université de Cergy

Université Laval	Vote for Schools & Protection Approaches
University of Bristol	World Council on Intercultural and Global Competence
University of Dundee	World Family Organization (South Africa and Europe region)
University of Edinburgh	World Futures Studies Federation (WFSF)
University of Latvia	World Heutagogy Group, London Knowledge Lab
University of Leeds	World Youth Assembly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Yale University
University of Oslo	York University
University of Piraeus	Young Diplomats Society (YDS)
University of Salerno	Youth Agro-Marine Development Association (YAMDA)
University of the Future Network	Youth Entrepreneurs Corporatio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YEC-DRC),
University of Tlemcen	Zero Water Day Partnership
VIA University College	
Vietnam Association for Education for All Vilnius University Students' Representation	
Visionary Education	

## 학교

다음은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를 위해 학생, 교사 또는 학부모들과 토론 및 포커스 그룹 활동을 수행한 학교들의 명단이다. 참고로 이 중 다수는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ASPnet)에 포함된 학교들이다.

### 알제리

Collège d'enseignement moyen Ahmed Zazoua Djidjel  
École des frères Samet Blida  
Ecole privée El Awael Annaba  
Ecole privée la Citadelle Savoir Alger

### 앙골라

Alda Lara Polytechnic Secondary Institute  
Centre for Professional Education  
Gregório Semedo College  
Industrial Polytechnic Institute of Kilamba Kiaxi No.8056 "Nova Vida"

Jacimar College  
Lyceum Ngola Kiluanji No. 1145  
Lyceum No. 8054 - PUNIV "Nova Vida"  
Medium Industrial Institute of Luanda  
Medium Technical Institute of Hotel  
Management and Tourism No. 2009  
Middle Economics Institute of Luanda  
Middle Institute of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n° 8055 "Nova Vida"  
(IMAG-Nova Vida)  
Mutu Ya Kevela Secondary School  
Primary School José Martí No. 1136  
Primary School No. 1134 - ex 1050  
Public School No. 1140 (ex 1058) - 1° de  
Maio  
Public School No. 1222 (ex-1107) - Bairro  
Azul  
Secondary School Juventude em Luta n°  
1057 - ex 2033  
Training School for Health Technicians of  
Luanda

## 아제르바이젠

Baku European Lyceum  
Modern Educational Complex  
School #220 named after Arastun  
Mahmudov  
School-Lyceum # 6 named after T. Ismayiov

## 방글라데시

Abudharr Ghifari College, Dhaka  
Adamjee Cantonment College  
Azimpur Govt. Girls School & College,  
Dhaka  
Bangladesh International School and  
College, Mohakhali, Dhaka

Cambrian School & College, Dhaka  
Dhaka Commerce College, Dhaka  
Dhaka Residential Model College  
Engineering University School & College,  
Dhaka  
Govt. Bangla College, Mirpur, Dhaka  
Govt. Bhiku Memorial College, Manikganj  
Govt. Laboratory High School, Dhaka  
Madaripur Govt. College, Madaripur  
Munshiganj Govt. Women's College,  
Munshiganj  
Udayan Uchcha Madhyamik Bidyalaya,  
Dhaka

## 벨라루스

Gymnasium No. 1 named after F.Skorina,  
Minsk  
Minsk Gymnasium #12  
State Educational Establishment  
"Gymnasium No. 33, Minsk"  
State Educational Establishment "Grodno  
City Gymnasium"  
State Educational establishment "Secondary  
School No. 201 Minsk"  
State Educational Establishment "Labour  
Red Banner Order Gymnasium  
No.50 of the city Minsk"  
State Educational Institution "Snov  
Secondary School"  
State Educational Establishment "Minsk  
Gymnasium 12"  
Gymnasium No. 2 Orsha

##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Schools

## 중국

Hainan Middle School  
Ledong Huangliu High School of No. 2  
High School of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Qingdao No.2 High School  
Shanghai High School  
Shanghai Song Qingling School  
The Experimental High School Attached to  
Beijing Normal University  
The High School Affiliated to Renmin  
University of China

## 콜롬비아

Corporación Educativa Minuto de Dios

## 코스타리카

Colegio Ambientalista de Pejibaye  
Colegio de Cedros  
Colegio de Santa Ana  
Colegio Humanístico Costarricense -  
Campus Nicoya  
Colegio Yurusti  
CTP de Orosi/Instituto de Alajuela  
CTP de Turruabares  
CTP Don Bosco  
Escuela Carmen Lyra  
Escuela Carolina Dent Alvarado  
Escuela Central de Tres Ríos  
Escuela de Palomo  
Escuela Infantil NP San José  
Escuela INVU Las Cañas  
Escuela José Cubero Muñoz  
Escuela José Ricardo Orlich Zamora

Escuela Juan Flores Umaña  
Escuela La Fuente  
Escuela La Gran Samaria  
Escuela Líder Daytonia Talamanca  
Escuela Líder Sector Norte  
Escuela Naciones Unidas  
Escuela San Francisco  
Escuela Tomás Jefferson  
Escuela y Colegio Científico CATIE  
Golden Valley School  
Instituto de Formación de Docentes de  
Universidad Nacional (UNA)  
Liceo de Aserrí  
Liceo de Limón - Mario Bourne  
Saint Anthony School  
Saint Gregory School  
Saint Jude School  
West College

## 덴마크

Aalborg Handelsskole  
Aalborg Katedralskole  
Aarhus Statsgymnasium  
Absalons Skole  
Alminde-VIUF Fællesskole  
Allsundgymnasiet  
Askov Efterskole  
Asmildkloster Landbrugsskole  
Aurehoej Gymnasium  
Baaring Boerneunivers  
Bagsværd Kostskole Og Gymnasium  
Bredagerskolen  
Business College Syd

Campus Jelling, UCL	Nivaa Skole
CELF	Noerre Gymnasium
Christianshavns Gymnasium	Nykøbing Katedralskole
Egaa Gymnasium	Odense Katedralskole
Egtved Skole	Oelsted Skole
Eltang Skole og Børnehave	Paderup Gymnasium
Endrupskolen	Pedersborg Skole
Espergærde Gymnasium & HF	Professionshøjskolen UCN
EUC Nord	Professionshøjskolen VIA
EUC Nordvest	Randers Social- og Sundhedsudd.
EUC Syd	Rantzausminde Skole
Faxehus Efterskole	Ranum Efterskole
Gammel Hellerup Gymnasium	Ranum Skole
Gefion Gymnasium	Roedkilde Gymnasium
Gladsaxe Gymnasium	Roskilde Gymnasium
Haderslev Katedralskole	Roskilde Tekniske Skole
Han Herred Efterskole	Skovbrynet Skole
Helsingør skole - Skolen i Bymidten	Sønderskov-Skolen
HF & VUC Fyn	Sortedamskolen
Holluf Pile Skole	SOSU Esbjerg
IBC Int. Business College	SOSU Nord
Ingrid Jespersens Gymnasieskole	SOSU Syd
Jelling Friskole	Store Magleby Skole
Juelsminde Skole	Strandskolen
Kold College	Tech College
Langelands Efterskole	Tietgen Business
Learnmark	Toender Handelsskole
Lillebæltskolen	Tradium
Lindbjergskolen	U/Nord
Mercantec	Vesthimmerlands Gymnasium
Naestved Gymnasium of HF	Viden Djurs
NEXT	VUC Storstroem
Niels Brock Int. Gymnasium	ZBC

## 핀란드

Alppilan lukio  
Björneborgs svenska samskola  
Etäkoulu Kulkuri  
Haapajärven lukio  
Haapajärven yläaste  
Helsingin kielilukio  
Helsingin yliopiston Viikin normaalikoulu  
Iisalmen lyseo  
Jyväskylän kristillinen opisto  
Jyväskylän Lyseon lukio  
Jyväskylän normaaalikoulu  
K. J. Ståhlbergin koulu  
Kaitaan lukio  
Kellon koulu  
Kempeleen Kirkonkylän koulu  
Kilpisen yhtenäiskoulu  
Laanilan lukio  
Lapinlahden lukio ja kuvataidelukio  
Lyseonpuiston lukio  
Mäkelänrinteen lukio  
Oriveden lukio  
Oulun normaalikoulu  
Oulun normaalikoulu (yläkoulu)  
Oulun Suomalaisen Yhteiskoulun Lukio  
Putaan koulu  
Rauman normaalikoulu  
Saimaan ammattiopisto Sampo  
Suomalais-venäläinen koulu  
Tampereen yliopiston normaalikoulu  
Tikkalan koulu  
Tuusulan lukio  
Vaasan lyseon lukio

## 독일

Albert-Schweitzer-Schule Hofgeismar  
Edith-Stein-Schule Ravensburg & Aulendorf  
Freie Waldorfschule Karlsruhe  
Gesamtschule Bremen Mitte  
Gewerbliche und Hauswirtschaftlich-  
Sozialpflegerische Schulen  
Emmendingen  
Heinrich-Hertz-Schule Hamburg  
Illtal-Gymnasium Illingen  
Limesschule Idstein  
Max-Planck-Gymnasium Berlin  
Ostendorfer-Gymnasium Neumarkt  
Sophie-Scholl-Schule Berlin  
Städtische Realschule Heinsberg „Im  
Klevchen“  
Warndt-Gymnasium Völklingen

## 그리스

1st Junior High School of Serres  
1st Senior High School of Ierapetra  
2nd Gerakas Senior High School  
2nd Junior High School of Geraka  
2nd Senior High School of Chania  
2nd Senior High School of Serres  
2nd Vocational Senior High School of  
Rethymno  
4th Junior High School of Maroussi  
4th Senior High School of Serres  
5th Junior High School of Agia Paraskevi  
American College Pierce  
Aristoteleio Junior High School of Serres  
Doukas Junior High School  
Experimental Junior High School of  
Rethymno



Experimental Primary School of Serres  
Junior High School Athens College  
Junior High School of Koimisis, Serres  
Junior High School Psychiko College  
Music School of Serres  
Protypo Junior High School  
Protypo Junior High School of Anavryta  
Ralleio Junior High School of Piraeus  
Senior High School of Pentapoli, Serres  
Zagorianakos Junior High School

## 과테말라

Cooperativa Agro Industrial Nuevo  
Amanecer

## 아이티

Collège Cotubanama  
Collège de Côte-Plage

## 인도네시아

SMP Labshool Kebayoran

## 이탈리아

ITCTS Vittorio Emanuele, Bergamo

## 일본

Amagi Junior High School  
Amanohara Elementary School  
Ginsui Elementary School  
Hakko Junior High School  
Hayamadai Elementary School  
Hayame Elementary School  
Hirabaru Elementary School

Kamiuchi Elementary School  
Kunugi Junior High School  
Kuranaga Elementary School  
Matsubara Junior High School  
Meiji Elementary School  
Miike Elementary School  
Minato Elementary School  
Miyanojima Junior High School  
Nakatomo Elementary School  
Omuta Chuo Elementary School  
Omuta Special Education School with  
special care  
Shirakawa Elementary School  
Tachibana Junior High School  
Taisho Elementary School  
Takatori Elementary School  
Takuho Junior High School  
Takuma Junior High School  
Tamagawa Elementary School  
Tegama Elementary School  
Tenryo Elementary School  
Yoshino Elementary School

## 라오스

Collège Sisattanak  
Collège Sisavad  
École primaire Nahaidiao  
École primaire Phonpapao  
École primaire Phonphanao  
École primaire Phonthan  
École primaire Sokpalouang  
École secondaire Champasak

École secondaire Phiavat  
Lycée Chanthabouly  
Lycée Vientiane-Hochiminh  
Vientiane Secondary School

## 레바논

Ahliyah School  
Al Kawthar Secondary School  
Al Manar Modern School - Ras el Metn  
Central College Jounieh  
Collège de la Sainte Famille Française -  
Fonar  
Collège des Soeurs des Saints Coeurs -  
Bauchrieh  
Collège Notre Dame de Jamhour  
Collège Protestant Français Montana - Dik  
el Mehdi  
Collège Saint Grégoire - Beirut  
Etablissement Sainte Anne de Besançon -  
Beirut  
Greenfield College Beirut  
Hajj Bahaa Eddine Hariri School - Saida  
Imam Sadr Foundation-Rehab Al Zahraa  
School  
Institut Moderne du Liban-Collège Père  
Michel Khalifé - Fanar  
International College - Beirut  
Les écoles de l'Association islamique  
philanthropique d'Amliéh  
Les écoles de l'Ordre Libanais Maronite  
(OLM)  
Makassed Ali Ben Taleb School - Beirut  
Our Lady of Annunciation - Rmaich  
Rafic Hariri High School Saida  
Sagesse High School Ain Saadeh

## 마다가스카르

CEG Ambohimanarina  
CEG Antanimena  
CEG Nanisana  
Collège privé ESSOR  
Collège privé La Columba Ambatomainty  
Collège privé Le Pétunia  
Collège privé Palais des Princes  
Ecole privée Pinocchio  
EPP Ambatomanoina Lovasoa  
EPP Ambohidroa 1  
EPP Beravina  
Lycée Andrianampoinimerina Sabotsy  
Namehana  
Lycée Horace François Antalaha  
Lycée J.J. RABEARIVELO  
Lycée Mirinarivo Itasy  
Lycée Nanisana  
Lycée Naverson Fianarantsoa  
Lycée privé La Chanterelle Sabotsy  
Namehana  
Lycée privé Les Petits Chérubins  
Lycée Talatamaty

## 멕시코

Colegio Valle de Filadelfia  
Instituto Alpes San Javier  
PrepaTec Eugenio Garza Sada

## 노르웨이

Steinerskolen i Tønsberg

## 파키스탄

Karachi Grammar School

## 페루

Colegio Peruano Alemán Max Uhle  
Institución Educativa Jorge Basadre, Junín  
Instituto de Educación Superior  
Pedagógico Público Teodoro  
Peñaloza, Junín

## 포르투갈

Agrupamento de Escolas D. Dinis, Quarteira  
Agrupamento de Escolas da Batalha  
Agrupamento de Escolas Sé, Lamego  
Colégio Diocesano Nossa Senhora da  
Apresentação, Calvão  
Escola EB/123 Bartolomeu Perestrelo,  
Funchal, Madeira  
Escola Profissional do Montijo  
Escola Secundária Aurélia de Sousa, Porto  
Escola Secundária Filipa de Vilhena, Porto  
Escola Secundária Jaime Moniz, Funchal,  
Madeira  
Escola Superior de Educação Jean Piaget,  
Almada  
Externato Frei Luís de Sousa, Almada  
Instituto Duarte de Lemos, Águeda

## 대한민국

치악초등학교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충렬여자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  
효양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  
인천영종고등학교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전주신흥고등학교  
전남외국어고등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마산여자고등학교  
문산수역고등학교  
남성여자고등학교  
오송고등학교  
세종국제고등학교  
신남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원화여자고등학교  
양청고등학교  
영주제일고등학교

## 르완다

APADE Kicukiro  
Collège Christ Roi de Nyanza  
College Christ Roi/Nyanza  
Collège de Gisenyi  
College de Gisenyi (Inyemeramihigo)  
College Saint André  
Collège Saint André  
Ecole Primaire Saint Joseph  
Ecole Primaire Saint Joseph/Kicukiro  
Ecole Primaire SOS  
Ecole Primaire SOS Kacyiru  
Ecole Technique SOS  
Ecole Technique SOS Kigali  
FAWE Girls School Kigali  
FAWE Girls School Kigali  
Groupe Scolaire Sainte Bernadette Save  
Groupe Scolaire Maie Reine Rwaza

Groupe Scolaire Notre Dame de Lourdes/  
Byimana

Groupe Scolaire Nyanza/Kicukiro

GS Marie Reine Rwaza

GS Notre Dame de Lourdes Byimana

GS Nyanza/Kicukiro

GS Sainte Bernadette/Save

Lycée de Kigali

Lycée de Kigali

Lycée Notre Dame de Citeaux

Lycée Notre Dame de Cîteaux

Teacher Training College Muhanga

TTC Muhanga

## 슬로베니아

Gimnazija Celje Center, Celje

Gimnazija Nova Gorica, Nova Gorica

Gimnazija Ptuj

IV. OŠ Celje

OŠ 16. december Mojstrana

OŠ Alojza Gradnika Dobovo

OŠ Bratov Polančičev, Maribor

OŠ Cirila Kosmača Piran

OŠ Cvetka Golarja Škofja Loka

OŠ dr. Jožeta Pučnika, Črešnjevci, Slovenska  
Bistrica

OŠ Dušana Flisa Hoče

OŠ Franceta Bevka Tolmin

OŠ Griže, Griže

OŠ in vrtec Sveta Trojica

OŠ Janka Padežnik Maribor

OŠ Kapela

OŠ Kobilje

OŠ Ledina Ljubljana

OŠ Pesnica

OŠ Poljane, Poljane nad Škofjo Loko

OŠ Selnica ob Dravi

OŠ Sveta Trojica

OŠ Toneta Čufarja Jesenice

Škofja Loka High School

Šolski center Lava, Celje

Šolski center Ptuj, Ekonomska šola

Srednja gradbena šola in gimnazija Maribor

Srednja zdravstvena in kozmetična šola  
Maribor

Srednja zdravstvena šola Celje

## 스페인

Colegio Los Abetos

Colegio Público de Hurchillo

Colegio Sagrada Familia (Zaragoza)

Colegio Trabenco

IES Salvador Victoria (Monreal del Campo,  
Teruel)

## 영국

Strathallan School

## 미국

Gunnison Middle School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서로 연결된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이 경로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구상하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긴급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간 교육은 긍정적 변화를 불러 일으킬 강력한 힘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이제 다시 새롭고 급박하며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한다. 국제미래교육위원회는 2년에 걸쳐 약 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전 세계적 협의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 모두를 위한 평화롭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 기관, 단체, 시민들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수립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현재의 교육이 과거의 약속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의 어디쯤에 있는지를 검토하고 교육학(pedagogy), 교육과정, 교사활동, 학교,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학습 등의 다섯 가지 차원에서 교육 혁신에 관해 논의한다. 아울러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연구와 전 세계적 연대 및 국제협력을 요청한다. 보고서는 학습자, 교육자, 교육 시스템, 관리자, 기획자, 연구자, 정부,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디지털 기술과 기후변화, 민주주의의 퇴보, 사회 양극화, 노동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심층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고 대화에 나서도록 이끌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행동에 나서도록 자극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경로를 바꾸고 교육의 변화를 통해 정의롭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백만의 개인과 집단의 용기와 리더십, 저항, 창의성과 관심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